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은 배운 사람을 가까이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노력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2월 8일)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내륙철도 해인사역 배제 효용성 외면 부당 결정”

해인사 · 합천사암련 등 13일 기자회견서 성토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국토부가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사업 계획에서 해인사역이 배제된 것과 관련, 해인사와 지역주민들이 재조사를 토대로 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인사역 예정부지에 따른 지리적 이점과 가치, 이용인구수 등을 토대로 한 효용성과 경제성을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합천 해인사와 지역사암연합회, 해인사역사추진주민위원회는 1월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당국과 국회, 지자체에 대해 “해인사역 선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최근 공개한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의 노선 및 역사 선정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합천군을 경유하는 지역에 ‘해인사역(합천군 야로면 일대)’이 배제된 데 따른 것이다.

해인사역사추진위는 촉구서를 통해 “해인사와 가야산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위시한 수많은 국보와 보물 등 각종 문화재들이 산재하고 있다”며 “그동안 교통접근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연간 100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방문해 왔음을 보면, 남부내륙철도 노선에서 ‘해인사역’을 배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그동안 국민적 이용에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해인사가 보유한 팔만대장경과 가야산 일원의 광활한 산림과 토지, 수많은 불교성보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가야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해인사의 재산권 행사와 종교활동을 제약해 왔고 해인사는 국민이용이라는 공익적 이유로 수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며 “전 국민이 이용하는 남부내륙철도 노선에서 ‘해인사역’을 배제한 것은 이율배반적일 뿐만 아니라 이중적 행정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인사와 지역주민들은 ‘해인사역 선정의 재검토 촉구와 관련,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지리적 이점과 가치, 유동인구와 거주인구 등 역 선정의 기본이 되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 이익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임을 명확히 했다.

해인사역사추진주민위원회 도감 진각 스님은 “평가초안에서 역사로 선정된 곳 역시 해인사역이라는 명칭이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인사역사 추진위원회의 재검토 요구는 명칭과는 무관하다”며 “국토부가 세계적인 지명도와 이용도가 높은 세계문화유산지역과 가야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무시한 채 지역개발업자의 이해만을 반영해 합천읍내 인근으로 부지를 선정한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수요저조로 인한 공동화 등 실패사례로 꼽히는 ‘함안역’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스님은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책사업으로,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따라서 노선의 정거장은 인접지자체의 교통연계와 이용편익까지 고려하는 광역적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추진위 촉구서에 따르면 해인사역 부지는 광주대구고속도로 해인사IC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고령IC에서 5분거리, 거창IC에서 15분거리다. 합천군은 물론 인접 지자체인 거창군과 고령군까지 두루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셈이다. 또 외지인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지역인지도와 교통연계성, 경제성과 발전성을 두루 갖춘 해인사역이 남부내륙철도의 합천지역 통과구간의 가장 합리적인 정거장이라는 주장이다.

강행시에는 공원지정 해제도
지리적 이점 · 가치 반영돼야
“전면적인 재검토 시급” 주장

진각 스님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이다. 10년도 내다보지 못한 국책사업은 반드시 재조정돼야 한다”며 “현재 이 같은 입장을 담아 전면 재조사와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도 촉구서에서 “국토부가 중요한 국책사업을 초안 그대로 기만적으로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국토부가 져야할 것”이라며 “해인사 또한 국민적 이용 때문에 해인사의 많은 유물과 산림, 토지를 국가문화재와 세계문화유산, 국립공원으로 무상 제공하면서 각종 규제를 당하는 현실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진위는 △청와대 소관 수석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인 노선과 정거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나설 것 △국토부와 기재부는 용역회사의 연구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해인사역 선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 △환경부와 문화재청도 세계문화유산과 가야산국립공원에 대한 원활한 국민적 이용을 위해 해인사역 유치에 적극 나설 것 △경남도와 합천군도 소극적 행정과 국소적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의 향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눈 치우며 번뇌도 쓸어낸다 새해부터 연일 눈이다. 1월 12일 오후부터 서울에 내린 대설에 조계사 사부대중이 제설 울력에 나섰다. 스님은 도량에 하얗게 내린 눈을 치우며 마음의 번뇌도 쓸어낸다. 부처님 제자 주리반타가가 그랬듯이. ‘쓸고 털리라.’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南北불교계 새해 서신 올해 첫 단절

매년 새해 남북 불교계가 주고받은 서신 교류가 올해 처음으로 단절 위기에 처했다. 새해 1월 중순이 지났음에도,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이 조계종과 천태종 등 남측불교계의 새해서신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과 천태종 등 대북교류활동을 전개해 온 종단들은 매년 새해가 되면 의례적으로 조선불교도연맹과 새해서신을 주고받으며 교류해 왔다. 불교계 대북교류단체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새해서신 교류는 남측 불교계가 메일 혹은 팩스를 활용한 새해서신을 발송하고 조불련이 이에 1월 1일자 서신으로 회답하는 형태다.

그러나 올해 조불련은 1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남측 종단의 새해서신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전무했던 일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최악으로 치달아 온 남북관계를 되짚어 볼 때 올해 새해서신 교류 단절은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에도 새해서신은 있었지만, 종단 대표자와 단체 대표자 명의로 각각 발송된 기존 관례와 달리 종단명만이 기재된 무성의한 서신 형태로 발송돼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불련의 올해 새해서신 미발송이 남측 정부에 대한 북측 기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매개이자, 남북 정부간 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시각도 있다. 올해는 불교계 뿐 아니라 이웃종교를 포함한 30여 곳의 민간교류단체들 중 단 한곳도 북측 교류단체의 새해서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남북정부간 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올해 남북불교계 교류는 역대 최악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의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북한 사찰 및 문화재 복원 · 조사사업, 천태종의 의천국사 다례재 등 그동한 불교계가 추진해 온 남북불교교류 사업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北, 1월 중순까지도 무응답
관계자들 “초유의 일” 주목
올해 남북관계 난항예측도
2월 한미 군사훈련 기폭제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 진창호 사무처장은 “지난 세월동안 불교계는 정부간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교류는 있었는데, 올해는 새해서신조차 오지 않는 등 교류의 문이 완전히 닫힌 채 최악을 상황을 맞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도 보이지 않아 고민이 깊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5일부터 진행 중인 제8차 당대회에서 “현재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발표이전 시기로 되돌아가 관계개선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남북관계의 회복이나 활성화 여부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간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북측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올 2월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남북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불교계 한 실무자는 ”지난해부터 북측은 일관된 기조로 남측정부를 향해 판문점 회담 당시 체결한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정부 역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는 더욱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송지희 기자**



당신의 참여로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어린이•청소년센터 건립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동련은
어린이·청소년 **인성과 희망**을 키웁니다.
지혜·자비 바탕을 키웁니다.
내일 인재 **참 불자**를 키웁니다.

–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문화, 인성, 마음행복 프로그램
– 학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 지도자를 위한 전문 교육
– 어린이·청소년 활동 지원 및 상담

• **후원계좌**(예금주 : 사단법인 동련)
부산은행 140-01-002189-8 농협 301-0278-6185-41

어린이 • 청소년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증명	정관 혜총
고문	정여 철오 지현
총재	지홍(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부총재	운성 덕진 지광 심산 성행
추진위원장	신공(이사장)
추진부위원장	정무(상임이사)
추진위원	도제 탄경 혜타 지우 능후 효산 명원 현수 혜성
사무총장	미수
지역후원관리	김미경 김상희 김용숙 박영우 신현임 조현주

사업부 최미선 지원부 이현미 홍보부 손무늬 모금부 박소정

동련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48번길 22 세인빌딩 3층
Tel (051) 864-4569 Fax (051) 864-4665
www.dongryun.net

조계종 종정 신년하례 최소규모 봉행

1월 12일 법회나 인사말 없어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위촉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12일 대구 동화사 설법전에서 '불기2565년 신축년 종정예하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사진제공=조계종

조계종 종정예하 신년하례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규모로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12일 대구 동화사 설법전에서 '불기2565(2021)년 신축년 종정예하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이날 신년하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로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스님들은 불교의 전통인 '통알'로 신년인사를 올린데 이어 별도의 법어나 인사말 없이 종정예하의 덕담을 듣고 나누는 등 간소한 방식으로 하례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례에 이어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는 신임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무관 스님은 지난해 11월 56차 원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전계대화상에 추천됐으며, 현재 법계위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한편 조계종이 매년 신년하례법회와 함께 봉행했던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서식은 연기하고 이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봉행키로 했다.

대법원 판결에 선암사 소유권 논란 재점화

'선암사 차체험관 철거 소송'서
대법원, 상고심 파기 환송 결정
조계종, 1월 13일 불복 입장문내
등기권자 · 점유자간 소유권 쟁점


순천 선암사 전경. 사진제공=문화재청

최근 대법원이 순천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에서 조계종 소유를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한 가운데, 조계종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1월 13일 '선암사 차체험관 철거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가법에 의해 조계종에 귀속된 선암사만이 진실한 실체이며 다른 법적 실체가 존재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조계종 선암사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부정하고 오히려 1970년 창종한 태고종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선암사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권한없이 선암사를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태고종 승려들에 의한 착시적 현상에 집착해 사찰령 및 불교재산관리법의 규정과 의미, 내용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표피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사찰은 역사적으로 국가제도로 직접 통할하거나 국가에서 위임한 단체에 의해 관리돼 왔고 일제강점기는 물론 현재에도 나라의 공적 자산으로 계승돼 왔다"며 "사찰령이 폐지되고 불교재산관리법으로 대체한 이래 오로지 국가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 심사를 거쳐 등록한 단체에 귀속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은 "일제강점기를 거친 한국불교계는 해방 이후 독신 비구승들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불교 전통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정화운동을 벌인 결과 정부로부터 현재의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오롯이 계승한 유일무이한 종단임을 인정받게 된 것"이라며 "선암사는 이러한 국가법(불교재산관리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에 합법적으로 귀속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암사의 경우 1970년 문공부가 선암사 재산관리인으로 승주군수(현 순천시장)을 임명한 이후 재산관리인을 해임한 2011년까지 41년 동안 조계종의 지속적인 재산관리인 해임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태고종이 선암사에 거주하며 조계종 선암사의 운영과 관리에 저항해 왔기 때문에 권한 행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순천시의 '차 체험관 건립 공사'의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다. "순천시가 선암사 경내지에 건립한 차 체험관은 그 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건립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천시는 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경내지에 '차 체험관'을 건립하면서 등기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통사찰보존법 상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또한 받지 않음으로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게 조계종의 주장이다.

이어 조계종은 광주지방법원에 대해 "조계종은 한국불교 전통을 보존하면서 정체성을 지켜온 유일한 계승자인 조계종의 합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정받아왔던 조계종 선암사의 정체성을 올곧이 이어 한국불교의 정통성이 상실되지 않고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광주시, 나눔의집 임시이사 파견 추진 '논란'

1월 6일 이사 8명 추천 의뢰
'혐의없음'수사종결에도 강행
나눔의집, "부당처문 법대응"

경기도 광주시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이 나눔의집 이사들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음에도, 경기도와 광주시가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교체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1월 6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나눔의집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인사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가 해임을 명령한 이사 5명과 지난해 10월 무효처분이 내려진 사외이사 3명이다. 광주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임처분 2개월 이내인 2월 17일까지 임시이사를 선임해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광주시의 이 같은 행정처분은 해당 이사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와 대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법인 이사 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송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광주시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나눔의집 측은 "경기도 해임명령은 부당한 처분으로, 광주시의 임시이사 파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태정 법률대리인은 "이미 광주시과 경기도청의 지적사항을 수용해 개선했고, 이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역시 혐의없음으로 나온 상황에서 해임명령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해임명령과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원행 스님, 유골반환문제 관심 당부

1월 14일 강창일 주일대사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강창일 주일대사에게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가 추진하는 유골반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1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강창일 주일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와 유골반환 문제를 위한 협의에 특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창일 주일대사는 "유골반환은 어느 일부 지역이 아닌 전 일본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풀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본 내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유골봉환문제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회당학원 신임 이사장에 상명 정사

1월 13일 이사회서 선출



진각종 회당학원 제27대 이사장에 상명 정사<사진>가 선출됐다.

학교법인 회당학원은 1월 13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4층 회의실에서 제48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27대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에 대구 선륜심인당 주교인 상명 정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2023년 1월 21일까지다.

상명 정사는 진기 52(1998)년 울릉도 총지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정정 · 능인 · 안산 · 방등 · 지륜심인당 주교와 부산교구 종무국장, 통리원 기획국장, 진각복지재단 임원, 통리원 사회부장, 비로자나청소년협회장, 밀교신문 편집인, 제12, 13대 종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제15대 종의회 의원이다.

한편 이사회는 한상권 심인고등학교 교감을 교장 자격(인정)연수 대상자로 추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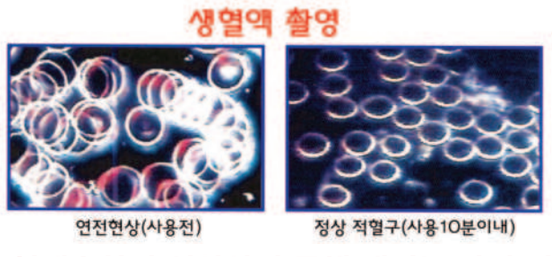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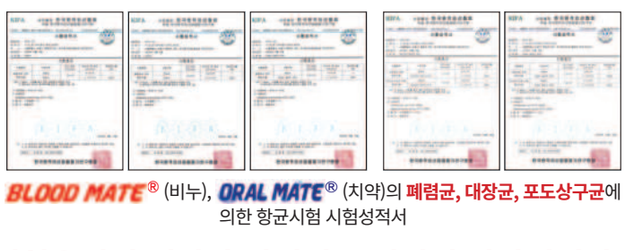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가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4개 = 6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9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보물’ 마애불 옆 채석단지 재추진 불교계 ‘공분’

삼표산업 7년만에 다시추진
반발 우려해 산림청에 신청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중
평가協 심의는 “제고” 의견
조계종 · 봉선사 반대 거세
“불교계 역량 모아 막을 것”

신성민 · 송지희 기자

㈜삼표산업이 지난 2013년 추진하다가 부결된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보물 제93호) 인근 채석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과 지역불교계는 “마애이불입상 인근 채석사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 파주시 등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파주 광탄면 분수리, 용미리 일원 임야 60만4738㎡를 추가로 채석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삼표산업이 추진하려는 채석장 인근에 보물로 지정된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이 있다는 점이다. 삼표산업이 파주시를 통해 공람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회사 측이 추가로 지정하려는 채석장 예상 구획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과의 이격 거리는 260m로 영향 예상 이격 거리 500m보다도 가깝다.

발파 등을 통해 산을 깎아 돌을 캐는 채석장이 용미리 마애이불석불입상 인근에 들어설 경우 해당 문화재가 받는 피해는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삼표산업은 지난 2013년 10월 마애이불입상으로부터 322m 떨어진 광탄면 분수리 208-14번지 일원 8필지를 채석단지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2015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해당 문화재의 안전성을 고려해 ‘부결’ 결정을 내려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지반사면이 경사져 있고, 지난 2014년 문화재특별점검 결과 보수 정비를 요하는 ‘E등급’을 받은 상황이므로 불상 자체에 대한 구조 안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마애불과 신청부지는 하나의 암질로 이어진 위치로 작은 진동에도 도괴 등의 위험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파주시 역시 “경미한 발파 영향에도 훼손될 수 밖에 없는 마애이불입상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재 영향 평가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어 불허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이 추진중인 채석장 부지 인근에 위치한 용미리 마애이불입상(보물 제93호).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서 인지 삼표산업은 이번 채석단지 지정을 산림청을 통해 신청했다. 30만㎡ 이상의 채석단지 지정 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림청 소관임을 활용한 것이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파주시는 인허가 권한 없이 사후 관리만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인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은 “산림청은 산림 개발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기업이 부서 간 행정 이행 차이를 인식하고 산림청을 통해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인근에 다시 채석단지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지역을 채석을 위해 발파할 경우 산허리가 잘려나가 수 천년에 걸쳐 형성돼 온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환경이 전부 파괴된다.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인근 채석단지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현재 삼표산업의 채석단지 지정 재추진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부서들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표산업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에서 해당 사업을 ‘제고’할 것을 총괄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어서다.

지난 2019년 9월 파주시에 공시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는 총괄의견을 통해 “한북정맥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채석단지로서 위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지구 내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사업 진행 시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며 백두대간 생태축도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본 사업은 제고돼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통보서는 마애이불입상이 채석단지 영향지역 내에 위치하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 수립을 하거나 문화재로부터 일정 반경 이상을 원형보존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표산업의 평가서 초안에는 허가 요청 구역을 10만㎡ 가량 축소하고 사면 녹화를 저감 방안으로 내놨을 뿐 뚜렷한 보존대책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조계종과 지역불교계는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고 향후 저지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채석단지 지정을 추진하는 삼표산업 측은 문화재 훼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만약이라도 훼손될 경우 절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우리 선조들의 삶과 서원이 깃들어 있는 민족의 유산이다. 교구본사와 지역불교계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하겠다.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도 삼표산업의 채석단지 지정을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총무원 사회부장 성공 스님은 “석불입상과 채석예정 부지 간 이격 거리가 문화재보호법상 허용 기준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채석 발파로 인한 진동의 여파는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면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이를 토대로 훼손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부장 오심 스님(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은 “조기에 사업을 저지할 수 있도록 종단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문화재청에도 해당 사업이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보존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석단지 재추진에 대한 삼표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못했다.

포스트 코로나 ‘장기기증’ 언택트 새바람 분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새해 SNS기증 등 활성화 방침

코로나로 대면기증 50% 넘게 감소
캠페인 별 목표달성 42.6% 불과해
SNS 및 유튜브채널 통한 홍보진행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2021년 새해 SNS 기증과 릴레이기부 캠페인 등으로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장기기증 급감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장기기증 문화에도 언택트 바람이 불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월 11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를 적극 진행하여 비대면 방식의 장기 및 조혈모세포 기증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의 이 같은 방침은 코로나로 대면 기증 방식이 타격을 받은 데 기인한 것이다. 2020년 생명나눔 사업실적을 보면 장기기증 희망등록 2130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1478명에 불과했다. 장기기증만 본다면 당초 목표치인 5000명에 비해 약 42.6%에 불과한 수치다.

이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장기기증 캠페인이 지난해 1월부터 출입통제되며 무산됐고, 대학 봉사단 · 동아리와 협력해 진행되는 대학가 캠페인과 면허시험장 내 장기기증 캠페인 등이 영향받은 데 기인한 것이다.

캠페인 내 온라인 방식으로도 진행됐던 조혈모 세포의 경우 대학내 온라인 홍보와 기관 협약을 통해 진행됐고, 사후관리 다이어리 발송 등을 통해 2437명 목표에 약 60.7%를 달성했다.

‘생명더하기 행복나누기’ 온라인 캠페인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생명나눔은 먼저 온라인 홍보를 진행한다. ‘생명더하기, 행복나누기’를 캐치프레이즈로 온라인 장기기증 3000명 모집에 나선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국가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대면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홍보가 진행돼야 함을 절감했다”며 “유튜브 채널 개설과 인스타그램 챌린지 캠페인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한 대중 접촉을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3개 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살예방 생명존중 연극도 현장에서 못하는 만큼 학교 방송반 등을 통해 녹화 송출할 예정이다.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의 경우 오프라인 캠페인이 불가능한 관계로 기업과 협업을 통한 모집이 보다 확대된다. 한마음혈액원과 협업을 통해 헌혈카페 내 조혈모세포 안내부스가 설치되고 헌혈대상자에게 홍보가 진행된다. 동양생명, 예금보험공사 등 2020년에 참여한 기업과 함께 기업 차원의 동참 활성화와 기존 5만여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를 대상으로 발송되는 다이어리 제공도 꾸준히 진행된다.

일면 스님은 “그 소중한 마음을 어렵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여 더욱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대법 “결혼 군종장교 자격박탈 적법”

구랍 30일 해군장교 상고심서
파송 종단 현재 조계종인 점과
종단 제적 및 군당국 판단 존중

조계종이 파송한 군종장교로 임관 후 ‘혼인 금지 규정’을 위반해 결혼, 태고종으로 승적을 옮긴 군종장교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고등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구랍 30일 해군 군종장교 출신 김모 씨가 제기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1998년 3월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고, 2005년 7월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한 김모 씨는 임관 후 2014년 결혼했고 조계종이 2015년 3월 종헌 위반으로 승적제적처분을 예고하자 4일 뒤 태고종으로 승적을 옮겼다. 조계종은 이해 3월 승적 제적 처분을 했다.

파송 종단으로부터 승적이 박탈된 상태에서 해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는 2017년 4월 조계종 승적 박탈로 인해 군종장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역복무 부적합 의결을 했고, 같은 해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역 처분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지와 부적합 사유인 군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군인사법은 징계제도와는 규정 취지와 사유 등에 차이가 있고, 관계기관에 폭 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으므로, 군 특수성이 비춰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한 군당국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은 “군종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에서 통합, 장로, 감리, 침례 등 10여개 교단이 편입한 기독교와 달리 불교는 조계종만 편입돼 있으며 소속 단체서 자격 인정한 사람이 군종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광사 명상상담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명상상담대학으로, 대승의 보살정신을 기초하여 기본, 심화, 전문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자기소외 등을 명상과 심리 상담 치유와 올바른 자아성찰을 통해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2020년 12월 ~ 2021년 2월까지 신입생 모집기간
대광사 종무소 접수 및 전화신청 후 입학원서 제출

■ 학 제 : 3년 6학기 과정 / 주야, 화·수·목
■ 교과배정 비율 : 이론70%, 실기30%
- 불교교리 30%, - 심리상담 40%, - 명상 30%
■ 교과과정 : 교과과정은 붓다의 깨달음을 천태법화의 수행관으로 편성한 공空, 가假, 중中 세단계를 점차로 닦아 삼제원융(三諦圓融)을 완성하는 단계로 구성한다.
■ 수 강 료 : 1학기당 17만원 / 기업 031 715 7000 / 사단법인행복명상
■ 수료후특전 : 명상상담 지도자 1, 2급 자격증 부여
심화과정(2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2급 자격증 부여
전문과정(1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1급 자격증 부여
■ 교 통 : 분당선, 신분당선 / 정자역, 미금역 3번출구 마을버스 1번, 2번,19번 / 오리역 7번출구 마을버스 19번

과 정	강의시간	교과목		자 격	전형요강
空 기본 (1년)	【화요일】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불교개론(연기, 공) • 명상과 상담의 이론과 실제	1)자격심사 없음 (연령,학력,종교 불문) 2)명상과 심리 상담을 배우고자 하는 자	1차 : 서류전형 • 입학원서 • 사진2매 (반명함) 2차 : 면 접 대광사 종무실 접수
		2학기	• 명상(이론, 실기병행) • 사념처관법		
假 심화 (1년)	【수요일】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 대승 반야사상	1)명상과 상담 1학년을 수료한 자 2)1학년이상의 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을 취득한 자	
		2학기	• 성격심리학 • 유식과 명상		
中 전문 (1년)	【목요일】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천태소지관 • 상담응용	1)명상과 상담 2학년을 수료한 자 2)정규 명상과상담 2년 과정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2학기	• 자비명상		
요 가	【화요일】 오전 10:30 ~ 11:50	• 테라피 재활 요가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접 수

대광사 명상상담대학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30 Tel. 031)715-3000, Fax 031)715-3409 홈페이지 http:// www.daegwangsa.org



코로나 시대, 랜선·TV 성도재일 '대세'

사찰 온라인법회, 방송사 특집 프로 선보여

조계사·봉은사 유튜브 중계
스님들만 대웅전에서 기도해
전국사찰 기도중단한곳 다수
BBS·BTN 특집 편성 '확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4대 명절 중 하나인 성도재일을 맞아 온라인에서 기도가 진행된다. 대규모 철야정진 및 법회가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성도재일 기도를 진행하기 위한 방편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월 13일 카카오채널 등을 통해 신도들에게 이번 성도재일 철야용맹정진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고 기도에 온라인으로 동참해 달라고 공지했다.

조계사의 경우 매년 성도재일을 맞아 1주일 기도부터 철야용맹정진 기도 등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매서운 상황에서 조계사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활용키로 했다.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석가모니불 정근기도는 정진하는 스님들만 대웅전에 출입하되, 유튜브 채팅창에 서원을 남기면 스님들이 참조하여 함께 기도한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도 코로나19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자 스님들만 철야정진을 진행하고 봉은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하기로 했다.

봉은사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스님들만 진행하도록 했으며, 지난해부터 활용해온 유튜브를 통해 기도를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BS불교방송 성도재일특집 안내와(사진 왼쪽)와 조계사 유튜브 용맹정진 안내 배너.

이밖에 범어사, 통도사 등 성도재일 특별정진을 진행하던 교구본사와 말사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법회를 취소하고 개인적인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불자들이 사찰로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계 방송사들은 성도재일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BBS불교방송의 경우 성도재일 특집을 편성해 당일인 1월 20일 △선연사 종범 스님의 초청법회(오전 6시, 오후 4시 30분)를 시작으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부처님 행적답사기(오후 7시 30분), △광우 스님의 부처님 성도이야기(오전 11시 30분, 오후 10시 30분), 존카밧진을 만나다(오후 12시 30분) 등을 TV에서 방영한다. 라디오에서는 △무명을 밝히고 특집 '붓다의 질문'(오후 5시), △지금은 수행시대(오전 11시) 등도 편성했다.

특히 '무명을 밝히고' 붓다의 질문은 상도동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과 불교인재원 박희승 교수가 '생로병사'와 생사해탈의 의미와 우리 시대 고통 해결의 단초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BTN불교TV는 1월 20일 조계종 부산연합회의 찾아가는 승보공양대법회(오전 11시 30분, 오후 8시) △성도재일 특집 '지금 바로여기'(오후 2시) △특집다큐 '깨달음의 상징, 의발'(오후 11시 20분) △축서사 무여 대종사 초청법회(오후 1시) 등을 선보인다.

BTN측은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심을 다지고 정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앱과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앱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도 함께 다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국제포교 활성화 신호탄"

이재홍 국제포교사회장 취임
1월 9일 언택트 취임식 봉행
전국포교사 네트워크화 제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이재홍·사진)가 1월 9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열린 국제포교사회 정기총회서 비대면 방식으로 신축년 신년법회와 11·12대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임원들만 참석했으며, 전국의 회원들은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했다.

이재홍 신임회장은 이날 제도 정비와 회원 포교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중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제포교사회는 지난 20년간 축적해온 좋은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3가지 중점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먼저 교육과 법회, 행사의 질적·양적 수준 향상을 위해 비대면 운용방법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이취임식과 같이 국제포교사들이 수시로 모일 수 있는 온라인상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포교역량 강화를 통한 참여와 봉사기회 확대도 필요함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비대면 화상회의 운용방법 강습을 통해 누구에게든 온라인으로 포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부터 시작된 국제포교사의 해외파견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해외포교 전통을 발전시킨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 회장은 "'문경세계명상마을' 등 국내에서의 외국인 대상 포교에 회원들의 참여를 늘리고 나아가 국제포교사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위상을 강화시킬 방안을 종단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자다. 1987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다.

이 회장은 불광불교대학·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2009년 국제포교사 14기생으로 국제포교사 활동을 시작했다. 국제포교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제포교사회는 3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제57기 기초불교영어를 온라인강좌를 통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줌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되며 총 10개 강좌로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등 불교기초교리에 대한 수업이 진행된다. 수강료는 일반인 10만원, 학생은 5만원으로 전과정을 이수하면 수강생들에게는 조계종 포교원이 인증하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02)722-2206

노덕현 기자

유네스코 등재 '산사' 7곳 영문 안내책자 발간

종단협, 14번째 한국불교안내서
포교 목적 2000권 비매품 제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산사 7곳에 대한 영문 안내서가 발간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대표회장 원행)는 최근 한국불교 소개를 위한 14번째 외국어 단행본〈SANSA〉를 발간했다.

〈SANSA〉는 지난 2018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세계인의 문화유산이 된 산사 일곱 곳의 사찰답사 안내서다. 영문과 국문을 교차편집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읽을 수 있으며, 일러스트 지도를 수록해 답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원고는 주수완 미술사학자가 집필했으며, 번역은 박희원 통번역가가 맡았다.

특히 〈SANSA〉는 일곱 산사의 역사 및 문화, 불교사상과 신앙적 내용을 총체적으로 담아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와 가치를 조명했을 뿐 아니라 각 사찰 별 대표전각과 문화재를 비롯한 고유한 특징을 100여 점 사진을 함께 담아냄으로써 역사의 흔적들을 되짚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에 따라 한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단협은 해당 책자를 포교목적에 따른 비매품으로 2000권 제작했으며, 소속 종단과 국내외사찰과 주한대사관, 해외 대사관과 도서관 등 전세계로 배포할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강북장애인福, 지역장애인 희망키트 지원

KT그룹 희망나눔재단 후원으로 100가정에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조석영)은 1월 13일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총 100가정에 희망키트(라면 1상자, 마스크, 허브티)를 각각 전달했다.

최근의 최강한파와 코로나19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던 상황에 강북장애인복지관의 지원은 지역사회 장애인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조석영 관장은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KT그룹 희망나눔재단에 감사하다. 우리 복지관은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더 많은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悳 행만 합장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

촉구서

정부당국과 국회와 지자체는 "해인사역" 선정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새해 들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해인사와 조계종단, 합천지역주민과 많은 국민들이 간곡하게 요청해왔던 "해인사역(합천군 야로면 일대)" 설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 '김천 ~ 거제' 구간의 노선 및 역사 선정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공고하고 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평가서 초안에는 합천군을 경유하는 지역에 '해인사역'을 배제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는 그동안 국민적 이용에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해인사가 보유하고 있는 팔만대장경과 가야산 일원의 광활한 산림과 토지, 그리고 수많은 불교성보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더 나아가 가야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서 해인사의 재산권행사와 종교활동을 제약해왔다. 해인사는 그동안 국민이용이라는 공익적 이유 때문에 수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왔다. 그런데 국가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남부내륙철도 노선에서 "해인사역"을 배제함으로서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고 있다. 해인사가 과연 이런 국가의 이중적 행정태도에 따른 피해를 더 이상 감수해야하는가를 판단해야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해인사가 어떤 곳이며, 해인사가 소재한 가야산이 어떤 곳인가?

해인사와 가야산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위시한 수많은 국보와 보물 등 각종 문화재들이 해인사 큰절과 산내암자에 즐비하게 산재하고 있다. 심지어 가야산은 산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승)"와 "가야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까닭으로 '해인사'에 대한 지명도는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까지 쟁쟁하다. 국가세금으로 진행하는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의 합천지역 정거장이 반드시 "해인사역"이어야하는 까닭이다.

합천군은 서울과 경주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이다. 그 이유는 해인사와 가야산 때문이다.

해인사와 가야산은 연간 100만명이 넘는 탐방객과 불교신자들로 늘 붐빈다. 다양한 혜택기준을 적용하여 탐방객의 80%가까이가 무료입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동안 해인사와 가야산은 교통접근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연간 100만 명 정도가 탐방해 왔지만, 만일 수도권과 연계된 철도가 개설되어 "해인사역"이 생긴다면 수도권과 충청, 경북내륙의 수많은 국민들이 해인사와 가야산을 찾을 것은 명약관화할 것이다. 그 혜택은 국민들과 합천군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해인사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서관광철도(대구, 고령, 합천 해인사역, 거창, 함양, 남원, 순창, 담양,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가 개설되면 남북과 동서를 철도로 연결하는 교차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합천의 정거장부지 초안은 개발투자업자들과 이에 동조한 지자체 인사들이 내세운 합천읍내 인근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소신 없는 국토부가 이에 영합한 것이다. 국토부가 세계적인 지명도와 이용도가 높은 해인사의 세계문화유산지역과 가야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무시하여 "해인사역"을 선정하지 않고 지역개발업자의 이해만을 반영한 내용으로 결정한다면 수요저조로 공동화 되어버린 경전선의 "함안역"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해인사역" 부지는 합천군은 물론이고 인접 지자체인 거창군과 고령군까지 두루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해인사역" 부지는 광주대구고속도로 해인사IC 인근지대로서 고령IC에서 5분 거리, 거창IC에서는 15분 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천읍과의 거리도 도로망 설치의 후속조치를 한다면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책사업으로서 국민전체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노선의 정거장은 인접지자체의 교통연계와 이용편익까지 고려하는 광역적 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반해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정거장의 초안 내용은 합천읍을 중심으로 한 국소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협한 안일뿐이다. 합천지역의 정거장은 지역주민들이 외지로 출입하는 편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수도권 등 외지방문객 유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인지도, 교통연계성, 경제성, 발전성을 두루 갖춘 "해인사역"이야말로 남부내륙철도의 합천지역 통과구간의 가장 합리적 정거장인 것이다.

남부내륙철도의 노선에는 두 가지 강력한 방문을 유발하는 벨트가 있다.

첫째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이라는 '세계문화유산과 가야산국립공원벨트'요, 두 번째는 남해안 한려해상공원의 통영, 거제의 '해양관광벨트'이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대구 ~ 부산 구간을 직행하지 않고 경주역을 거쳐 돌아가게 한 것은 불국사와 석굴암 등 경주의 문화유산을 고려한 것이다. "해인사역"은 남부내륙철도의 '김천 ~ 거제 노선'의 직선코스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예산증가요인도 없는데 이 지역을 그냥 지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국토부가 만일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을 초안 그대로 기만적으로 강행한다면 그 책임을 온전히 국토부가 져야 할 것이다. 해인사 또한 국민적 이용 때문에 해인사의 많은 유물과 산림, 토지를 국가문화재, 세계문화유산, 국립공원으로 무상 제공하면서 각종규제를 당하는 현실을 거부하고 각종지정에 대한 해제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해인사역 설치를 강력 지지하는 합천의 지역주민, 거창군, 고령군, 그리고 국민들의 의지를 묶어 **정부당국과 국회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다 음 -

1. **청와대 소관수석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노선과 정거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2. **국토부와 기재부는 용역회사의 연구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해인사역" 선정을 신속히 추진하라!**
3. **환경부와 문화재청도 세계문화유산과 가야산국립공원에 대한 원활한 국민적 이용을 위해 "해인사역" 유치에 적극 나서라!**
4. **경남도와 합천군도 소극적 행정, 국소적 정책을 벗어나 국민전체의 향유를 위해 "해인사역" 선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라!**

불기2565(2021)년 1월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합천) 설치를 촉구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중앙종회의장 정문　　호계원장 무상

교 육 원 장 진우　　포교원장 지홍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조계사 주지 지현, 용주사 주지 성법, 신흥사 주지 지혜, 월정사 주지 정념, 법주사 주지 정도, 마곡사 주지 원경, 수덕사 주지 정묵, 직지사 주지 법보, 동화사 주지 능종, 은해사 주지 돈관, 불국사 주지 종우, 쌍계사 주지 덕운, 범어사 주지 경선, 통도사 주지 현문, 고운사 주지 등운, 금산사 주지 일원, 백양사 주지 무공, 화엄사 주지 덕문, 송광사 주지 자공, 대흥사 주지 법상, 관음사 주지 허운, 선운사 주지 경우, 봉선사 주지 초격,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 봉은사 주지 원명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주지 현응

해인사교구종회 (사암연합회 : 합천군, 산청군,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거창군, 함양군, 함안군, 의령군,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해인사역주민추진위원회

통도사 화엄산림 비대면 회향 법석

1월 12일 통도사 설법전서

유래 없는 비대면 온라인 법회
모두를 위한 배려 정신 돋보여
온라인 통해 불자들 참여 높아
"이것이 사회 기여하는 보살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는 1월 12일 경내 설법전에서 '불기 2565년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가 회향됐다. 비대면으로는 처음 진행 된 화엄법회였다. 설법전에는 영가 위패만 벽을 가득 채웠고 사중 스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문은 설해졌다. 현장에 참석 못하는 대중들은 아쉬워했지만 방장 성파 스님은 이것이 "모두를 위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1월 12일 경내 설법전에서 '불기 2564년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방장 성파 스님은 "오늘 회향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동안 관계자 및 스님들의 노고를 치하한 인사말이다. 화엄산림법회가 시작된 이래 처음 맞는 비대면 법회는 수많은 준비와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했다. 새로운 영상 시스템과 마이크를 구축해야 했고 찾아오는 대중들이 거리를 지키도록 스님들은 당부하며 보호해야 했다. 법회는 유튜브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와 네이버밴드 화엄의 숲에서 라이브로 실시간 방송됐다. 법문 후에는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법회 영상을 제공했고 누구나 시청하며 화엄의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텅 빈 법당 위에 법문은 설해졌지만 중중무진(重重無盡) 화엄의 세계는 온라인 전파를 통해 전국 곳곳으로 펼쳐졌다.

회향 법회 라이브 방송에서 불자들은 댓글을 통해 감사 인사를 올렸다.

유튜브를 찾은 권혜경 불자는 댓글을 통해 "적멸보궁 통도사의 그윽한 향기가 먼 곳 까지 전해온다"고 했고 밴드를 찾은 은희옥 불자는 "동참 할 수는 없었지만 화엄산림 법회가 원만히 회향하게 됨을 감사드린다. 좋은 법문을 들려주신 스님들께 합장한다"고 전했다. 법회 가운데 법문을 댓글에 따라 적는 불자들도 있었고 라이브 법회를 큰 화면으로 보기 위해 TV 까지 장만하는 불자도 있을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

불자들은 법회 후 설법전에 들어 올수 있었다. 위패가 있는 영단에 지의(紙衣)와 공양물을 올리고 조상 및 인연 영가를 위해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방장 성파 스님은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했다. 아주 훌륭하다"며 "혹한기 한겨울의 고난 속에 선비의 지조를 알 수 있듯이 지금처럼 힘들 때 지혜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의지를 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스님은 "장장 한달 간의 큰 불사였다. 그 가운데 한사람의 확진자도 없었다.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서로를 위한 배려 정신으로 대중들은 앞으로도 살아 갈 것이고 이 정신으로 사회에 기여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유래 없던 코로나 사태로 법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한 이 시간이 안타깝고 법당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대중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어서 코로나 19가 사라지고 다같이 모여 법회가 성만히 회향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도사 화엄산림회향 법회는 위패단 관욕의식으로 시작해 사시불공, 회향법어, 회향 시식, 제령위패 봉송의식으로 마무리 됐다. 모든 영가를 대표하는 제령위패 만 우선 봉송 의식이 진행됐으며 불자들의 개별위패 참배는 설법전에서 1월 15일 까지 가능하다.

한편, 통도사와 불교신문이 공동주최한 '화엄산림 대법회 신행수기' 공모 수상자도 발표됐다. 영축총림 상은 강헌정 불자가 금강계단상은 최효분 불자로 선정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UCC 공모전' 은 영축총림상 이승현 학생, 금강계단상 조응균, 정수연 학생이 각각 받았다. '신행수기' 영축총림상은 300만원, 금강계단상은 2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되며 'UCC 공모전' 의 영축총림상은 100만원, 금강계단상은 각 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이외 '신행수기' 부문에 화엄등묘각상을 비롯한 22명의 수상자와 'UCC' 부문의 적멸보궁상 등 4명도 선정됐다. 수상자는 신행수기 24명, UCC 7명 등 총 31명이다. 시상 일정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추후 논의 후 진행 된다.

세상 맑히는 청량제 같은 시어(詩語)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 네번째 시집 발간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이 네 번째 시집<문 없는 문을 열고>를 발간했다.

시를 짓는 것을 수행과 포교의 도구로 삼아온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이 네 번째 시집〈문 없는 문을 열고〉를 발간했다.

덕진 스님은 시집 〈문 없는 문을 열고〉에서 자연과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심상을 아름다운 시어에 담아 전달하고 있다.

시집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제목은 '자연 향기' 이다. 낮달, 산딸기, 꽃 무릇 등 일상 속에서 만나는 소소한 자연의 목소리를 대신 하듯 시로 묶었다.

2부는 '비워야 채운다' 는 제목으로 소개됐다. 스님이 일상의 사유 속에 얻은 지혜를 담담한 언어로 해석했다.

3부 '인연따라' 는 스님이 만나는 사찰, 지역, 인연들의 의미를 강조하고 중요한 의미를 시로 풀어 설명했다.

4부는 '언제나 기쁨' 이다. 스님의 시를 동요와 찬불가로 제작해 소개해두었다.

마지막 5부는 '무문방(無門房)' 이다. 무문방은 스님의 치열한 수행 과정과 결과를 담아두었다. 덕진 스님은 1992년 문학세계를 통해 등단한 이후 꾸준한 시작(詩作)으로 〈연꽃처럼 햇살처럼〉, 〈맑은 마음 고운 세상〉, 〈바다처럼 (울산이야기)〉 등 시집을 발간해 왔다.

이번 〈문 없는 문을 열고〉는 6년 만에 선보인 시집이다. 스님은 현재 정토사를 창건하고 정토불교대학 학장, 사단법인 동련이사, 울산지방경찰청 경승실장, 행복한평생교육원 원장 등으로 포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덕진 스님은 "시(詩)가 포교 방편이자 수행"이라 설명했다.

스님은 "고통 번뇌의 약이 되고 방황자의 길이 되고 외로운 자의 벗이 되고 세상 맑히는 청량제가 되려고 힘쓴다. 내 시도 그렇게 되라고 작은 희망 가져본다"고 발원했다.

시집 〈문 없는 문을 열고〉는 문학서적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도서출판 천우에서 발행했으며 신국판 크기 165쪽으로 총 82편의 작품이 수록 돼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 보물지정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固城 玉泉寺 靈山會 掛佛圖 및 函)' 과 함양 등구사 '미륵원명 청동북' 이 보물로 지정됐다.

등구사 미륵원명 청동북 등
1월 7일 문화재청 지정 고시
18명 화승 참여 제작도 의미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固城 玉泉寺 靈山會 掛佛圖 및 函)' 과 함양 등구사 '미륵원명 청동북' 이 보물로 지정됐다.

경남도는 1월 7일 문화재청이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 은 보물 제2110호로 지정됐으며, 1808년(순조 8년) 수화승 평삼을 비롯한 18명의 화승이 참여해 제작했다. 20개의 화폭을 붙여 높이 10m의 크기로 만든 대형불화이며 도상(圖像)은 석가여래 삼존과 아난존자와 가섭존자, 6존의 부처를 배치한 간결한 구성이다. 화기(畵記)에 '대영산회(大靈山會)' 라는 화제가 있어 영산회 장면을 그린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전반적 화풍은 18세기 전통을 계승하고 색감이나, 비례, 인물의 표현, 선묘 등은 19세기 전반기로 과도기적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므로 불교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괘불함은 옻칠로 마감하고 다양한 모양의 장석과 철물로 장식됐다.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어 기술 측면에서도 우수성이 뛰어나고 공예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함양 등구사 '미륵원명 청동북' 은 보물 제2109호로 지정됐다. '미륵원명 청동북' 은 비교적 큰 크기와 뛰어난 조형성, 우수한 주조기법 등을 가지고 있는 고려시대 작품 이다.

1190년(고려 명종 20년) 공주 미륵원에 걸기 위해 제작됐으며, 새겨진 명문을 통해 제작시기와 사용처, 무게는 물론 '미륵원' 의 위치가 공주 차현(차령) 인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을 땜을 통해 보수하는 등 고려시대 청동북의 제작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남포교사단, 조직 구성에 나선다

포교 위한 비대면 신년법회 봉행


경남포교사단은 1월 9일 쌍계총림 쌍계사에서 '불기 2565년 신축년 신년법회' 를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이하 경남포교사단)이 신년을 맞아 신년법회를 봉행하고 포교 의지를 굳게 세웠다.

경남포교사단(단장 박해덕)은 1월 9일 쌍계총림 쌍계사에서 '불기 2565년 신축년 신년법회' 를 봉행했다.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신년법회는 비대면으로 봉행됐으며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과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다. 온라인 방송에는 경남 지역 포교사단 100여명이 동참해 함께 법회를 봉행하고 포교를 향한 의지를 다짐했다.

법회에서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경남지역 포교사로 활동하며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해덕 단장은 "지난 한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다"며 "무엇보다 포교사단 단원들께 감사하며 조직을 개편해 안정화하고 사무실을 열어 수행과 정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신년을 맞아 더욱 열심히 활동하는 포교사단이 되도록 정진하자"고 말했다.

한편, 경남 포교사단은 구랍 30일 창원 성주사 도심포교당 마하연에서 우수 장학생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인재불사에 앞장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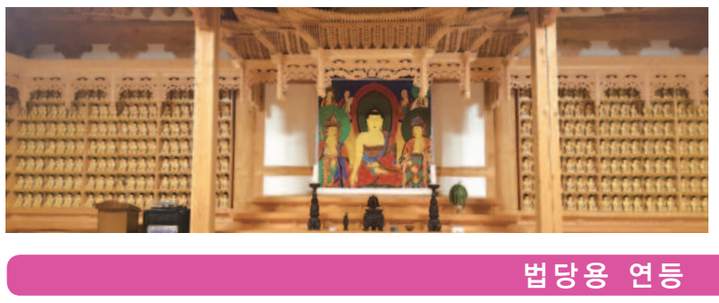
장학금은 경남 포교사단이 매달 모금한 무소유실천운동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장학금 외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2명에게도 지원금을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인재 불사 나눔"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 천곡중학교 MOU 체결

성낙두 경남지사장 snakdu@hanmail.net



한마음선원울산지원은 1월 13일 울산지원 대법당에서 천곡중학교와 협약식을 개최했다.

매년 300만원 장학금 후원
총11명 모범학생에게 전달
울산 북구 학생 위해 20년
청소년 위한 버팀목 될 것

협약식은 상생의 목적과 협력을 위해 일반적으로 체결된다. 하지만 오로지 베풀기 위한 협약식이 개최됐다. 미래 인재를 위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은 1월 13일 울산지원 대법당에서 천곡중학교와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을 통해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매년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

협약식에는 울산지원 지원장 혜안 스님, 김영순 천곡중학교 학교장 및 문윤근 교감, 천주현 울산지원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김영순 학교장과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의 오래 된 인연으로 맺게 됐다. 지난해 3월 천곡중학교로 발령 받은 김 교장은 30여 년 전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 수행했다. 발령 후 지원장 혜안 스님에게 전화하며 인사를 하던 중 장학금이 언급됐고 협약이 맺어졌다.

천곡중학교 장학금 선정위원회는 3학년 8명, 2학년 2명, 1학년 1명 등 총 1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생 선정은 성품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추천받아 전달한다.

혜안 스님은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내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나도 잘 될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도 잘 극복해 이겨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순 교장은 "요즘 청소년들은 무분별한 정보로 가치관의 혼동이 많고 방황을 한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런 시기에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의 관심과 지원은 정말 큰 힘이 된다. 천곡중학교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는 데 버팀목이 될 것이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인재불사를 위한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의 인재불사 후원은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시작됐다. 20년 전 소아암환자를 위한 합창제가 진행됐다. 당시 대행선사는 울산 북구 지역 학생들을 위한 후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울산지원은 20년 동안 실천해 오늘에 이르렀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울산시 북구 지역의 중 · 고 · 대학생들을 위해 북구청 장학진흥재단에 매년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매년 동지 팥죽을 판매해 모은 기금은 호계고등학교와 매곡 고등학교 등에 지원됐다. 특히 호계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한 명은 서울대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4년 동안 후원 받은 바도 있다.

혜안 스님은 "인재 불사를 진행하며 오늘처럼 협약식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며 "외부 학교 학생들 뿐 아니라 선원 학생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도 꾸준히 이어 갈 것이다. 미래 인재 불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불사이다.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화합 소통 종단으로 발돋움을…

한국불교태고종 1월 8일 선암사서 신년 하례법회


신년하례법회 후 주요종단 소임자들이 종정 스님을 모시고 종단 발전을 서원하고 있다.


신년하례법회 모습.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이 신축년 새해에는 선암사가 종단의 중심이 되자는 새 출발을 다짐했다.

지난 8일 순천 선암사(주지 시각) 대웅전에서 열린 '신축년 한국불교태고종 종정예하 배알 신년하례식' 에서 종정 지허 스님은 법어를 통해 "금년은 대단히 중요하다. 선대 조사스님들의 갖은 노력과 지혜의 결과로 선암사가 종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태고종은 그동안 창종 이래 모진 어려움으로 한 번도 제 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새로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무원 소임자의 노력으로 이제 바른 발걸음을 내기 시작했다"고 치하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종단과 선암사가 일치되어 거대한 발걸음을 옮겨야 하고, 금년이 큰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신년하례법회는 종정 지허 스님, 총무원장 호명 스님,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을 비롯해 종단의 중요 소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세알삼배, 선조사 스님에 대한 묵념, 상축, 종정예하 신년하례, 상호하례, 법어, 대종사법계 품서식, 신년사, 축사, 발원문이 이어졌다.

법어에 이어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태고종단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범적인 방역과 확산방지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호명 스님은 신년 종단 운영방침에 대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종단으로 운영을 하겠다. 총무원 소임자들과 함께 더욱 낮고 밝은 웃음과 마음으로, 친절하고 열린 종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각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선암사 수호를 위해 소처럼 뚜벅뚜벅 일해 나가겠다"고 밝히며,"이를 성취하기 위해 선암사 대중과 종도 모두가 앞장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해경 스님, 설운 스님, 남파 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품서식과 제17 · 18 · 19세 태고종 종정을 역임한 혜초 대종사(1932~2020)의 법문집 봉정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어 선암사 부도전에서 혜초 스님 부도탑 제막식이 봉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지성대종사 23주기 추모재

방역지침 준수하며 문도스님과 교역직 스님들만 참석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선운사 주지를 역임하며 선운사 중흥을 이끌었던 태허당 지성 대종사 23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사진〉

1월 12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재는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직계 문도스님들과 교역직 대중스님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봉행됐다,

이날 예정된 포살법회도 코로나 확산방지와 당국의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취소됐다.

태허당 지성 대종사는 1930년에 태어나 19세에 사미계를 받고, 25세에 구족계를 수지한 뒤, 내장사 주지, 선운사 주지와 조계종 5~9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1997년 선운사에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국보 미륵전 애니메이션 공개

소녀 '보리' 통해 마음의 안식처 강조



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주지 일원)가 국보 제62호 미륵전 홍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사진〉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미륵전 홍보영상 '보리의 약속' 은 7분41초짜리 애니메이션 영상이다.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수준이 높고 탄탄한 스토리 전개와 함께 금산사의 역사, 금산사 미륵전의 내력, 미륵부처님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보리의 약속' 은 엄마와 함께 금산사를 찾은 작은 소녀 보리를 통해 각박한 일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걱정과 화내는 마음을 내려놓고 누구나 마음편하게 쉬어갈수 있는 안식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보리의 약속' 의 내용은 거짓말을 하고 개구리를 괴롭히던 보리가 미륵전 벽화속으로 빨려들어가 벌받는 소를 만나고 동자승의 안내로 미륵전을 참배하면서 맑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사라져버린 보리를 찾던 보리엄마는 금산사 노스님으로 부터 "미륵전은 사람들이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자신을 맑게 만드는 곳이다" 며 "미륵전에서 진실된 말과 행동을 배우면 사람들은 점점 맑아질 것이고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미륵부처님' 이라는 설명을 듣게 된다.

미륵전에서 다시 엄마를 만나게 된 보리는 엄마에게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개구리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증심사, 코로나 극복 팥죽 불심 눈길

1월 14일 광주보훈병원에 500그릇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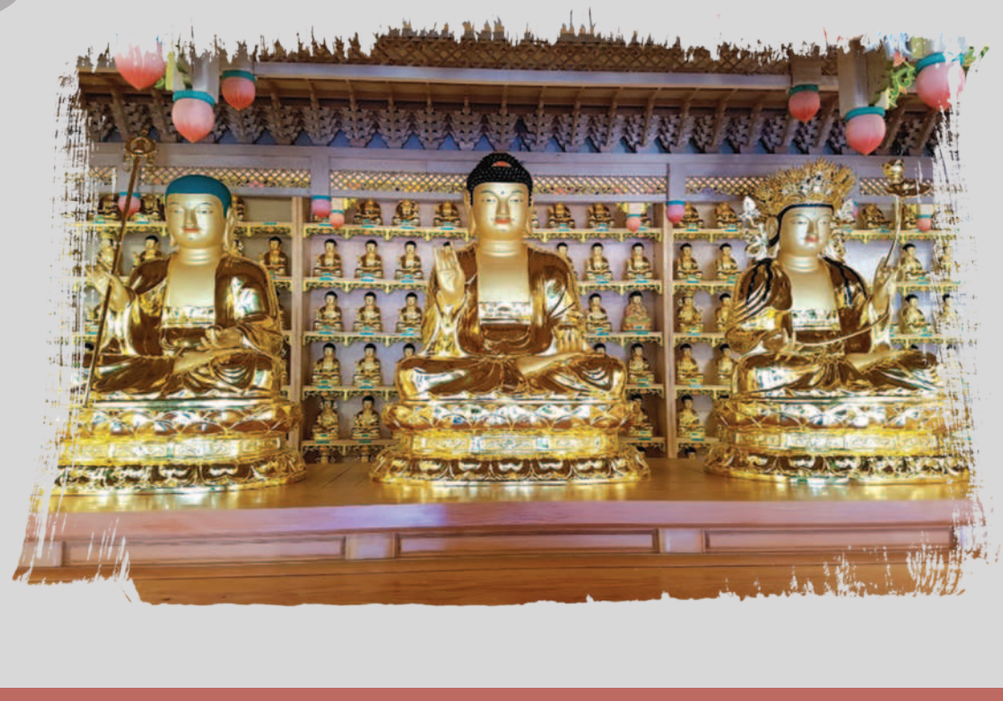


광주 증심사(주지 중현)는 1월 14일 사단법인 자비신행회와 함께 광주보훈병원을 찾아 단팥죽 500그릇을 전달했다. 이번 단팥죽은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는 보훈병원 관계자들과 환자들에게 불자들의 정성을 전하기 위해 이뤄졌다. 증심사는 이번 단팥죽 제작을 위해 사전에 5명의 불자들이 밤과 인절미떡 등을 만들었다.〈사진〉

전달식에는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과 보훈병원 불교실 지도법사 혜오 스님, 김재휴 보훈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불교의 생각법, 비즈니스에 활용

日, 매거진 '에이시스' 불교개념 비즈니스 도입 소개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적 가치관을 비즈니스 교육에 넣은 영상 콘텐츠의 소개. 사진출처=톳판인쇄

불교의 가치관이나 교리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에서 불교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콘텐츠가 등장해 화제다. 1월 6일, 일본의 온라인 비즈니스 매거진 '에이시스'는 일본의 대형 인쇄회사가 제작한 '비즈니스 장면을 살리는 불교의 생각'이란 콘텐츠를 단독 소개했다.

도쿄에 소재한 대형 인쇄회사인 '톳판인쇄'는 2019년, 종교 전문 저널리스트이자 현대사찰운영을 연구하는 '좋은 절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대표이사인 우카이 히데노리 스님과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 톳판인쇄는 연구회와의 제휴를 통해 "불교의 다양한 지식을 현대 사회에 맞는 형태로 정리하고, 비즈니스 현장에 도입하여 차세대 인재개발 시책의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고문을 맡은 우카이 스님은 "연구회 측은 이미 오래부터 불교계와 현대사회의 접점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실제 비즈니스 교양으로써의 불교"에 대한 연구결과를 책으로 출판한바 있다"고 말했다.

톳판인쇄와 연구회는 그간 연구결과의 일환으로 1월부터 '비지니스 장면을 살리는 불교의 생각'이라는 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본 동영상 콘텐츠는 2500년의 역사를 가진 불교의 개념을 비즈니스 현장에 도입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동기와 사업에 필요한 불교윤리를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의미, 기업 가치, 자신의 본연의 자세 등의 개념을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에 혼합하여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인 개인의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기업 윤리와 고객의 측면에서도 불교적인 생각을 도입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왜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주목받는지 소개한 후, 불교에서 말하는 노동과 일하는 의미를 일러줌으로써 개인의 비즈니스 윤리를 교육한다. 이어서 기업의 가치에 대해 불교의 이타심을 설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 1시간 분량의 5챕터로 구성됐다.

이번 콘텐츠는 직장인들을 위한 교육 영상이라는 점에서, 바쁜 업무시간 속의 틈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 챕터의 요점을 짧게 분할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또한 교육내용을 상기하기 위한 퀴즈형식의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등, 즐기면서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톳판인쇄 측은 "본 동영상 콘텐츠는 자사가 2017년에 설치 한 인재 개발 연구소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연구회 측과의 협업과 감수를 통해 불교의 개념을 차세대 인재 개발 시책에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톳판인쇄는 먼저 자사 내부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선행공개 했으며, 현재 일반에 시판에 나섰다. 또한 선행공개를 통해 모인 직원들의 반응과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보완된 후속 콘텐츠 제작의 검토와 불교의 개념을 도입한 동영상 콘텐츠 확충을 목표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둔황석굴 뒤집힌 梵語의 비밀

범어 몰랐던 석굴 건설 인부 실수로 밝혀져



중국 둔황 석굴 속 뒤집힌 범어의 비밀이 밝혀져 화제다. 지난 1월 5일 불교매체 '글로벌부디스트도어'는 중국 둔황 석굴 속 뒤집힌 범어의 비밀을 보도했다.

영국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의 고고학 · 미술사 보존을 위한 영상, 탐사 단체(ISAAC)가 중국 둔황 석굴 연구소, 영국 도서관과 협력해 700여 년 전 조성된 둔황석굴의 비밀 중 하나를 풀어냈다.

원(元)나라 시대에 조성된 465호 석굴에서는 다른 석굴들과 달리 뒤집힌 채 쓰여진 범어 문헌이 불상에 부착되어 있었다. 이번 결과는 사본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사본학이란 고문헌에 관해서 그 서체를 비롯하여 문헌에 사용된 도구와 재료 등에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SSAC 책임자 하이다 량(Haida Liang) 교수는 "뒤집힌 범어는 수년간 큰 논쟁거리였지만 과학 분석을 통해 기존 추정 연대보다 더 정확한 연대를 밝혀냈다. 해당 석굴을 조성할 때, 혹은 복장과 점안식의 일환으로 진언이나 다라니를 종이에 인쇄해 불상이나 벽면에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논란이 된 뒤집어진 범어는 465호 석굴의 불상의 발 밑에서 발견된 것으로 내용은 '연기법송'의 첫구절인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 생긴다(諸法從緣生)'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연기법송은 불복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진언"이라며 현재의 추정에 대한 강력한 근거라고 말했다.

량 교수는 "석굴들의 수와 봉안된 불상들의 수를 생각해 볼 때 일반 인부들이 이를 붙였을 가능성이 높기에, 범어를 모르는 건설인부들이 잘못 된지 모른 채로 부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석굴에 있는 문헌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부착되어 있다." 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비밀을 밝혔다. 또한 뒤집힌 범어는 동시대에 건립된 다른 석굴에서 발견된 문헌들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 국태민안 기원하는 천년의 발원

1월 8일, 교토의 토지(東寺)서 9세기 시작된 기원 법회 봉행


수법을 봉행하기 위해 관정원으로 향하는 법주 죠에스님.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천년 간 이어온 기원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월 8일, 교토의 토지(東寺)에서는 9세기 중반 시작된 기원 법회 '고시치니치 미시호(後七日御修法)'(이하 '미시호')가 봉행됐다. 진언종의 고승들이 모여 장엄하게 입재를 알린 법회의 모습을 '교토신문', '산케이 신문' 등의 주요 언론들이 집중 보도했다.

미시호는 835년 일본 진언종의 개조인 쿠카이(空海)대사가 시작한 법회로, 역사적으로는 궁중에서 밀교의 수법이 봉행되는 진언원(眞言院)에서 진행되어 왔다. 매년 1월 8일부터 7일간 봉행 된다는 점에서 '고시치니치(後七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미시호에는 진언종 18본산의 종정들과 각 본산에서 15인의 고승들이 선발되어 봉행되며 매일 3회, 총 21차례 기도를 올리며 자세한 내용은 비밀에 붙여져 있다. 그러니 주된 내용으로는 국태민안과 그해의 자연재해가 없길 기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천황이 입었던 옷을 궁에서 전달 받아 기도를 올리고 다시 그 옷을 헌상하여 천황이 입음으로써 기도가 회향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대기에 일시적으로 불교가 탄압을 받으며 궁정에서의 불교법회가 폐지, 십여 년 간 일시 중지 되었으나 1883년 토지의 관정원(灌頂院)에서 다시 부활하여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기도를 이끄는 법주는 기도기간 동안 종조 쿠카이가 생전에 사용했던 법구들을 사용하며, 진언종에서는 이 미시호에 선발되는 것을 큰 영예로 생각한다.

올해의 미시호는 진언종 지산(智山)파의 종정인 후세 죠에 스님이 법주를 맡고, 총 130여인의 인원이 동원됐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법회에 참여하는 스님들과 종무원 전원이 PCR검사를 받았으며 입재일 전날까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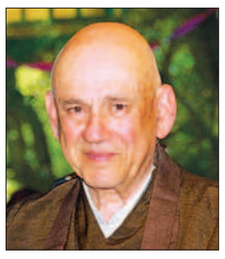
8일 정오, 궁내청 교토 사무소의 칙사로부터 천황의 옷을 전달받은 토지는 곧 미시호를 봉행했다. 금줄이 쳐진 길을 따라 법주인 죠에 스님을 선두로 15인의 스님들이 엄숙하게 관정원으로 향했다. 토지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입재를 위해 걸어가는 고승들을 친견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입재행렬을 보기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한 불자는 "매년 나라의 평안을 위해 큰스님들이 일심으로 기원하시는 모습에 감동했다. 새해에는 꼭 이 기원에 힘입어 코로나 19를 극복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불교 개척자, 와이츠만 스님 입적

세수 91세, 법납 53세. 암 투병 중 입적



미국불교에서 존경받는 원로스님이 입적했다. 지난 1월 11일 온라인 불교매체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미국 선불교의 개척자인 소준 멜 와이츠만(Sojun Mel Weitsman)스님<사진>이 지난 1월 7일 입적했다고 보도했다.

소준 스님이 주석하던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조동종 선 센터는 소준 스님이 오랜 암 투병 끝에 1월 7일 자택에서 세수 91세, 법납 53세로 입적했다고 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엘리자베스 호로위츠와 아들 다니엘이 있다.

192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소준 스님은 젊은 시절 추상화 화가와 교사로 일하였으며, 미국에 불교를 전한 1세대 아시아 스승인 스즈키 슌류 스님을 만나 불교에 귀의했다. 1967년 슌류 스님과 함께 버클리에 선 센터를 개원했으며, 익년 출가하여 슌류스님을 계사로 계를 받았다. 이후 꾸준한 수행정진으로 1984년 일본에서 인가를 받아 선사로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미국인 선사로는 최초의 주지로 버클리 선 센터에 주석했다.

버클리 선 센터(BZC)의 주지인 호잔 앨런 세노크 스님은 스님의 입적에 대해 "소준 스님의 명료하고 꾸준한 지도력으로 버클리 선 센터는 미(美)불자들의 법등이 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소준 스님은 2020년 암 투병에 따른 건강악화로 버클리 선센터의 모든 소임에서 물러나 치료에 집중 했던 것으로 전한다. 스님은 살아생전 30여명 이상의 선객을 인가했고, 200여명 이상의 재가법사들을 양성했다. 스님의 이러한 노력으로 버클리 선 센터는 미국 조동종의 중심지로 미국과 일본 양 불교계의 존경을 받아왔다.

김민재 객원기자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락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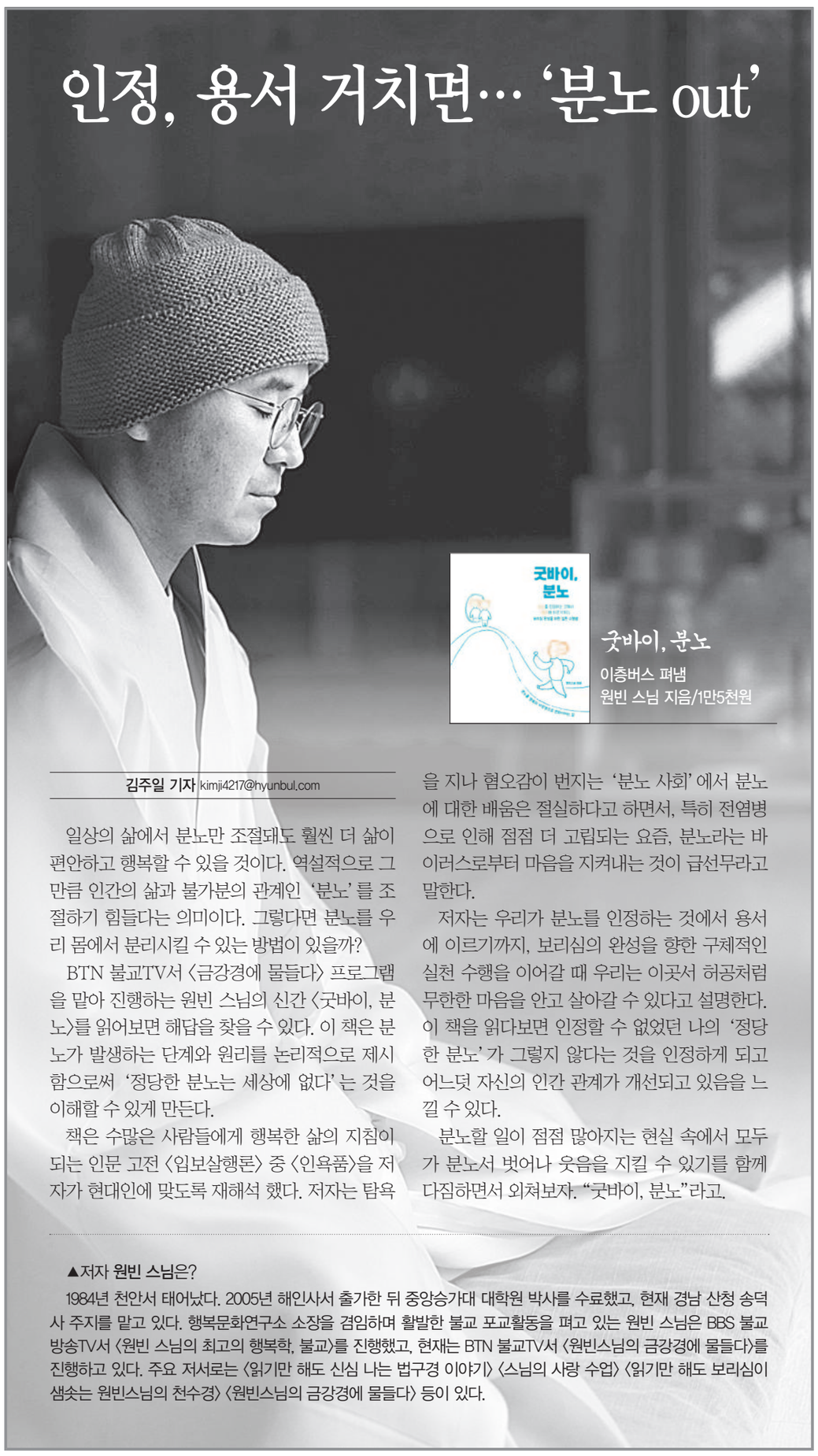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3~1/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굿바이 분노 : 보리심 완성을 위한 실천 수행법	원빈스님	이층버스	6	자비는 인연을 가리지 않네 : 그림 경전 말씀	혜조스님	운주사
2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 내려놓고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법	법륜스님	정토	7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3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8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과 무아	홍창성	운주사
4	요가 디피카(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9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5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10	조용헌의 영지 순례 : 기운과 풍광 인생 순례지를 알려주는 영지 23곳	조용헌	불광출판사

책세상

인정, 용서 거치면… '분노 out'



굿바이, 분노
이층버스 펴냄
원빈 스님 지음/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일상의 삶에서 분노만 조절돼도 훨씬 더 삶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인 '분노'를 조절하기 힘들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분노를 우리 몸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BTN 불교TV서 〈금강경에 물들다〉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는 원빈 스님의 신간 〈굿바이, 분노〉를 읽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분노가 발생하는 단계와 원리를 논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당한 분노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의 지침이 되는 인문 고전 〈입보살행론〉 중 〈인욕품〉을 저자가 현대인에 맞도록 재해석 했다. 저자는 탐욕을 지나 혐오감이 번지는 '분노 사회'에서 분노에 대한 배움은 절실하다고 하면서, 특히 전염병으로 인해 점점 더 고립되는 요즘, 분노라는 바이러스로부터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저자는 우리가 분노를 인정하는 것에서 용서에 이르기까지, 보리심의 완성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 수행을 이어갈 때 우리는 이곳서 허공처럼 무한한 마음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책을 읽다보면 인정할 수 없었던 나의 '정당한 분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어느덧 자신의 인간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분노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현실 속에서 모두가 분노서 벗어나 웃음을 지킬 수 있기를 함께 다짐하면서 외쳐보자. "굿바이, 분노"라고.

▲저자 원빈 스님은?

1984년 천안서 태어났다. 2005년 해인사서 출가한 뒤 중앙승가대 대학원 박사를 수료했고, 현재 경남 산청 송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행복문화연구소 소장을 겸임하며 활발한 불교 포교활동을 펴고 있는 원빈 스님은 BBS 불교방송TV서 〈원빈 스님의 최고의 행복학, 불교〉를 진행했고, 현재는 BTN 불교TV서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읽기만 해도 신심 나는 법구경 이야기〉 〈스님의 사랑 수업〉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등이 있다.

나 녹이는 공부길 미타행자의 삶



미타행자의 수행 한담
본연 스님 지음
담앤북스 펴냄/1만 5천원

청빈하고 올곧은 삶을 사는 본연 스님의 '미타행자 시리즈' 제 3권 〈미타행자의 수행한담〉이 출간되었다. 스님이 홀로 기도하고 텃밭을 가꾸며 손수 공양을 지어 올리는 틈틈이 기록한 수행과 인생에 대한 진솔한 단상으로, 일체중생을 위해 사는 수행자의 삶과 고뇌, 깨달음을 향한 서원 등을 친근하고 따뜻한 문장으로 풀어냈다.

특히 이번 책은 아름다운 제주도 무주선원서 보내는 선농일치의 삶과 토굴 살이의 행복, 수행의 어려움 등 일상의 환희와 정진을 향한 고민 등이 드러나 더욱 친밀하게 다가온다. 재가불자나 수행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당부와 격려도 잊지 않았기에 스님의 문장들은 스승이자 도반이 되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준다.

본연 스님은 선원과 기도처를 찾아다니며 수행하다 여법한 수행도량 하나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주도에 내려와 항파두리 근처에 무주선원을 세웠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법당서 정진하고 마당에서 울력하며 수행자의 일상, 수행법, 어른 스님들의 말씀을 등을 카페에 꾸준히 업로드했고, 이는 여러 불자에게 큰 공감과 교훈을 주었다.

〈미타행자의 수행한담〉은 그런 스님의 글 중에서 근래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모은 한 권이다. 흙먼지 날리는 땅을 홀로 가꿨던 일, 춥기만 했던 겨울을 지나 생명의 감응을 느끼고, 새벽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홀로 정진하되 함께 공덕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지친 마음을 감싸주고 앞을 향할 수 있도록 등을 두드려준다.

책속에는 제주도 무주선원서 흙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과 다겁생에 걸쳐 행해가는 수행자의 노력이 씨실과 날실처럼 엮여 있다. 어려운 경전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옛 스님들의 일화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심지어 축구 선수의 인터뷰까지 주제로 삼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 법문을 담고 있어, 초보자라 하더라도 수행과 정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님의 수행관, 나(我)를 녹이는 공부의 어려움과 보람을 담은 문장들, 재가불자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격려해주는 메시지를 때로는 산문으로, 때로는 압축된 시로 표현하며 다양한 갈래로 감동을 선사한다.

한편 저자 본연 스님은 전남 곡성 태안사로 출가했을 때 평생을 하루같이 용맹정진하다 열반하신 청화 큰스님(1923~2003)께서 스승과 제자 간의 인연을 맺으면서 내려주신 법명이고, 미타행자는 염불 수행하는 사제를 격려하기 위해 사형 스님이 지어준 별호다. 승보종찰 송광사 강원서 4년간 경전 공부하고 비구계를 받은 뒤 기도처와 선원을 오가며 정진하던 중, 큰스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2003년 서귀포 성산 자성원 주지를 자청해 4년간 기도하며 차 밭과 텃밭을 가꾸고 살면서 제주도와 인연이 시작되었다.

자성원 주지 소임을 놓은 뒤 다시 선원과 기도처를 찾아다니며 수행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제주시 항파두리 근처 자그마한 수행도량 무주선원을 열어 수행과 울력으로 극락도량을 일구고 있다. 저서로는 〈미타행자의 편지〉 〈미타행자의 염불수행 이야기〉 〈미타행자의 수행한담〉 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꾸준히 갈고 닦으면 깨달음 올까?



깨달음이 뭐라고
고이데 요코 지음
정현옥 옮김
불광 펴냄/1만6800원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는 '깨달음'의 정의와 방법에 관해서 일본 최고의 여섯 스님이 들려준 솔직하고 거침 없는 깨달음 법문

깨달음은 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이자, 모든 불자의 최대 관심사다. 그런데 깨달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깨달음에 대해 '내 삶과 무관한 것' '아무나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 책은 서른두 살 여성 불교 마니아가 일본 불교를 대표하는 여섯 스님을 찾아가 깨달음을 주제로 주고받은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두루뭉술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깨달음을 이야기한다.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깨달음이 어떻게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지에 대한 답을 들려준다.

깨달음이 무어냐는 질문에 대한 답처럼, 깨달음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스님들의 답 역시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공통분모가 있다. '연결' '현재' '명상' 등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다.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여섯 스님의 생생한 인생담을 듣는 데 있다. 어떤 동기로 출가를 했고, 출가 후 삶은 어떠했는지, 불자로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등 보통의 삶과는 다른 '스님의 삶'의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다. 덤으로 긴 시간 수행하며 살아온 스님들이 삶에서 체득한 알토란 같은 지혜도 얻을 수 있다.

여섯 스님이 들려주는 자기 삶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뭔가 남다르고 특별해 보이는 스님들의 삶 역시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날마다 나아지는 삶을 위해서는 꾸준히 스스로 갈고 닦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각자의 삶, 그 길 위에서 스스로 성실하게 묻고 답할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향한 '깨달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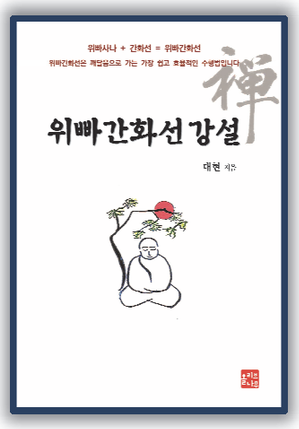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수행의 가장 빠른 길 = 간화선 + 위빠사나

위빠간화선 강설

대현 지음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깎아지른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과도 같아서 상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이다. 간화선 수행자라도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화두를 놓칠 때마다 놓쳤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서 곧바로 되돌기를 할 수 있다. 위빠사나 수행의 장점과 사마타 수행의 극치인 간화선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야말로 수행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 본책 + 강설 | 국판 | 200쪽 | 값 12,000원



선을 배우는 길

'고요히 비춤'을 바탕으로 삼고 (묵조선), '알아차림'으로 마음이 들뜸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위빠사나),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김으로써 (간화선), 산란한 마음을 강한 집중으로 삼매에 들게 하여 무명번뇌를 조복시켜 깨달음에 이르는 길.

* 대현 지음 / 신국판 / 302쪽 / 값 15,000원



선승의 길

수행으로만 일관하신 대현 스님의 수행기와 바른 참선수행법. 여러 선지식을 뵙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공부 농사에 영양분을 공급 받았던 내력과 함께 호흡법 등 기초공사의 중요성, 그리고 참선의 지름길을 밝힌다.

* 대현 지음 / 신국판 / 280쪽 / 값 12,000원

올리브나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82번길 10, 705-101
Tel. 070-8274-1226, 010-7755-2261 FAX. 031-629-6983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산 스님들의 고백 : 사장님이 시설한 사찰에서

염불 하다가 다른 사찰에 가면 염불이 힘듭니다.

주의 : 주위에서 전문가 행세하는 어설픈 반식자들을 물리친 후 본사의 견본으로 법당서 소리비교! 장난감 수준의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 후! 귀 법당 시설비의 1/2가격으로 시설! (장기할부 가능)

제품 특징 : 1. 너무 간단함으로 고장이 없음 2. 앰프다루기 1초!
3. 스피커 16개까지 연결

대상 : 전국사찰 · 교회 (제주도 포함)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50만원부터~,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방송시설 전문
Projector EPSON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NK Sound NK사운드 대표 박공희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1.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지만 동시 사용은 2개
2. 헤드셋 사용 염불시 자유로운 두 손으로 목탁 요령, 북 사용

시중에 없음

▣ 한국사찰 각종 제 필수품으로 가격 ₩58만원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각종 제 전문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펜화로 법당 짓던 김영택 화백 永眠

〈영면〉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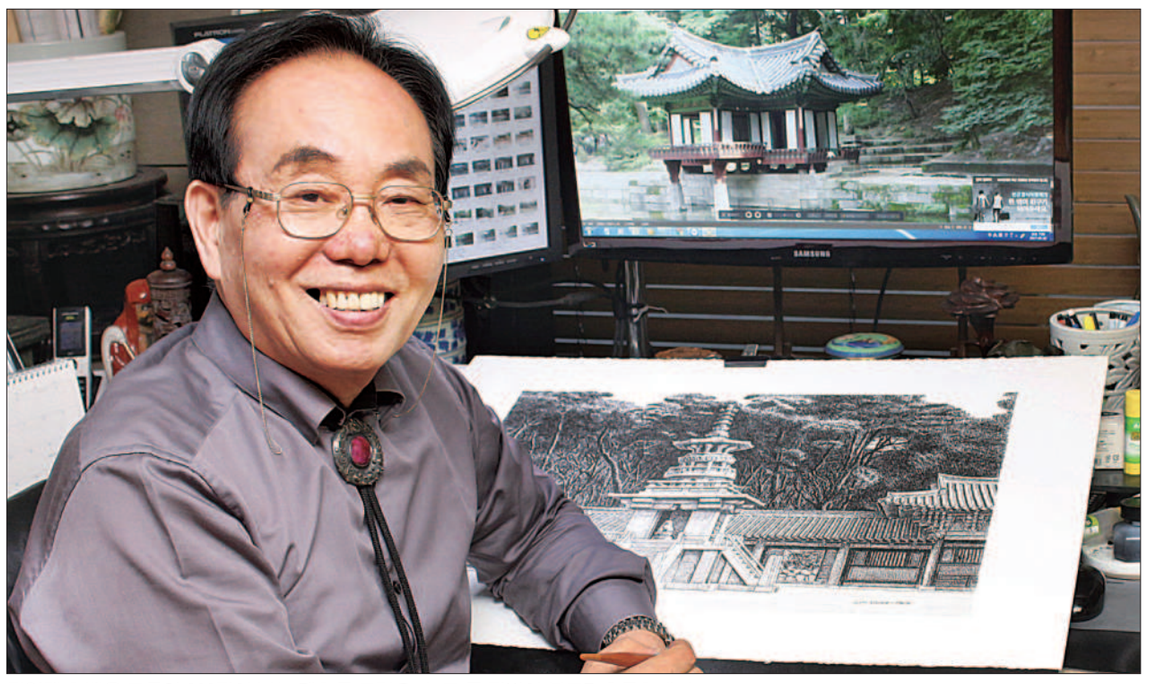
한국의 불교건축을 비롯한 전통건축물의 아름다움을 펜으로 그려온 펜화가 김영택 화백이 자신의 화업 30년을 결산하는 특별 개인전을 일주일 앞두고 1월 13일 지병으로 타계했다.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김영택 펜화전' 은 예정대로 열린다.

향년 76세로 세연을 접은 故 김영택 화백은 통도사 대웅전, 미황사 대웅전 등 한국의 불교 건축문화재와 종묘 정전 등 한국의 전통건축문화재를 면밀한 고증을 거쳐 자신만의 고유한 펜화기법으로 그려냄으로써 한국미술사에 '펜화' 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으며, 자신의 그림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재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왔다. 단순히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은 그의 업적은 본고장인 유럽의 펜화를 넘어서 한국적 펜화를 재창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밀하게 묘사된 그의 그림은 예술적 가치와 더불어 '기록' 이라는 가치를 더해 또 하나의 문화재로 평가된다. 김 화백은 그동안 300점이 넘는 펜화를 그렸으며, 그 중 절반이 불교건축문화재다.

김 화백이 펜화의 길로 들어선 것은 그의 나의 50세 때다. 홍익대에서 공업디자인을 전공한 김 화백은 광고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거쳐 종합 디자인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인정받은 디자이너였다. ITC(국제상표센터)에서 선정한 '디자인 엠배서더' 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른바 잘 나가는 디자이너였던 그가 펜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1994년 프랑스 고서점에서 우연히 보게 된 펜화 때문이었다. 그 때 그는 우리 전통건축물들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고, 그의 펜화는 시작됐다. 스승도 없고 교재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유럽을 넘어선 새로운 펜화로 세계무대에 우뚝 서고 싶었다. 스스로 기법을 만들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도구와 재료까지도 직접 고안해냈다. 김 화백의 펜화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당시 그의 그림은 그야말로 '센세이션' 이었다.

1월 13일 오후 지병으로 타계
예정된 개인전 예정대로 열려
펜화로 불교 건축 150점 남겨
유럽 넘어선 한국적 펜화창조
새로운 원근법 정교함의 미학

2019년 초 처음 암 진단 받아
치료 중단하고 미황사서 정진
매일 새벽 응진전서 백팔배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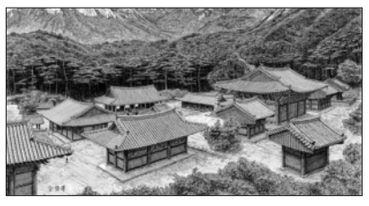
김영택 화백은 그동안 300점이 넘는 펜화를 그렸으며, 그 중 절반이 불교건축문화재다.



미황사 대웅전



통도사 금강계단



금강산 신계사

김 화백의 펜화가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은 2003년 통도사 칼린더를 만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펜화를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을 때였다. 김 화백은 통도사를 보는 순간 통도사를 그의 그림은 사진처럼 정교하면서도 그림이 지닌 미학의 차원을 새롭게 끌어올렸다. 특히 김 화백만의 독특한 원근법은 서양화에서 볼 수 없는 원근법으로 김영택 펜화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해남 미황사' 는 그의 원근법이 만들어낸 걸작으로 평가된다. 그렇게 김 화백의 펜화는 정성과 끈기로 그려야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김 화백은 평소 그림 그리는 일 자체를 '수행' 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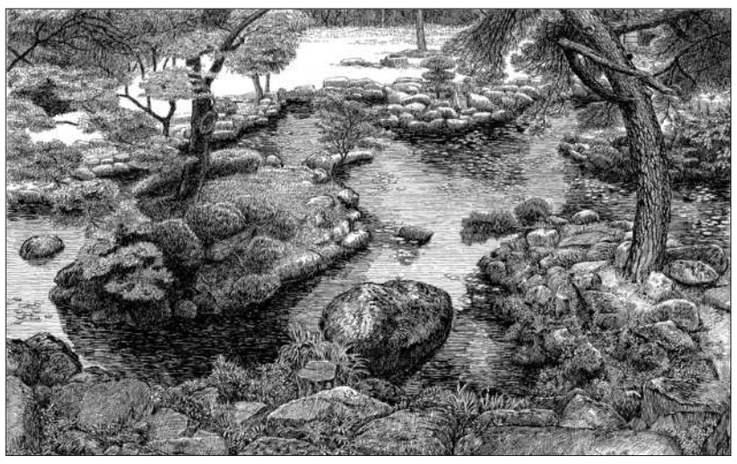
김 화백의 펜화가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은 2003년 통도사 칼린더를 만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펜화를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을 때였다. 김 화백은 통도사를 보는 순간 통도사를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김 화백은 1년 반 동안 통도사에 머물며 통도사를 그렸고 그 그림들은 통도사 칼린더가 된다.

김 화백은 펜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불교와 가까워졌다. 김 화백과 인연이 깊은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김 화백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삼배도 할 줄 몰랐고, 절집에서 공양하는 것도 몰랐어요"라고 말했다. 금강 스님은 1996년 여름 어느 날에 김 화백을 처음 만났다. 절 마당에서 누군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이가 김 화백이었다. 금강 스님은 김 화백에게 차 한 잔을 내며 이것저것 절집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 해주며 인연을 만들었다. 그 인연은 김 화백이 생사의 경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깊은 인연이었다.

김 화백은 2019년 초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 20개월 시한부였다. 김 화백은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약 5개월 동안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항암치료를 중단했다. 소식을 들은 금강 스님이 김 화백을 미황사로 불렀다. 김 화백은 미황사에 머물면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응진전에서 백팔배와 기도를 올렸다. 스님이 추천하는 음식만 먹었다. 그렇게 몇 달을 살았을 때였다. "진실로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김 화백으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날아왔다.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김 화백의 부풀었던 배가 줄어들고 몸도 가벼워져 뛰어다닐 수도 있게 되었다. 김 화백은 다시 펜을 잡을 수 있었고 미황사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초 병세가 다시 악화되어 김 화백은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또 한 번의 기적이었다. 김 화백은 그렇게 기적에 기적을 이어가면서 펜을 잡았다. 하지만 얼마 전 대장암이 재발해 다시 힘겨운 투병을 시작해야 했고 힘겨움 속에서도 어렵게 성사된 개인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달리했다. 개인전을 앞두고 김 화백은 "다시 일어나 펜을 잡겠다"고 의지를 보였었다.

고인의 빈소는 인천 동구 청기와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월 15일 오전 5시 30분이다.

유고전 된 '김영택 펜화전'



김영택 作, 해남 대흥사 무염지.

인사아트센터, 1월 20일~2월 15일
30년 결산의 개인전이 유고전 돼
대흥사 무염지 등 40여 점 선보여

1월 13일 타계한 김영택(1945~2021) 화백의 개인전이 예정대로 열린다. 가나문화재단(이사장 김형국)은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김영택 펜화전' 을 개최한다. 김 화백의 대표 펜화 작품 4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해남 대흥사 무염지를 비롯해서 로마 콜로세움, 일본 나라 도다이지 대불전, 돈의문, 영은문 등 한국 사찰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재 30점, 그리고 한국 문화재 복원화 10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김 화백이 타계 직후 열리는 전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김 화백은 개인전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지병인 대장암으로 타계했다. 특별 개인전은 유고전이 됐다.

이번 전시는 김 화백이 재발한 대장암으로 다시 투병을 시작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이 우리 미술사에 펜화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한 시대의 작가를 기리고 위로하고 싶은 취지를 가나문화재단이 받아들임으로써 열리게 됐다.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전을 열게 된 김 화백은 생전에 "힘든 상황에서도 개인전을 마련해준 가나문화재단에 감사하다.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살아 있는 동안 끝까지 펜을 놓지 않겠다"며 "다시 일어나 화가로서의 길을 걷고 싶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화백의 펜화는 고유한 원근법으로 한국적인 펜화를 재창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화백의 원근법은 사람이 바라보는 대상과 카메라가 기록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에 착안해 사람의 시각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원근법이다. 먼 곳은 작게, 가까운 곳은 크게 그리는 서양인들의 정확한 원근법이 '본다' 라는 적극적 의미의 인간 중심 시각이라면, 김영택 원근법은 '보인다' 라는 대상 중심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피사체를 더 잘 보이게 표현하여 사물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닌, 사물을 위한 그림이 되는 것이다. 김영택 원근법은 동양의 원근법과 유사하며 작가의 작품에서 한국화의 감성적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까닭이다.

박재완 기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통신교육 3개월과정(제59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 할 수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녹음강의 통신교육으로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내 용으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20년 12월 7일부터 3개월**
- 교육방법 : ① 의식강의 내용을 녹음하여 CD로 보급합니다.
② 강의 내용과 관련한 교재 및 교육자료를 배부합니다.
③ 교육관련 궁금한 내용은 전화 질의 상담으로 지도합니다.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될 수 있는 의식방법으로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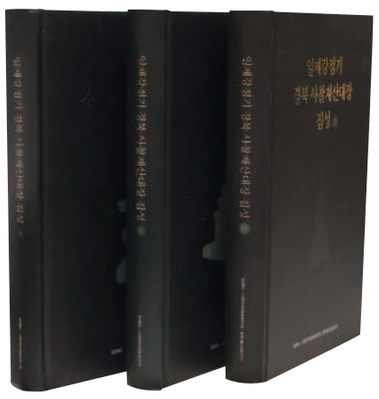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근대 경북 사찰재산대장 망라하다

경북도 · 한국국외문화재硏 '일제 사찰대장 집성' 완간

20개 시 · 군 144개 사찰 대상
최선일 위원 3년간 자료 조사
국박 소장 사찰재산대장 분류
유리건판 · 근대 엽서 등 수록




한국국외문화재연구소와 경북도가 완간한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 上 · 中 · 下〉(사진 왼쪽)과 자료집에 수록된 불국사 근대기 사진 엽서(사진 오른쪽). 당시 사찰재산 현황과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의 근대는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그 암울했던 시기, 일제는 1911년 사찰령을 반포하고 한반도 사찰을 통제한다. 더불어 한국의 불교문화재에 관심이 많았던 일제는 사찰에 있는 불상, 불화, 법구 등을 재산목록 형태로 기록하게 했으며, 조선총독부 관보에 사찰 재산이나 문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게재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미군정을 거쳐 한국전쟁 등 수난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불교문화재는 도난되거나 무단으로 반출됐다. 잃어버린 불교문화재를 찾는 가장 기초 자료는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기록해 놓은 사찰 관련 관보 기록과 사찰재산대장 등이다. 이 같은 기록들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나, 체계적으로 분류가 돼 있지는 않다.

경북도(도지사 이철우)와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원장 김영재)이 최근 완간한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 上 · 中 · 下〉는 근대기 경북권역 사찰재산을 망라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은 20세기 전반 개별 사찰에서 정리한 재산대장과 귀중품 목록, 조선총독부 관보에 수록된 재산목록 등을 정리한 것으로 기존 사찰에 어떤 성보문화재가 봉안돼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다.

해당 자료집 기획 · 편찬 작업은 최선일 박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가 진행했고, 감수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위원 도해 스님이 맡았다. 최 박사는 3년 동안 20개 경북지역 시 · 군 144개 사찰의 재산대장과 유리건판 사진, 기타 수집 자료들을 정리했고 3권의 자료집으로 엮었다.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은 일제 시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 현대에 걸쳐 경북 지역 각 사찰 성보들의 명칭과 수량들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으며, 적요란에 조성연대와 작가가 기록돼 문화재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 박사는 이 같은 작업들이 도난 · 반출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은 1970~80년대 유출된 성보문화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이나 개인소장 성보의 본래 봉안처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면서 "한국전쟁 당시 안타깝게 망실된 성보문화재와 사찰 간 이운으로 봉안처를 옮긴 성보들의 전래 과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 전남 지역에서도 사찰재산대장 집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아카이브 작업이 활성화돼야 도난 · 유출 · 멸실 문화재의 환수와 복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향후 남 · 북한 사찰 재산대장을 조사 · 제작하는 것이 작은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장은 "현재 개별 사찰에는 자료가 거의 멸실된 상황이다. 이번 자료집을 통해 100년 전 성보문화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면서 "또한 일제강점기 현황과 현재 사찰별 성보문화재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기 때문에 그간 도난 · 유출 · 멸실된 성보문화재 내역을 소상하게 파악해 향후 환수 · 복원활동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승 · 제자 함께 푼 화엄경 진면목

월운 스님 · 신규탁 교수, 〈화엄경 초역〉 출간



스승과 제자가 학문적 인연으로 엮어낸 경전 번역 · 해설서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근간된 〈화엄경 초역〉은 현대 한국불교의 대강백인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번역하고,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회편(會編)했다.

월운 스님과 신규탁 교수는 승 · 속을 넘어 학문적으로 교류한 사제지간이다. 월운 스님은 운허 스님의 제자로 한글대장경 번역을 이끈 강백이다. 동국역경원장 재임하던 2001년 〈한글대장경〉 총318책을 완간하기도 했다.

1978년 연세대 철학과 학생이던 신규탁 교수는 월운 스님을 남양주 봉선사에서 만난다. 처음 본 순간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기로 마음먹은 신규탁 교수는 월운 스님에게 전통 한문불전 교육을 받았고, 불교교학을 연구키로 방향을 정했다. 이후 신규탁 교수는 도쿄대서 중국불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모교의 교수가 됐다.

스승 월운 스님과 제자 신규탁 교수의 인연은 변함없다. 지난 2018년에는 스승의 구순을 기념해 스승이 쓰고 번역한 모든 간행물들을 수집 · 조사하고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서지사항과 서문을 추려서 엮어 〈월운당가라사〉를 발간하기도 했다.

〈화엄경 초역〉 제1저자인 월운 스님은 80권에 달하는 방대한 〈화엄경〉을 '전통적 기준'에 입각해 추려서 번역했고, 제2저자인 신규탁 교수는 월운 스님 번역에 적용된 '전통적 기준'을 화엄철학에 근거해 자세히 설명했다. '전통적 기준'이란 화엄종 학승들이 사용하던 방법으로 신(信) · 해(解) · 행(行) · 증(證)의 설득 단계를 의미한다.

〈화엄경〉은 분량이 방대하고 내용이 조직적인데, 〈화엄경 초역〉은 분량을 1권으로 줄이면서도 조직적인 구조를 잘 살렸다. 또한 신규탁 교수가 부록으로 해제한 △현담으로 풀어 본 화엄교학 △금사자로 비유한 법계연기 △문답으로 가닥쳐 본 〈화엄경〉은 〈화엄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신성민 기자

국외소재문화재, 'BI'로 알린다

문화재청 BI 개발… 국외문화재 표식 활용

국외소재문화재들이 한국에서 온 것임을 알릴 수 있는 상징 로고가 새로 개발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외소재문화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화하는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 이하 BI)'을 개발했다"고 1월 14일 밝혔다.



태극기 건곤 감리 응용
과거 잇는 상징성 강조

BI는 정책 등 서비스나 기업의 제품 등을 이미지화한 상징마크나 로고 등을 의미하며, 이번 국외소재문화재 통합 BI는 국외문화재 보호 ·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새로 개발된 BI는 앞으로 각종 책자나 답사지도, 홍보 배너(띠 광고), 초청장 등 홍보자료와 외교공관 · 독립운동 사적지, 이민사 건물 등에 부착하는 사인물(현판, 인증서, 현수막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영국, 캐나다, 폴란드 등 외국 사례 조사하고 △영문 상표명 작명(네이밍) 개발(8월) △기본 BI 개발(9~10월) △응용 BI 개발(11~12월) 등 단계를 거쳤다.

기본 BI는 태극기에 사용되는 건곤감리를 바탕으로 양 끝을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해 국외소재문화재가 과거와 미래, 우리나라와 소재국 등을 이어주는 역사 ·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되도록 이미지화했다. 여러 명칭이 경합을 벌인 영문 상표명은 전문가 자문, 원어민 평가 등을 거쳐 우리나라의 역사성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Heritage of Korea'(헤리티지 오브 코리아)로 확정했다.

문화재청은 "국외소재문화재가 외국 소장자나 소장기관의 인식 개선을 통해 현지에서 자발적으로 보존 · 관리될 수 있도록 보존 · 관리 안내서 배포, 보수 · 복원 · 홍보 지원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K-보존관리기술' 미얀마 바간 벽화에 전수

문화재청, 1월 11일 안내서 4종 제작 전달

벽화보존 · 구조 모니터링 담아
내년부터 역사 도시 조성 조력



문화재청이 발간한 4종 안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탑의 도시 미얀마 바간 불교 사원 등에 한국 문화재 보존관리 노하우가 전수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한국 벽화 보존관리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벽화보존처리 등 4종 안내서 전달식을 1월 1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얀마 바간고고학박물관에서 개최했다"고 1월 12일 밝혔다.

안내서는 △벽화보존처리 △구조 모니터링 △지표투과레이더운영 △사원 기본관리로 이뤄져 있다. '사원 벽화 보존처리 안내서'에는 바간 파야똔주 사원 벽화의 과학적 보존처리 방법을 담았고, '사원 구조 모니터링 안내서'는 2018년부터 진행 중인 파야똔주 사업의 구조안정성조사와 보수 보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지표투과레이더 운영 안내서'는 신설 예정인 지표투과레이더(GPR)팀 활용에 대한 노하우를, '사원 기본관리 안내서'는 바간 유적 관리인을 대상으로 청소 · 관람객 관리 · 벽화 관리 등 기본적인 관리 노하우를 전한다.

미얀마 바간 지역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 문화유산 공적개발(이하 ODA) 사업 거점지역으로서 문화재청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바간고고학박물관, 파야똔주 사원을 대상으로 세계유산등재 지원 · 지진피해 응급복구 · 보존처리 역량강화 · 벽화보존처리 안내서 제작 등을 지원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는 바간 지역 표준 안내서로 채택돼 현지 공무원, 관계자 등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와 역량강화 교육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경주, 백제 역사도시 구축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민난투 마을 대상으로 미얀마 ODA 2차 사업의 하나인 역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원 사업은 정부의 신남방정책플러스, 핵심사업의 하나로 문화재청은 사업 기간동안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미얀마 바간은 버마인이 수립한 미얀마 최초의 통일왕조 바간(1044~1287)의 수도로 사용된 미얀마 최대의 불교유적지로 1287년 몽골 침입으로 멸망하지만, 아직까지도 3800여 개의 사원과 불탑들이 남아있어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신성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1월 26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③

▶ **4회 예고**
왕성에 도착한 다르마는 자나사나를 따라 이지비카교 사원으로 간다. 그곳에서 왕자들을 교육시키던 빵갈로바뜨사를 기다린다. 빵갈로바뜨사는 15번째 왕비에게 다르마를 데리고 간다. 왕비는 다르마를 보자마자 질투한다.



작별하는 다르마… "운명 받아들이겠소"

두 달 후. 보름날 밤이었다. 보름달이 검푸른 강가강 너머에서 떠올랐다. 브라흐민과 다르마는 빠딸리뿌뜨라로 가기 위해 나루터로 나와 있었다. 자나사나와 약속한 날 밤이었다. 다르마가 탈 가트 말뚝에 매인 나룻배는 흐르는 강물에 당나귀처럼 끄덕끄덕 움직였다. 브라흐민 아내는 눈물을 흘리는 다르마를 꼬옥 껴안으며 말했다.

"다르마야, 울지 마라. 자나사나 구루께서 너를 친절하게 데려다 줄 거야."

"어머니, 왜 이 밤에 떠나야 하나요?"

"뱃사공이 내일 아침까지 여기로 급히 돌아와야 한단다. 그래서 지금 떠나는 거야."

"슬프고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라. 저 보름달처럼 인드라 신께서 널 지켜주실 거다."

수드라 신분의 뱃사공도 다르마를 위로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빠딸리뿌뜨라는 눈감고도 갈 수 있는 곳입죠. 빵갈로바뜨사 구루께서도 이 배를 타고 가셨읍죠."

"네가 빵갈로바뜨사를 알고 있다는 말이냐?"

브라흐민 아내가 물었다.

"알고 있습죠. 지금도 가끔 심부름을 하고 있습죠."

"그렇다니 안심이 되는구나. 빵갈로바뜨사 구루께서는 우리 집에 초대를 받아 여러 번 오셨어."

실제로 빵갈로바뜨사는 다르마의 아버지 브라흐민과는 늘 데면데면했지만 다르마의 어머니를 만나면 말수가 많아지는 등 활발해졌다. 브라흐민이 다르마가 가지고 갈 짐을 뱃사공에게 건네주었다. 이미 도착해 있던 자나사나는 나룻배에서 다르마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 브라흐민의 아내는 다르마를 마지막으로 껴안으며 울었다.

나룻배에서 보름달을 쳐다보며 기도하던 자나사나가 뱃사공을 불렀다. 보름달 달빛이 강물에 떨어져 금 조각처럼 반짝였다. 드디어 뱃사공이 말뚝에 매인 밧줄을 풀었다. 그런 뒤 뱃머리로 올라가 손바닥만 한 유등에 불을 켜더니 두 손을 이마에 대고 무어라고 중얼거렸다.

이윽고 뱃사공이 조그만 유등을 강물에 띄웠다. 그때였다. 나룻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브라흐민이 갑자기 나룻배에 올라탔다. 자나사나가 놀라 물었다.

"브라흐민이여. 어제, 다르마를 내게 부탁하지 않았소?"

"지금 마음이 변했소. 다르마를 혼자 보낼 수 없소. 궁궐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겠소."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르마의 운명은 궁궐로 들어가게 되어 있소."

"나도 빠딸리뿌뜨라까지 따라가겠소."

유등이 강에서 솟아난 연꽃처럼 피어났다가 나룻배에서 멀어졌다. 유등불은 꺼지지 않고 어둠 속 어딘가에 있을 강가강의 신에게 가고 있었다. 브라흐민의 아내는 짐승처럼 구슬프게 울부짖었다. 그러나 다르마는 곧 가물가물 사라지고 말았다.

노 젓는 소리만 철퍼덕철퍼덕 들릴 뿐 강가강은 적막했다. 자나사나는 앉아 웅크린 채 졸고 있었다. 다르마는 강물에 떨어져 부서지는 보름달 빛을 꼼짝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다. 간혹 강물에 어린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곤 했다. 그러다가도 출렁거리는 물결에 지워지면서 사라졌다. 다르마가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기는 처음이었다. 강물에 어린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고 있는지도 몰랐다. 잠을 자지 않기는 브라흐민도 마찬가지였다. 브라흐민은 나룻배가 짬빠성을 떠날 때부터 다르마의 앞날을 위해 리그베다와 아타르바베다를 번갈아 외면서 기도했다.

보름달이 중천에 떠올라 다르마와 브라흐민의 정수리에 쏟아졌다. 자나사나가 토막잠에서 깨어나 소리 나게 하품을 하며 차가워진 밤공기에 진저리를 쳤다. 그러자 머리부터 어깨까지 두른 두꺼운 숄이 벗겨졌다. 브라흐민이 자나사나에게 말했다.

"안개가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 같소."

"강물이 차갑게 식어버린 시각이오. 그래서 더 춥지요."

브라흐민이 다르마를 돌아보며 물었다.

"너는 오들오들 떨고 있구나."

밤안개가 강가강을 삼켜버릴 듯 뒤덮고 있었다. 보름달도 안개에 빛을 잃은 채 창백해졌다. 그래도 뱃사공은 능숙하게 물살을 거스르며 노를 저었다. 다르마는 눈만 보이게 숄을 둘러쓰고서 두려움에 떨었다. 자나사나가 말했다.

"도착해 화톳불을 쬐면 나아질 거요. 불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녹여줄 거요."

뱃사공이 말했다.

"잠시 후에는 물살이 거세지니 앉아서 배 옆구리를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물살이 회오리치는 위험한 곳입죠."

뱃사공이 말한 위험한 곳이란 히말라야산에서 발원한 간다끼강, 골고라강, 야무나강이 합쳐진 강가강과 데칸고원에서 흘러온 손강이 만나 굽이치는 좁은 수역이었다. 네 강물이 합류해 좁은 수역을 빠져나가므로 물살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거칠게 회오리쳤다.

뱃사공은 노련하게 밤안개를 뚫고 올라갔다. 그래도 잠시 후에는 나룻배가 강물 속에 솟아 있는 바위를 스쳤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나룻배가 심하게 기우뚱했다. 모두가 나룻배 바닥에 바싹 엎드려 숨을 죽였다. 강물이 튀어 올라 나룻배 안으로 쏟아져 내렸다. 뱃사공은 물벼락을 맞았지만 동요하지 않고 노를 놓지 않았다. 브라흐민이 불안하게 말했다.

"얼마나 남았는가?"

"이곳만 빠져나가면 안전합죠. 강물이 곧 순해질 겁니다요."

얼굴에 물벼락을 맞은 자나사나가 웃으며 말했다.

"브라흐민이여. 오늘은 강물에 몸을 적실 필요가 없어졌소. 강가의 신이 성수를 뿌려주었으니 말이오. 하하하."



"추워 죽겠어요. 어서 불을 쬐고 싶어요."

자나사나가 말했다.

"다르마여, 우리가 내릴 곳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불빛이 보일 거요."

불빛이란 빠딸리뿌뜨라 성 초입에 있는 나루터의 세관을 말했다. 밤새 기름불을 켜고 있는 나루터에는 통행세를 받는 세관이 있었다. 지독한 안개가 강가강을 삼켜버린 밤에는 세관의 불빛이 등대 구실을 해주었다. 다르마는 뱃사공이 내뱉은 불빛이란 말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다르마는 작은 새처럼 가엽게 떨었다. 브라흐민은 빠딸리뿌뜨라로 가는 험난한 뱃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과연, 강물이 소용돌이치는 수역을 빠져나가자 깜박거리는 불빛이 보였다. 어느 새 물살은 유순해졌고 강은 호수처럼 넓어졌다. 밤안개가 푸른 빛으로 변해 꼭두새벽임을 알렸다. 빠딸리뿌뜨라성이 가까운 듯 멀리서 닭이 홰치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북처럼 희멀건 보름달은 이제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다르마의 운명을 자나사나로부터 들었던 브라흐민의 마음은 복잡했다. 다르마가 빠딸리뿌뜨라성으로 간다고 해서 바로 왕비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후궁이 되었다가 빈두사라왕의 눈에 들어야만 왕비로 점지될 터였다. 자나사나는 다르마가 반드시 왕비가 될 운명이라고 단언했지만 거기까지 오르는 과정은 짬빠성을 떠나 빠딸리뿌뜨라 성으로 오는 뱃길처럼 순탄치 않을 것이었다. 뱃사공은 세관이 아직 보이지 않는데도 소리를 질러 신고했다.

"짬빠성 사공이요! 짬빠성 사공이요!" 소리를 지르는 까닭은 밤안개 때문이었다. 적이 아니라고 신고하고 나루터에 접근해야 했다. 곧 종소리가 서너 번 들려왔다. 나루터 접근을 허락하는 종소리였다. 뱃사공이 말했다.

"세관에 통행세를 낼 필요는 없습죠. 빵갈라바뜨사 구루께서 세리에게 당부해 두었습죠."

마침내 세 사람은 나루터에서 내렸다. 너른 강변 모래밭도 안개가 자욱했다. 보초서는 군사들이 여기저기서 화톳불로 피우고 있었다. 세관은 볼품없는 움막이나 다름없었다. 지붕에는 갈대를 얼기설기 얹었고, 출입문은 거적을 두르고 있었다. 세리가 나와서 뱃사공을 보더니 말했다.

"빵갈라바뜨사 구루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인가?"

"예, 이분은 자나사나 구루시고, 이분은 브라흐민, 이분은 브라흐민의 따님…."

"귀하신 분들이시구먼."

세리의 태도가 금세 달라졌다. 빵갈라바뜨사로부터 다르마가 왕비가 될 것이라는 귀띔을 들었는지 친절하게 맞이했다.

"세관 안으로 드시지요. 따뜻한 짜이를 대접하겠습니다."

움막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세관의 책상 위에 놓인 호롱불은 움막 안을 환하게 밝혔다. 긴 대나무의자에 앉은 세 사람은 세리가 내민 잔을 하나씩 받아들었다. 세리가 밖에다 뭐라고 소리치자 군사 한 명이 짜이가 든 주전자를 들고 왔다. 주전자는 불에 그슬려 숯덩이처럼 새까맸다. 그래도 주전자 안에서 나온 짜이는 뜨겁고 달콤했다. 세 사람 모두 짜이가 기도를 타고 뱃속으로 들어가자 밤공기에 굳었던 몸이 나른하게 풀어졌다.

"날이 밝아질 때까지 화톳불을 쬐시오."

"세리 나리, 이거 집에서 담근 술입죠."

뱃사공이 세리에게 바치는 일종의 선물이었다. 뱃사공은 세관을 들를 때마다 세리에게 선물을 상납함으로써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화톳불을 어디에 필깝쇼?"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하게. 강바람이 불면 세관이 위험하니까."

세 사람은 강변 모래밭 언덕 밑에 자리를 잡았다. 화톳불 땔감은 세리가 챙겨주었다. 뱃사공은 갈대 한 단 위에 잡목들을 얹고는 불을 붙였다. 갈대에 불이 붙자 금세 따다닥 따다닥 소리 내며 불길이 치솟았다. 뱃사공이 말했다.

"저는 이제 짬빠성으로 돌아가야 합죠. 브라흐민께서는 따님과 여기서 헤어져야 합죠."

밤안개가 좀 전과 달리 푸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새벽빛이 간밤의 어둠을 시나브로 밀어내는 중이었다. 강변 너머의 망고나무 숲도 어렴풋이 드러났다. 자나사나가 돌아가는 브라흐민과 뱃사공을 위해 잠시 기도를 해주었다. 화톳불 불빛 속에 드러난 다르마의 표정은 뜻밖에 담담했다.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표정의 얼굴이었다.

기도를 마친 자나사나가 말했다.

"브라흐민이여, 이제 돌아갈 시간이오. 마지막으로 다르마에게 할 말은 없소?"

"다르마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이오. 허지만 작별하려고 하니 마음이 아프오."

"아버지, 걱정하지 마셔요. 저는 운명을 받아들일 거예요."

브라흐민이 말했다.

"너를 한 번 안아보고 싶구나."

다르마가 뚱뚱한 브라흐민에게 안겼다. 브라흐민이 다르마에게 속삭였다.

"네 인생은 짬빠성에서 오는 뱃길처럼 순한 길도 있고, 사나운 길도 있고, 평온한 길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빠딸리뿌뜨라성에 이른 것은 그 모든 길을 다 지났기 때문이다. 어떤 길을 만나든 좌절하지 말거라. 좌절하지 않는 것이 신의 축복이더라."

"아버지, 알겠어요. 다르마는 어떤 길이든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나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브라흐민은 다르마와 포옹한 뒤 그곳을 떠났다. 뱃사공을 따라 나루터로 가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자나사나는 다르마를 데리고 빠딸리뿌뜨라 동문으로 걸어갔다. 빠딸리뿌뜨라성은 강가강과 손강 사이에 있었다. 날카로운 목책은 이중으로 석성을 에워싸고 있었다. 석성 안에는 많은 수행자와 성민들이 거주했고, 온갖 꽃이 피고 지는 정원과 궁궐은 언덕 한 가운데에 우뚝 자리 잡고 있었다.〈계속〉

靈영通통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구,돌할머니〉)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고질병 등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을 전수해드립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정 **지광** 총무원장 **동진** 합장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 대인사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❷ 한국선법의 확산



▶ 한줄 요약
8세기 초 신라에서 출가한 이후에 당나라에서 생을 마감한 정중 무상의 선법을 한국선의 원류(源流)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선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홍인 동산법문 정통성 확보한 '정중무상'

일반적으로 '한국선'이라고 말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의미의 범주는 다양하다. 우선 한국인에 의하여 한국에서 발아되고 전개되며 전승된 선법이라는 경우에는 '한국선'이라는 의미가 명백하다. 그러나 가령 한국인이면서 한국을 벗어나서 타국에서 활동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을 경우는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 더구나 고국에서 출가하지 않은 경우 및 그 영향력이 타국에서만 전개되고 고국에는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국선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출가를 한 이후에 타국에 들어간 경우는 의심할 것도 없이 한국선의 범주에 수용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당나라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신라의 정중 무상(淨衆 無相, 684~762)의 경우 분명히 한국선의 역사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중 무상과 같은 경우에도 한국선의 원류라는 측면에서 논의할 경우에는 역시 재고할 필요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원류(遠流)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원류(源流)라는 점에서는 반드시 선법을 한국에 수입 내지 전승했다든가 혹은 전개 내지 발전시켰어야 하는 당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중 무상의 선법은 8세기 초에 신라에서 출가한 이후에 입당한 선사이기 때문에 한국선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거기에다 '원류(源流)'라는 의미를 붙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령 정중 무상의 선법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의의에 대하여 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이 전개한 선법에 대하여 그 성격은 분명 한국선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 원류(源流)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선 무상이 활동했던 시기가 8세기 전반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이미 법랑으로부터 중국 선종의 동산법문의 선법이 전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행에 의하여 경주에 법랑의 선법이 경주에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무상의 선법은 신라선의 역사에서는 그 법맥의 전승이 문헌상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

둘째, 무상의 선법은 중국 선종에서는 오조 홍인의 문하에서 소위 정중종(淨衆宗)이라는 종명으로 형성되었고 전개되었으며, 이후에 무주(無住, 714~774)의 보당종(保唐宗)으로 계승됨으로써 중국 사천성에서 전개된 선법으로서 그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할 경우에 선종사에서 무상이 전승한 선법의 위상은 간과할 수 없는 세력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정중종의 경우에 안사(安史)의 난이 전개되었던 와중에 재상으로서 당나라 황실과 밀접했던 두흠점(杜鴻漸, 709~769)의 지지를 받아 형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북종 계통의 전등사서인 두비(杜朏)의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716)에 대항하여 달마선법의 정통성을 계승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보당종 문하에서 편찬했던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774)에서 대단히 중요시되었던 점 등에서 그 의미와 의의를 살펴볼 수가 있다. 더욱이 〈속고승전〉에 의하면 보리달마의 문하인 승부(僧副)에 의하여 일찍이 사천(四川) 지방에 선법이 소개 및 전개되어 있었는데, 이 점은 무상

무상 선법, 한국선 범주 문명
오조홍인 문하서 정중종으로
달마선법의 정통성 계승주장

이 전승한 법맥이 오조 홍인(五祖 弘忍, 601~674)-자주 지선(資州智詵)-처적(處寂)-정중 무상으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홍인의 동산법문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달마로부터 직접 전승된 지역의 선법이라는 명분까지 획득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로써 무상의 선법은 한국선의 역사에서 충분히 그 의의를 담보해주고 있다.

중국의 전등사서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들 가운데서 특히 무상의 선법은 〈역대법보기〉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전등사서로서 〈역대법보기〉의 출현은 정중종 및 보당종의 사람들에 의하여 자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내용인 즉 당시에 정법안장의 전승에 대한 상징적인 물증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부처님의 가사(袈裟)가 부처님으로부터 달마를 거쳐 혜능에게 전수되었고, 혜능은 가사를 측천무후에게 바쳤는데 그것이 측천무후의 칙명에 의하여 지선에게 전승되었으며, 처적-무상-무주에게로 계승되었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 정중무상이 위치한다.

무상은 매년 섣달과 정월에 수많은 사부대중에게 수계를 하였다. 장엄하게 시설된 도량에서 법상에 올라 설법을 하는데, 먼저 인성염불(引聲念佛)을 하는데 한 번의 호흡이 단절되는 때까지 시킨다. 그리하여 망념이 단절되고 염불소리가 정지되는 때가 되면 "무억(無憶)하고, 무념(無念)하며, 막망(莫忘)하라. 무억은 곧 지계이고, 무념은 선정이며 막망은 지혜이다. 이 삼구의 말씀은 곧 총지문(總持門)이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무상은 말한다. "우리의 달마 조사께서 전승한 이 삼구어는 곧 총지문이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지계의 문이고,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선정의 문이며,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지혜의 문이다. 그래서 망념이 없으면 곧 지계와 선정과 지혜가 구족된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항사처럼 많은 제불도 이 삼구문을 통하여 깨침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만약 다른 문이 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도리이다." 이처럼 무상의 삼구법문은 삼학(三學)의 이치를 수행의 방식과 의례의 방식으로 승화시켜 대중에게 제시하여 정중종의 선법으로 널리 호응을 얻었다.



중국 오백나한도 중 455번째 조사에 올라있는 정중 무상 선사.

한편 〈능가사자기〉(716)에는 오조 홍인의 문하로서 고구려 승려 지덕(智德)이 신수, 혜능, 지선, 법여, 현색, 노안, 혜장, 현약, 의방 등과 더불어 십대제자 가운데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조당집〉(952)에는 신라출신의 선자로서 제운화상 영조, 복청화상 현눌, 원적선사 도의, 동리화상 혜철, 실상화상 홍직, 혜목화상 현욱, 통효대사 범일, 성주 무염국사, 쌍봉화상 도윤, 신라승 김대비, 서운사 화상 순지 등 11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후 송 대에 출현한 〈경덕전등록〉(1004)에서 총 41명 가운데 익주 무상선사 등 17명에 대해서는 기연어구를 기록하고, 본여(本如) 등 24명에 대해서는 이름만 언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설봉 의존(雪峯 義存, 822~908)의 법사인 영조(靈照) 및 현눌(玄訥)은 귀국하지는 못했지만 당 말 · 오대에 신라인으로서 선법을 진작한 인물이었다.

영조선사가 처음 용화사(龍華寺)에 와서 다음과 같이 상당설법을 하였다. "선의 종지가 지니고 있는 오묘한 도리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의하겠다. 만약 대도(大道)의 현묘한 가르침이라면 삼계를 감싸서 일문(一門)으로 간주하고, 모든 시방세계를 정안(正眼)으로 간주한다. 세존은 영산에서 설법한 이후에 마하가섭(摩訶迦葉)한테 깨달음 곧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부촉하였는데, 그것을 조사들이 서로 계승함으로써 정법안장이 전승되었다. 남천축국왕의 태자로서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여 달마대사(達摩大師)라 불렸다. 달마는 부처님의 심인을 전승하기 위하여 특별히 십만팔천리를 사이에 두고 중국에 도래하여 '내가 이 땅에 건너온 이유는 전법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천 년 동안 진리의 바람이 소멸되지 않았다. 여기 오(吳)나라와 월(越)나라의 태조 세황(太祖 世皇)은 불법을 숭경하였고, 지금의 전하(殿下)도 삼보를 경중하여 대승을 천양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영취산에서 부처님의 부촉을 받은 대조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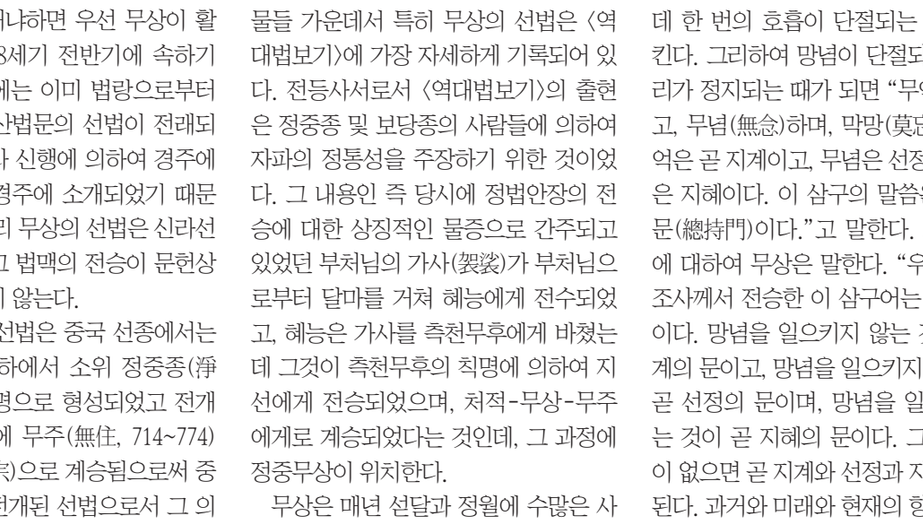
영조의 이 설법에 보이는 내용은 조사선의 사상과 그 의의가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는 정법안장의 계승에 대한 안목과 그에 상응하는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불법의 현묘한 가르침은 다름이 아니라 온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이고,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일체가 불법의 소유자라는 것이며, 불법을 홍포하는 목적은 불법이 단절되지 않게 유지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영조의 이와 같은 안목은 당시에 중국에서 크게 번성하고 있던 선종의 종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직후에 분립되기 시작한 선종오가(禪宗五家)의 출현에 공통적인 요소였다.

복청화상(福淸和尙) 현눌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인왕(人王)이란 무엇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인왕은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킨다." "법왕(法王)이란 무엇입니까." "법왕에게는 하늘을 가리킬 손도 없고 땅을 가리킬 손도 없다." "인왕과 법왕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그대 스스로 판단해 보라." 그러자 승이 다시 물었다. "저는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화상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가 말했다. "내년에는 새 가지가 뻗어나서 계절에 상관없이 자라겠구나."

어떤 승이 물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반년 치의 양식을 잃어버렸구나." "어째서 반년 치의 양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까." "남의 쌀 한 말을 탐냈기 때문이다." "원이삼점(圓伊三點)의 도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훌륭한 가풍이란 어떤 것입니까." "훌륭한 가풍은 접어두고, 지금 그대의 가풍은 어떤가." "저는 아직 출세하지도 못했는데 가풍인들 있겠습니까." "가풍 없는 것이 무슨 자랑인가."

인왕과 법왕은 부처님이 세간과 출세간에서 연출한 모습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이치에 대하여 현눌은 양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 상황은 마치 새로 뻗은 나뭇가지처럼 일 년 내내 지속적으로 생장하듯이 불법의 영원한 속성을 의미한다. 한편 깨달음이란 어떤 도그마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연과 같이 작용한다는 것을 원이삼점으로 비유하고 있다. 원이삼점은 실담자의 음가 이(伊)는 그 형상이 삼점(三點)의 삼각형 모양이다. 삼점의 관계는 상하 · 전후 · 좌우가 동일하지 않지만 다르지도 않고, 서로 앞과 뒤가 없으며, 벗어나 있지 않으면서 붙어 있지도 않는 모습으로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형상이다. 그것은 마치 어느 작가의 말처럼, 더할 나위 없이 청명한 쪽빛 하늘은 한조각의 구름도 없이 뎅그렁한 허공에 더덩실 둥근 달을 띄워놓고 고대광실이나 초가삼간이나 구별 없이 한결같이 빛을 토해내어 세상의 티끌을 정화하면서도 대낮에는 밤과는 전혀 달리 온갖 다른 차별세계를 내보여주고, 산들바람은 뒷방의 늙은이 등을 타고나려 소녀의 소맷자락을 살짝 스치고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유유히 불어가면서 눈곱만치의 흔적도 남겨놓지 않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바로 청명한 하늘과 산들바람의 관계처럼 깨달음은 체용일여(體用一如)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❷ 찬란한 빛의 그물 '투명 사라'



▶ 한줄 요약
고려불화는 왜 세계적으로 유명할까? 그 비밀은 '디테일'에 있다. 해외에 유출되어 보래야 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려불화. '신의 경지'라 칭송되는 그 마이크로 세계를 불교미술사학자 강소연 교수가 소개한다. 격주 연재.

초미세 선묘로 그려낸 관음 天衣

'투명 소재' 표현의 천재

고려시대의 화승(畵僧, 불화를 그리는 승려)은 투명한 소재를 그리는 데 천재였다. 버드나무가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 정병, 영롱히 빛나는 수정 염주, 보관과 몸체를 장식한 영락 구슬, 달빛 같은 투명 광배 등. 이들을 모두 투명하게 표현하는 데 전심전력을 기울였다. 이런 소재들 중에서도 압권은 '투명 사라'이다. 사라(紗羅)는 수월관음이 걸치고 있는 투명하게 비치는 비단 숄이다. 투명 사라는 고려불화만의 전유물로 유명하다. 다른 어떤 나라, 다른 어떤 화가도 결코 흉내 낼 수 없었던 것. 고려 화승들만의 전매특허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중국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관음상은 지극히 공교(工巧)롭다. 필치가 매우 유려하여 그 섬려(纖麗)함은 극(極)에 달했다.(탕후, 〈고금화감〉)"라고 극찬하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당시 고려불화를 모사한 작품들이 있는데, 세부 필선의 정교함이 현격히 떨어져, 바로 일본 작품이라는 것이 들통 난다.

정녕 사람 손으로 가능한가

당시 그들이 극찬하였던 흠모의 대상, 고려불화. 절대 모사 불가능했던 결정적 내용은 무엇인가? 그 핵심에 있는 '투명 사라'를 보도록 하자. 수월관음의 머리 꼭대기 보관을 덮어 흐르는 투명한 베일. 이 베일은 어깨와 몸통을 감싸고 발 치 끝까지 하늘하늘 부드럽게 떨어진다. 너무나 얇디얇아서 살짝 미풍에도 휘날려 끝자락이 반전된다. 멀리서 보면 투명 막이 수월관음을 감싼 듯 보이는 데, 가까이서 보면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기가 막힌 내공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수월관음의 사라 디테일(그림2)를 주목해 보면, 사라의 묘선에는 흰색과 금색이 쓰였다. 외곽선은 반짝이는 금니선과 푸른 기운이 도는 흰색 선을 겹쳐서 썼다. 그런데 비단 천의 질감 표현을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가늘고 가는 씨줄과 날줄, 수천 수백 개가 가로와 세로로 모자이크식으로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면에 제시한 사진(그림2)을 통해, 기상천외한 사라의 모습이 그 일부나마 전달되었으면 한다.(씨줄 날줄의 표현이 잘 보이도록, 가장 단순한 문양의 패턴을 선별 게재하였다.) 마치 거미줄과도 같은 극세사의 무수한 선들이, 무려 4m가 넘는 수월관음의 온 몸을 감싸며 가로지르고 있다.

천의무봉, '초미세한 철선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가는 선들이 무려 3~4m 길이로 흔들림 없이 그려져 있다. 그것도 직선이 아니라 약간 곡선을 주어 크고 유연하게 포물선을 그리는 선들이 0.05mm 이하의 간격으로 촘촘히, 가로 세로 격자 문양을 이루고 있다. 미세한 선들의 두께는 시작점이나 끝점이 변화가 없는 '철선묘(鐵線描)'다. '철선묘'란 선묘의 두께가 일정하여 변함이 없는 선묘를 말한다. 반대로, 선의 두께가 일정치 않고 강약 리듬이 강한 선을 '비수선(肥瘦線)'이라고 한다.

천의무봉이 따로 없다. 일본 학자들이 일찍이 놀란 고려불화의 특징이다. 이런 선묘는 호흡이 거칠거나 불안정하면 결코 나올 수 없다. 무수한 마이크로 선들의 길고도 길게 전개되지만, 그 속에 겹침이나 떨림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입정(入定) 상태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선이다. 입정이란, '고요함에 들다' 또는 '삼매에 들다'라는 뜻이다. 주지하듯이, 마음의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호흡은 미세하고 길어진다.



그림①

'투명 사라' 고려 불화 전유물
"섬려함이 극에 달했다" 극찬
0.05mm 철선묘로 사라 그려

입정 수준의 호흡 아니면 불가
청정심 이룬 투명한 마음 표현
'천의무봉' 따로 없을 최고명작



그림②

그림① 일본 가가미진자(鏡神社) 소장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하반신 부분.

그림② 수월관금의 투명 사라의 디테일. 초미세한 그물에 주목해봐야 한다. 크고 유연하게 포물선을 그리는 선들이 0.05mm 이하의 간격으로 촘촘히, 가로 세로 격자 문양을 이루고 있다.

핵심 요소들, 왜 '투명'한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긴 날숨 위로 석가모니의 전생이 펼쳐졌다"라는 말이 있듯, 고요함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호흡은 얇고 길어지고, 그 고요함의 밀도는 전생도 꿰뚫는다. 궁극의 고요함과 하나됨을 열반(涅槃) 또는 적멸(寂滅)이라고 한다. 고요함이 밀도를 높여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투명함'이다. 대상이 투명해진다. 즉, 그것을 아는 마음도 투명해졌다는 반증이다. 수행의 대상은 하얀 빛으로 변하고 그것은 투명하게 변하고 결국은 없어진다. 대상도 없고 그것을 보는 '나'도 없다. 내가 없어지는 순간, 지구 크기만 한 투명한 여의주가 나타난다. 투명한 여의주들이 무수하게 파도친다.

시인 김수영의 시 풀의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처럼, 파도치는 여의주들을 보려 하면, 보려하는 의도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그 변화무쌍함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 나옹 화상은 그의 '완주가(玩珠哥)'에서 "이 신령한 구슬, 영롱하기 짝이 없네… 모습도 없고 형태도 없으면서 형상을 드러내니, 오가는 자취도 없어 헤아릴 수도 없도다"라고 깨달음을 묘사하고 있다.

〈화엄경〉에는 "불이(不二)의 상태가 되어 청정법신(淸淨法身)과 하나가 되면, 마음이 미동도 없는 투명한 유리처럼 맑고 맑은 상태 그대로이다"라고 쓰여 있다. 고려 화승들이 고려불화에서 사라, 여의주, 광배 등 핵심적 요소들을 왜 투명하게 표현하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투명 사라' 무엇을 상징할까

관음보살은 '백의(白衣)관음'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하얀 천의(天衣)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얀색은 '청정한 마음'을 상징한다. 하얀색과 불가분의 관계인 관음보살. 그렇기에 관음보살이 계신 곳을, 하얀 꽃이 만발한 '백화(白華)도량' 또는 '백화산'이라고 한다. 청정을 상징하는 '백의'를 '투명한 사라'로 묘사한 경우는 고려 수월관음도 밖에는 없다. 여타 시대 및 여타 이웃나라의 수월관음도를 살펴보면, 모두 불투명한 백의로 표현하고 있다. '투명한 백의'는 고려 수월관음만의 독자적인 특징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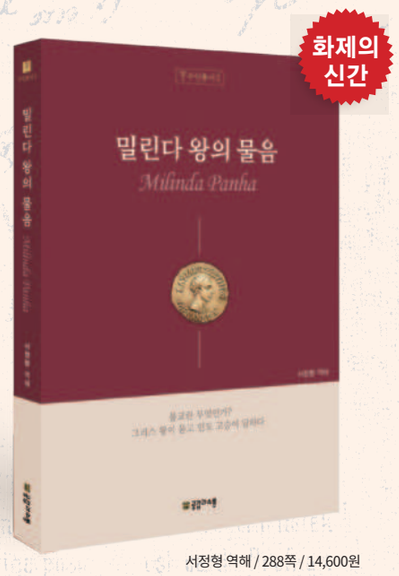
그렇다면 하늘 그물 같은 이 천의의 기능은 무엇일까? "관음보살은 어떻게 중생을 교화하고 포섭하는가"라는 〈화엄경〉 '입법계품'의 구절에는 "나는 대비법문광명행(大悲法門光明行, 크나큰 자비 광명의 묘법)을 성취하였다. 그 대상에 따라 그 앞에 나타나, 크나큰 광명의 그물(大光網)을 놓아 중생들을 온갖 뜨거운 번뇌에서 구제한다"라고 쓰여 있다. 청정한 자비의 빛은 드넓은 허공에 그물처럼 광활히 퍼져있고 그것은 중생을 뜨거운 번뇌로부터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바로 이러한 '크나큰 광명의 그물'이, 관음보살의 눈부신 투명 사라로 시각화되었다.

수행을 하다가 마음이 지극히 청정해지면, 힐링 에너지가 돌기 시작한다. 말 그대로 온 몸 구석구석 쌓인 검은 번뇌가 맑혀지면서, 온갖 고질적인 병들이 단박에 타파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청정한 에너지가 몸과 마음을 관통할 때, 즉 그 분(관음보살)이 오신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법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나는 용맹한 관자재보살로서/ 깊고도 청정한 대 자비심을 일으켰노라/ 구름 그물과도 같은 신묘한 광명을 두루 뻗쳐/ 드넓기가 허공과 같고 청정하기가 그지없다.(我是勇猛觀自在 起深淸淨大慈悲 普放雲網妙光明 廣博如空極淸淨)"

—〈화엄경〉 中

"불교란 무엇인가?
그리스 왕이 묻고 인도 고승이 답하다!"



화제의 신간

밀린다 왕의 물음

알렉산더의 후예인 그리스 왕 밀린다와
불교에 정통한 인도 고승 나가세나의 주옥 같은 대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유려한 우리말로 풀어쓴
〈밀린다팡하〉 역해서!

이 책은 불교에 회의적인 서구인들이 내게 묻는 대부분의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밀린다 왕의 물음〉이 인도 산문의 위대한 걸작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문학적 견지에서도 어느 나라의 어떤 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서정형 역해 / 288쪽 / 14,600원



나가세나

밀린다 왕 :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 머뭅니까?
나가세나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밀리다 왕 : 그렇다면 지혜라는 건 없군요.
나가세나 : 바람은 어디에 머뭅니까?
밀린다 왕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나가세나 : 그럼 바람은 없습니까?

서정형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공감과소통 전화 031-942-9472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박원자의 母情佛心 ❷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머니가 있었고, 우리가 아는 고승들도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어내는 모정(母情)은 자비(慈悲)며, 불심(佛心)이다. 라이프 스토리텔러 박원자 작가가 전하는 스님의 어머니 이야기. 격주 연재.

"니 혼자 부처 되면 뭐 하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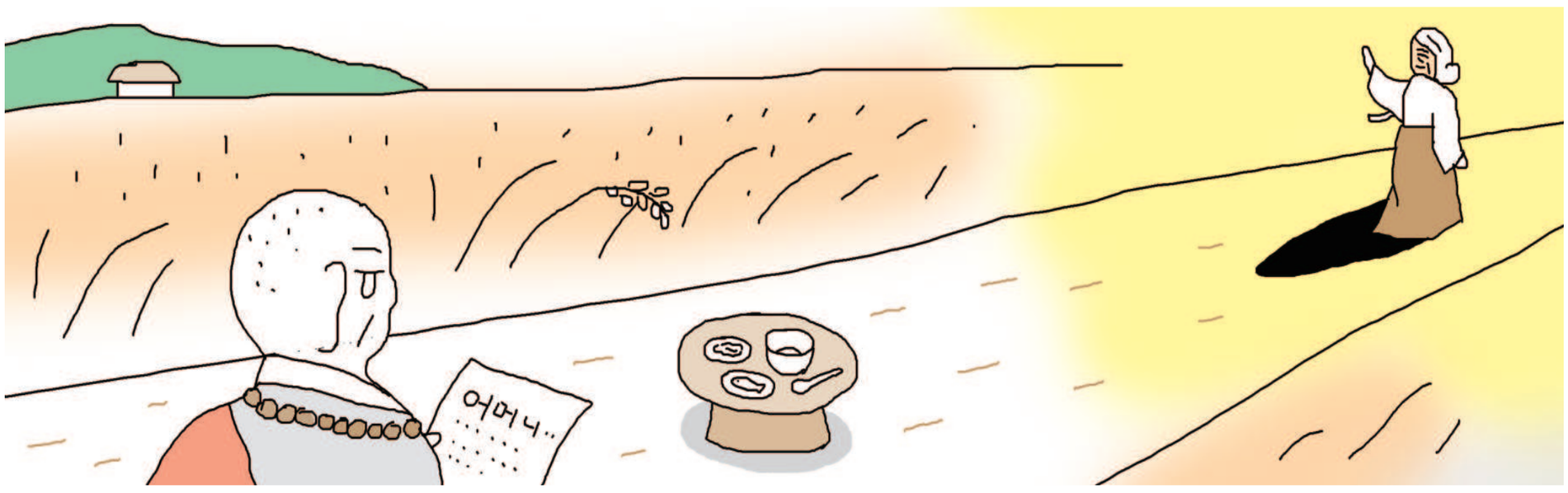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팔순의 노모가 예순 살이 넘은 아들 스님에게 전화를 건다. 가끔 하는 안부전화다.

"애미다."

"평안하십니까?"

"스님, 뭐 하시노?"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부 덜 했나?"

"부처가 되려면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니 혼자 부처 되면 뭐 하노."

열다섯 살에 부모를 버리고 출가해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정진하며 중생교화의 길을 걸어왔지만, 어머니의 무심한 한마디에 아들 스님은 가슴이 뜨끔하다. 그래도 한 마디 안 할 수 없다.

"만 중생 제도해야지요."

"한 중생도 제도 못하면서 무슨 만 중생을 제도할 끼고. 한 중생 다 죽고 난 뒤에 제도해라."

"제도해도 제도된 바가 없답니다. 어머니 스스로 잘 제도하고 계시네요. 그만 끊으소."

"우야든지 몸조심해라."

아들 스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니 혼자 부처되면 뭐 하노', 어머니의 그 소리는 선배 조사 스님들이 내리친 장군죽비보다 더 뼈아팠다. 출가자는 마땅히 일체 중생과 함께 해야 하는데, 나 홀로 선방에서 이슬이나 먹고 사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을 역임하고, 지금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과 문경 세계명상마을(국제간화선 센터) 운영위원장 소임을 보고 있는 월암 스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출가했다. 머리 좋고 모범생이던 장남이 경주의 한 절에서 법문을 듣고 출가해버리자 부모님은 망연자실했다. 아들이 경주의 최고 명문중학교에 들어가자 이제 판 · 검사는 따 놓은 당상이라 여기고, 시골의 논밭을 팔아 경주 시내로 이사까지 했던 아버지는 비감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아들 셋을 낳았던 어머니는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아이가 집을 나가게 만들었느냐' 는 지아비의 닦달에 죄인이 되어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홀로 남아 농사지으며 어린 아들 둘을 키웠다.

"기가 막히고 서운하셨겠지만 내색은 안했죠. 말씀이 없었고 매사에 무던한 분이셨어요. 그냥 선한 분이셨습니다."

누구보다 기대를 걸었던 큰아들이 출가해 돌아오지 않았으니 그 후 어머니의 일생이 얼마나 신산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도를 이루어 중생을 구제하리라 뜨겁게 발원하고 출가를 감행했으나, 왜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었겠는가.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찾았다. 제대 후 재발심을 다지며 지리산 칠불암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온 뒤였다. 가난한 살림 속에서 동생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를 며칠이라도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고픈 마음이었다.

20대의 늠름한 청년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본 어머니는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정성껏 찬을 준비해 밥상에 올려놓았다. 얼굴이 환해졌고 발걸음이 가벼웠다. 말씀은 안 해도, 세상 물정 모르던 어린나이에 출가했다가 이제 철이 드니 집으로 돌아오려나 보다 생각하는 것이 역력했다. 며칠을 더 묵으며 떠날 기회를 엿보다 칠일 째가 되는 날 걸망을 챙겨들었다. "어머니, 저 갑니다."

사립문을 나서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그렇게 가야만 하는가' 하는 눈빛으로 한마디 토해냈다. "마, 가나?"

스님에게 물었다. "아무리 스님들이 냉정하다 해도 그때 어머니를 두고 나서는 심정이 쓰리셨을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아팠죠. 그러나 어차피 돌아가야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뚜벅뚜벅 걸어 나와 버렸죠."

그런데 이 무정한 이별이 스님에게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었던 걸까.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어느 해 겨울, 다시 어머니가 사는 고향집을 찾았다. 생각해보니, 나이 50세가 넘도록 부모님을 한 번도 봉양해 본 적이 없었다. 밥 한 끼 지어드린 적이 없고 용돈 한번 드리지 못했다. 돌아가시고 나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았다. 그래서 어머니를 봉양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그해 동안거를 고향집에서 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스님은 30대 중반에 중국 북경대학으로 유학해서 선학(禪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에 있던 10년 동안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포교에 있는 힘을 다 쏟았다. 그리고 돌아와 몇 달 간 지리산 벽송사에서 수백 명의 사부대중을 앞에 두고 사자후를 토해냈다. 무문관에도 들어가 정진했다. 그리고 세간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법문을 해 무명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어머니는 때때로 아들 스님이 법문하는 곳을 찾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앉아 법문을 들었다. 사람들이 간혹 물었다. "보살님, 아드님이 큰 스님이 되어서 좋으시지요?"

'너혼자 부처되면 뭐하겠느냐'는
스님 어머니만의 타박이자 경책
모범생 장남 출가 보낸 죄인으로
평생 살면서도 끝까지 자식 걱정
어머니 멀리 떠나보내는 49재서
"다음생 중 엄마 되지마소" 弔辭

어머니의 답은 담백했다. "큰 스님이 뭔교?"

아들 스님은 가끔 찾아오는 어머니에게 염불하며 사시라고 권했다. 그런데 어쩐지 어머니는 염불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

"염불 잘하고 계십니까?"

"따로 무신(무슨) 염불이 있나. 착하게 사는 게 염불이지."

남달리 신심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죽어라 공부할 때 농사를 지어 남은 자식들을 키웠던 갑남을녀의 평범한 어머니가 아들 스님보다 한 수 위였던 것 같다.

오십 중반 줄에 들어선 아들 스님의 효도에 칠십이 넘은 어머니는 이번에도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아들은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 어머니께 올렸다. 어머니는 스님 아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기가 불편했다. 며칠이 지나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아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기쁨을 빼앗는 것 같아 아들도 더 이상 우기지 않고 어머니가 지어주는 밥을 먹었다. 3개월 동안 시장에 함께 가서 장도 보고 목욕탕도 모셔다 드렸다. 고향 가까운 절에 가서 함께 절도 올리고 바닷가로 드라이브도 나갔다. 일찍 지아비를 보내고 장성한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 살아 홀로 살던 어머니는 한겨울 내내 얼굴에서 웃음꽃이 지지 않았다. 모처럼 친구들에게 아들 스님 자랑도 했다.

"어머니가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비로소 마음의 빚을 덜었죠."

다시 십 년 후, 스님은 지난 해 여든여섯의 어머니와 영원히 작별했다. 눈감기 하루 전, 중환자실에서 1인 병실로 옮겨 혼수상태로 계시던 어머니는 아들 스님의 방문을 받고 '괜찮으세요' 묻는 소리에 기다렸다는 듯 눈을 번쩍 떴다.

"별 일 없죠? 지금 가셔도 되겠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어머니께 〈원각경〉 '보안보살장' 을 읽어드렸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편안한 모습으로 아들의 법문을 들었다. 그리고 아들이 부르는 아미타불 염불을 마음속으로 따라 불렀다. 그렇게 두어 시간이 흘렀다. 이번에도 아들이 먼저 일어났다. "저 갑니다.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아미타불을 부르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과 이별한 어머니는 다음 날 새벽에 눈을 감았다. 월암 스님은 어머니의 49재 날, '어머니의 독백' 이라는 제목의 시를 지어 영전에 올렸다.

도통골에서 자라나 가마골로 시집갔다. 아들 셋 낳았다고 칭찬들을 때는 몰랐네.

늘그막에는 딸이 보배라는 것을. 큰아들 학교 입학해서 백점 맞아왔을 때 처음으로 신랑에게 큰 소리 한 번 쳤다. 못 배운 애미 뱃속에서 백 점 짜리 나왔다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디 공부 잘해 판사 되고 검사 되소. 이 애미도 어디 한번 호강하고 살아보게. 욕심이 과하면 동토가 난다더니 큰아들 출가하고 남편마저 가출하니 남은 것은 철부지 어린 것들. 여기저기 귓속말 들려온다. 저 집 아들 중질 갔단다.

집 나간 두 남자, 그리고 집에 남은 두 남자. 구멍 뚫린 가슴 모진 바람 지나간다.

부모 복 없으면 남편 복 없다고 어디 자식 복 있겠냐만. 그래도 우리 시님 법회 온다 소식이 있어 뒷자리 숨어 난생 처음 법문을 듣고 보니, 이제사 알겠다 이미 뱃속에서 부처가 나온 것을.

어쩌랴, 기쁨도 잠시 중생심이 발동하니 니 혼자 부처되면 뭐 하노. 자식은 애미를 버릴 생각이 있지만 애미는 자식을 버릴 마음이 없다는데 한 자식 출가하면 구족이 승천한다고 어디 한번 묻어갈 수 있는지.

다음 생엔 절대로 중 엄마 되지 마소. 차라리 중이 되고 말지.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 이토록 절절한 시를 올린 스님에게 어머니는 어떤 의미였을까.

"내가 세상에 나오도록 몸을 빌려주신 분이죠. 못난 이 중생을 인도하려고 보살의 화현으로 오셨는지도 모르죠."

중생제도를 위해 한생을 보냈는데 어머니를 제도했을까? "내가 제도한 바도 없고 어머니도 제도 받을 분도 아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길을 가셨고 저는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냥."

법문을 할 때마다 쩌렁쩌렁 큰 소리로 '지금 그대들의 본래면목은 안녕하시냐' 고 묻는 월암 스님에게 이 시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예요. 항상 자리이타가 몸에 배어 있는 대승보살이어야 합니다. 명예나 돈, 출세 등의 허상을 강요하는 자식교육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인간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사 제행무상이 아닌 것이 없으나 동서고금, 시대를 막론하고 어머니의 대승보살 역할은 변함없을 것 같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중심사상 쉽게 설한 '법화 7유'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③ 일곱 가지 비유

〈법화경〉에는 경전의 중심사상을 쉽게 설한 일곱 개의 비유 설법, '법화 7유'가 있다.

1. 화택유(火宅喩)는 제3 비유품에 설해진 내용으로 불난 집에 노는 아이들을 아버지가 구해내는 이야기이다. 철없는 아이들이 집에 불이 났는데도 놀이에 빠져 위험을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 양거(羊車), 녹거(鹿車), 우거(牛車)의 수레가 있다고 아이들을 달래 불난 집에서 나오게 하는 이야기이다. 아이들이 문밖으로 나왔을 때 큰 흰 소가 끄는 수레, 대백우거(大白牛車)가 있었다. 여기서 아이들은 중생들을 말하고 아버지는 부처님이다. 양거, 녹거, 우거는 성문, 연각, 보살의 삼승에 비유한 것이고 대백우거는 일불승에 비유한 것이다.

2. 궁자유(窮子喩)는 제4 신해품에 나오는 이야기다. 난리 통에 부모를 잃고 집을 나가 객지에서 걸식 행각을 하던 아들이 우연히 아버지의 집에 찾아와 구걸을 하다가 아버지의 눈에 띄게 된다. 아들을 잃고 근심으로 살아오던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붙들어 가업을 잇게 하고자 하나 아들은 거지의 습성에 길들어져 아버지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간다. 아버지는 사람을 써서 아들을 불러들이고 축사 청소를 시키며 아들의 습성을 조금씩 바꾸어 가업을 물려주는 이야기다.

3. 약초유(藥草喩)는 제5 약초유품에 나오는 이야기다. 구름에서 비가 내릴 때, 비는 어느 땅이나 똑같이 적셔주지만 초목은 뿌리로 빗물을 빨아들여 크게 자라는 것은 크게 자라고 작게 자라는 것은 작게 자란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법은 일미평등(一味平等)하지만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빗물이 초목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법이 중생들을 제도하여 구경성불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화성유(化城喩)는 제7 화성유품에 나오는 이야기다. 지혜로운 한 도사(導師)가 대중을 이끌고 500유순이나 되는 험하고 먼 길을 가게 되었다. 대중들이 300유순쯤에 이르렀을 때 극도로 지친 대중들이 길을 포기하려 하자 도사가 신통을 부려 성을 하나 만든다. 도사는 대중들에게 성에 들어가면 편히 쉴 수 있다고 달래 대중을 성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때 지쳐있던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성에 들어가 피로를 풀고 휴식을 즐긴다. 이때 도사는 다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대들은 따라오라. 보물 있는 곳이 가까우니라. 지금 쉬었던 큰 성은 내가 그대들을 위해 방편으로 만든 것이니라." 이렇게 하여 대중을 다시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는 이야기이다.

5. 계주유(繫珠喩)는 제8 오백제자수기품에 나오는 이야기다. 가난하고 궁핍한 친구에게 부유한 친구가 값나가는 구슬을 옷깃 속에 넣어 주었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궁핍한 친구는 부유한 친구가 구슬을 걸어주고 갔는데도 그 사실을 모른다. 외지로 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하며 지내다가 나중에 무가보주(無價寶珠)가 자기 옷 속에 있은 줄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중생의 불성에 무한한 지혜가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무명 번뇌에 시달리고 살고 있음을 풍자한 비유이다.

6. 왕계유(王髻喩)는 제14 안락행품에 있는 이야기이다. 전쟁에 나아가 공을 세운 장수에게 왕이 땅이나 보물 등을 상으로 하사할 수 있으나 왕을 상징하는 상투 속에 있는 구슬은 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는 〈법화경〉의 가치를 왕의 상투 속의 구슬에 비유한 이야기다. 부처님이 권교의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여 열반에 이르게 하였지만 여래의 으뜸가는 법인 〈법화경〉을 설하지 않다가 이제야 비로소 설하게 된 것이 왕이 상투 속의 구슬을 내어준 것과 같다는 것이다.

7. 의사유(醫師喩)는 제16 여래수량품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의사인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집에 있던 아들들이 독약을 잘못 마셔 괴로워하였다. 의사인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해독하는 양약을 주었으나 아이들이 본심을 잃어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다시 집을 나가서 아이들을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아버지가 죽었다.' 고 거짓말을 하게 하자 이 말을 들은 아들들이 충격을 받고 본심을 찾아 양약을 먹어 병이 낫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의사인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아들들은 중생들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惡 행하지 말고 善 행하는 것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③ 계율의 종류

한 개인이 불자가 된다는 것은 불교교단(佛敎敎團)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불교교단의 구성원인 불자가 지켜야 하는 계에는 율의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교교단의 구성원은 크게 재가자(在家者)와 출가자(出家者)로 나뉘며, 이에 따라 재가계(在家戒)와 출가계(出家戒)라는 명칭이 붙여진다. 당연히 출가공동체 생활을 하는 출가자가 지켜야 할 생활규범이 세속 생활을 하는 재가자의 생활규범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재가계는 재가자의 성별에 따라 우바새계(優婆塞戒)와 우바이계(優婆夷戒)로 나뉘는데, 이는 남성 신자인 우바새(優婆塞)와 여성 신자인 우바이(優婆夷)가 지켜야 하는 계이다.

출가계는 사미계(沙彌戒), 사미니계(沙彌尼戒), 식차마나계(式叉摩那戒), 비구계(比丘戒), 비구니계(比丘尼戒) 등으로 세분된다. 사미계와 사미니계는 사미(沙彌)와 사미니(沙彌尼)가 지켜야 하는 계이다. 예전에는 20세 이전의 소년 · 소녀 출가자를 사미 · 사미니라고 했지만, 지금은 구족계를 받기 이전의 출가자를 가리킨다. 식차마나계는 식차마나(式叉摩那), 즉 출가는 했지만 비구니계를 받지 않은 기혼 여성 출가자가 최소한 2년 동안 지켜야 하는 계이다. 그 이유는 결혼했던 사람은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임신했다면 출산해서 갓난아이를 키우는 데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비구계와 비구니계는 남성 출가자인 비구(比丘)와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比丘尼)가 지켜야 하는 계이다. 특히 비구계와 비구니계는 정식으로 완비된 것이라는 의미가 붙여져서 구족계(具足戒)라고도 부른다. 이처럼 일곱 부류의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계를 칠중계(七衆戒)라고 한다.

칠중계는 불교교단의 구성원에게 부여된 일종의 종교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재가자인 우바새와 우바이는 오계(五戒)와 팔재계(八齋戒)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사미와 사미니는 십계(十戒)를, 식차마나는 육법계(六法戒)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구와 비구니는 각각 이백오십계(二百五十戒)와 삼백사십팔계(三百四十八戒)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비구계와 비구니계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비구와 비구니가 다른 구성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초기불교 이래 부파불교에 이르기까지의 전통적 승가(僧伽)를 말할 때는 구족계를 받은 출가자인 비구와 비구니만을 가리켜 왔다.

이런 의무가 불교교단의 구성원에게 부여된 것은 우선 악을 행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이다. 이를 지악계(止惡戒)라고 하며, 율의(律儀)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 불자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설령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멈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악행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을 장려하는 것을 작지계(作持戒), 또는 작선계(作善戒)라고 한다. 이처럼 초기불교나 부파불교에서의 계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초기불교나 부파불교에서 설하는 계를 성문계(聲聞戒) 또는 소승계(小乘戒)로 부르면서 비판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기보다 보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자리행(自利行)뿐만 아니라 이타행(利他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보살을 이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대승불교 경전에 설해진 대승계(大乘戒)는 대승보살이 실천해야만 하는 종교적 의무일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③ 스바얌바라(신랑간택시험)

특정 계층 남자 시험치고 결혼

석가모니 붓다의 일생을 그린 본격적인 전기(傳記)들은 대부분 꽤 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대략 잡아 불멸 후 8~9백 년 이후에나 작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전기들의 내용이 모두 석가모니 당시의 사건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같은 전기의 내용 가운데에는 꽤나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는데, 특히 싯다르타의 결혼 장면 등이 그렇다.

전기에 다르면, 싯다르타는 일정한 시험을 치러서 결혼하게 된다. 이 특별한 결혼 시험을 스바얌바라(svayaṃvara)라고 부르는데, 이는 고대 인도 문학 속에서 빈번하게 그려지던 결혼의 한 가지 형태였다. 실제 싯다르타가 그러한 결혼을 치렀는가 하는 의문과는 별개로 스바얌바라라는 형태의 결혼이 당시에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된다.

스바얌바라는 신부 측이 신랑을 선택하는 결혼 형태이다. 신부의 아버지가 일정한 시험문제를 내어 공표하면, 결혼을 원하는 신랑감들이 그 시험에 참가하여 서로 경합하고, 최종 승리한 사람이 신부의 꽃다발을 받고 신랑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결혼방식이 본래부터 인도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고대 인도 유럽피언 문명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동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시험문제는 대체로 무예의 기량을 겨루는 것이었는데 활쏘기나 마차경주, 검술, 또는 씨름 등과 같은 무예 종목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석가모니의 후대 전기는 수학 등과 같은 과목도 이 신랑간택시험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것은 확실히 후대에 꾸며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어떻든, 이 시험을 통해서 신부의 아버지는 신랑감을 고르게 되고, 시험에 통과한 남자 가운데 한 명을 신부가 선택하게 된다. 본래 스바얌바라라는 말뜻은 '스스로 선택' 한다는 뜻이다. 당연히 신부가 신랑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붓다 전기에 따르면, 공주 고빠(Gopa)는 이 스바얌바라를 통해 싯다르타를 신랑감으로 선택한다. 물론 싯다르타가 또 다른 부인인 야소다라와 결혼할 때 이 시험을 치렀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결혼 방식이 언제 인도 땅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리그베다에 그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볼 때, 불교 이전부터 유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 같은 고대 인도의 서사시에서도 이러한 결혼형태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그 주인공들은 싯다르타처럼 거의 대부분 왕자이며, 신부들은 신랑간택시험을 통해 이들을 신랑으로 선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혼 형태는 후대의 고대 바라문교의 율법서인 다르마샤스트라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 힌두교의 정형화된 율법서에는 일곱 가지의 결혼방식이 설명되어 있지만, 여기에 스바얌바라는 없다. 즉 일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통의 결혼방식이 아닌 것이다.

스바얌바라는 일반적인 결혼 형태가 아니라, 특정한 계층 즉 크샤트리야 계급 중에서도 왕족에게만 가능했던 결혼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신부측 아버지는 널리 신랑 후보들에게 시험을 알리고 그들을 초대했을 것이다. 성대한 잔치를 벌여 이들을 대접하고 그 신랑후보들 앞에 신부를 소개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랑 후보들은 예고된 기예를 펼쳐 보이거나, 또 때로는 무예로 경합을 벌여 승리자를 가리기도 했을 것이다. 신부는 그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 꽃다발을 걸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한다. 당연히 이러한 축제 형태의 신랑시험은 왕가의 재력과 권위가 없다면 거의 불가능한 결혼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혼 방식이 다분히 동화 속에 나오는 신화적 표현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고대 인도의 역사적 기록 속에도 등장한다. 인도 구자라트 주에는 2세기경의 왕이었던 루드라다만이 이 시험을 치렀던 기록이 비문에 남아있다. 루드라다만 왕은 스바얌바라를 통해 여러 공주들로부터 많은 꽃다발을 받았노라고 적고 있다. 비록 이 기록이 붓다의 시대에서 한참 뒤의 일이기는 해도 붓다가 출가 이전에 스바얌바라를 통해 결혼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싯다르타가 왕자라는 가정 하에서 말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원난방산업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25호 | 17 | 전면광고

불자여!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만약
사람이 나의 법을 믿어서 허물을 뉘우치고
깨달으면 크고 작은 죄가 그 자리에서
녹아 없어지고 착한 길로 향하게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자비도량참법》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 조 불 교 재 활 용 센 타
010-9177-7842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충북 감곡 봉은사 공양주 모십니다
60세이상 가족같이 지내실분
봉은사에서는 스님분들 염불, 음치교정, 전통가요, 민요, 관음시식, 체계적으로 강의
문의 010-5883-2255
010-5223-3705

★검 색★
GP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행자승 50세 이하, 비구스님 모십니다.
포항 원진사
010-3517-609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돈이 들어오는 건강·행운 비법공개
◈ 치우천왕 빨간속옷 ◈
선물 건강·성공·행운 "특수비법 책"
다음카페 : 치우천왕 정담 검색 농협 352-0796-0696-03 남여:3만원
문의 : 010-4500-8234 (정담)

희망소식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우울증, 공황장애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 되는 병
기공, 퇴마, 천도 미륵사 주지 청원
010-3111-9056

깜짝 놀랄
특수한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명 리 · 육 효 강 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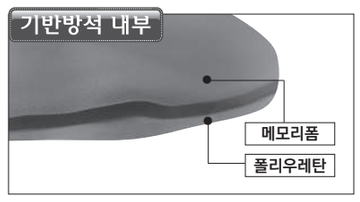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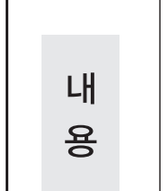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25호 | 18 | 전면광고

지혜로운 사람은 나쁜 말을 버리고 바른말을
항상 즐기어 쓰나니 그러한 아름다운 말을
쓰는 사람은 곧 열반을 얻으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정법염처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건평 : 100평,외
◎ 시내중심,공원옆,주차가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도
◎ 대지 : 200평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9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입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 최고의 명당, 백두대간 끝자락, 호수전망 최고, 버스 앞마당까지 진입
- 대지1500평, 개발예정지4000평, 개발된것1500평, 건물 36평 2동, 8평 1동 콘테이너 8평

010-4752-0459
010-4492-34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서창
- 대지 200평, 자연녹지 약 930평, 건평 120평 3층, 부속건물 약 20평
- 용왕당, 산신각, 넓은주차장
- 경전철 역세권
- 가액 : 22억중 대출 9억

010-4492-347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 땅값만 받습니다
- 총 530평, 현재 성업 중
- 법당, 요사채, 공양간, 휴게실, 삼층석탑, 석등 등, 부산 울산간 지하철 역과 5분거리
- 가액 : 6억 2천만원, 스님 직접

010-2702-03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 1층 : 93.3725㎡(방음시공)
- 법당, 방1, 공양실
- 보증금 1000만 / 월 61만
- 권리금 2800만원

010-8752-9477
010-9459-94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783-2번지
- 대지110평, 전354평
- 가격 절충
- 심명암 심오 합장

010-3340-6537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55평 ● 요사: 75평
- 대지: 500평 ● 임야: 4천평
-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0023

토 지 안 내

- 위치 :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 절터적합, 남향, 긴동굴 있음, 계곡접합
- 총17,470평, 전900평, 산16,570평
- 가액 5억5천만원
- 상담환영

010-3618-6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멋진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인근
- 대지 : 약 717평방(약 217평)
- (멋진 2층건물 1층 방5개 기도처) (2층 방3개, 거실, 주방, 밖 휴게공간) 마당, 잔디, 조경좋음 주차공간 확보
-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찰(급)안내

- 위치: 전주시내 정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 전주시 전경 한눈에, 이성계 기도처 ●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년세 10만원) ● 법당(요사채 최신형), 극락전(목조신축) ● 가액 : 5억5천만(대출 2억5천만, 추가대출 가능) ● 조건 : 양도시 모든석불, 석탑 포함(석불 1억5천 조성) ● 납골당 설치됨, 시내중심, 대나무 울창, 편백나무 3천그루 ● 1억5천만원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 잔금 1억5천만원 5년간 분할납부 ● 용왕전 약수터 2억 토목공사중

010-9647-0723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세종시 상가안내

◈ 사찰·토지·임야와 교환도 가능 ◈
정부청사앞 인기 급상승자리
7층(E/V有) 분양138.6㎡
가액 6억(절충가)
융자1억8500, 실가액4억
현재 레스토랑 운영중
(보2천-월138임대중 23년만기)
업종변경가능·임대업최적·투자가치최상급
시세대비저렴함·주인 직거래

010-6892-399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 기사제보 |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장(지사명)	연락처
손문철 (대구지사)	T 053-768-8008 H 010-2813-8008
이도경 (부산지사)	T 051-405-9402 H 010-5640-888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T 062-512-5003 H 010-2629-1508
조동제 (전북지사)	T 063-910-8977 H 010-8642-7733
성낙두 (경남지사)	T 051-512-1761 H 010-3860-7008
박영애 (영주지국)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5불4보살로 구성된 팔엽원

팔엽원 만다라는 5불 4보살로 구성된다. 중앙의 마하 바이로짜나, 동방의 보당여래, 남방의 개부화왕여래, 서방의 무량수여래, 천고뇌음여래 등 5불과 동남간의 보현보살, 남서간의 문수사리보살, 서북간의 관자재보살, 북동간의 미륵보살 등 4보살로 이루어져 있다.

팔엽원으로 자기 마음(自心)을 아는 수행법을 하면 효과적이다. 자심을 알려면 삼구심(三句心, 원인, 근, 구경)을 먼저 갖춰야 한다.

첫째, 보리심을 원인으로 자심을 알자. 보리심이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할 마음을 드러낸다. 동의어로는 실담범자로 아누다라삼약 삼보디 찌따라 하고, 한역으로는 무상정등각심(無上正等覺心)이라 한다. 둘째, 대비심을 근본으로 자심을 알자. 대비심은 불보살이 일체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한다. 비(悲)를 까루나라 하는데 까(ka)는 고통이라는 뜻이며, 루나는 제거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을 비심이라 한다. 방편심으로 구경을 이루게 됐을 때 자심(自心)을 알게 된다.

방편심은 반야바라밀다 즉 진실한 지혜와는 대칭되는 말이며, 방편의 지혜로서 평등하고 진실한 지혜에 의해 드러나는 다양한 차별을 관조하는 것을 말한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② 시각장애인 김동원 씨

삶 속 장애, 정도의 차이일 뿐

혹한에 폭설이 내리는 저녁, 시각장애인 동원 씨의 전화를 받았다. "천안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 서울에도 눈이 많이 오느냐"는 안부전화다. 마침 회원들의 소식이 두루 궁금하던 차였기에, 더없이 반가운 목소리였다. 동원 씨는 서울의 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안마 창업반 공부를 하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복지관이 문을 닫는 바람에 천안의 집에 내려가 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날이 추워지면 시야가 더욱 흐려져서 밖에 나가지 못하니, 김이 서리지 않는 스키안경을 개조해서라도 쓰고 다녀야겠다"며 농담처럼 덧붙인 말에 가슴이 짠해졌다.

불심 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동원 씨는 늘 남을 먼저 배려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늘 솔선수범으로 행동하는 분이다. 장애회원들을 돕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은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회지만, 장애인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곤 한다.

동원씨가 가장 좋아하는 경구는 〈금강경〉 사구게 중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이다.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어느 것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하여 그 마음을 일으키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동원씨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 이 경구가 삶의 지침이 되고 있음을 자연히 알 수 있다.

동원 씨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진행형 시각장애인이다, 근래 들어 청각도 좋질 않아 보청기를 끼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뇌종양 수술을 받으면서 마비성 사시가 됐다고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덕전문대 공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4년제 대학에 편입해 공부를 시작했지만,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서 공부를 포기 할 수밖에 없었다. 디자인은 시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고민 끝에 요리학원 다니면서 한식조리기능사 취득과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다시 뇌종양의 발병과 수술, 그리고 녹내장이 발생하여 다시 뇌종양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힘든 시기인만큼 동원씨는 "부처님 품 안이 참 소중했다"고 말한다.

동원 씨는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집에서 1년간 쉬다가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녹내장으로 인해 시야가 더 좁아지고 시력도 급격히 나빠져서 식당일을 그만 두고 나서 바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동원 씨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은 당연히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것으로 여긴다"면서 "전맹인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저시력인 사람도 시각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감을 알고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다.

동원 씨는 시각장애인의 판정을 받을 즈음, 아는 분의 소개로 보리수아래와 인연을 맺었다. 동원 씨와 보리수아래의 인연이 깊어질수록, 마흔의 문턱에 선 그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하는 고민도 깊어졌다.

시각장애인들의 대표적 직업인 안마사에 생각이 이르러 맹학교 고등부과정에 들어가 점자도 배우고 안마를 배우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했다. 전문대 졸업 후 나름의 꿈을 갖고 편입해 다니던 4년제 대학을 포기한 동원 씨에게, 맹학교 입학을 권유하는 것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나의 말을 들은 동원 씨는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자신이 직접 문의해 2017년에 청주 맹학교에 입학했다. 이료재활전공과 1 · 2년 과정을 다니면서 방과 후 수업으로 바리스타 공부도 겸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2019년 졸업과 동시에 국가공인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금은 서울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안마 창업반에서 발마사지, 근육학, 활법, 카이로프랙틱, 침법 등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수료를 앞두고 있다.



시낭송가 엄경숙(사진 왼쪽)씨의 도움으로 시낭송을 하고 있는 김동원 씨.

동원 씨가 학교를 다닌 지 1년 쯤 되었을 때에는 마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육조단경〉 등 점자경전을 기증받아 동원 씨에게도 몇 권을 전했다. 그는 "점자 불교경전이 없어 학생들에게 주고 싶어도 못줬다"며 더 요청해 왔다.

사실 장애인 불자포교를 위해서는 사찰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기반 지원도 중요하다. 사찰소개나 템플스테이 안내문, 기본불교의식집 등을 점자로 제작해 필요한 곳에 1권씩이라도 비치해 놓는다면 시각장애인 불자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인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생담〉 〈백유경〉과 같이 재밌고 쉬운 경전이야기를 점자책으로 만들어 전국의 맹학교 도서관, 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에 비치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소량의 제작으로도 충분하다. 시각장애인들이 도서관에서 동화책처럼, 격언집처럼 읽는다면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체의 일부가 불편할 뿐이지 그 외엔 비장애인과 다를 게 없다"는 동원씨의 말은 곧 "착실히 수행하면 아나율과 주리반특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 스님께서 앞에서 이끌어주고 비장애불자들이 뒤에서 밀어준다면 이들의 신행생활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❷ 바이런 케이티의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 한줄 요약
내면 목소리 들어야 진짜 삶.

'생각 허구성' 무너진 자리에 드러난 실상



바이런 케이티는…

〈타임〉지가 '새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손꼽은 바이런 케이티는, 이혼 후 피해망상증과 우울증,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좌절에 시달리다가 요양원에 들어가 지내던 어느 날 기적과도 같은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생각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고정관념과 편견, 선입견이 저절로 해체되는 과정을 그는 스스로 '작업(The Work)'이라고 불렀고, 수많은 이들이 그와 함께 하는 '작업'을 통해 깨어났다. 지은 책으로는 〈네 가지 질문〉, 노자 도덕경을 창조적으로 해설한 〈기쁨의 천 가지 이름〉, 금강경 해설서인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 등이 있다.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세상이다. 사기꾼은 피해자들의 감정을 조종할 줄 아는 고도의 심리학자들이다. 수준 이상의 지성을 갖추었다고 하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 거액을 사기당하고 땅을 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 순간 무엇에 홀린 듯이' 분별력을 상실했다고 말한다. 속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 사기꾼이란 결국 피해자들의 욕심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다.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들은 결국 자기 욕심에 걸려 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자기 돈을 지키려는 욕심, 자기 돈을 더 불리려는 욕심이 없다면, 누가 어떤 수작을 부리더라도 넘어갈 리 만무하다.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욕심과 두려움을 잘 알아서 여기에 길이 있다고 꼬드기고, 경계의 끈을 늦추도록 사람을 여러 모로 안심시키기도 하고 자존심을 한껏 높여 주어 우쭐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사기꾼들만이 덫을 놓고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덫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여기저기 널려 있다. 때로는 덫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용케 피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삶이라는 여정을 헤쳐 나아간다. 덫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삶이 자기를 속였다' 고 하고, '운명에 걸려 넘어졌다' 고 한다. 과연 그런 것일까? 실패를 경험한 많은 이들은 푸시킨의 다음과 같은 경구에 많은 위안을 받는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그러나 널리 회자되어 온 이 경구는 과연 진실일까?

우리를 속이는 것은 삶이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려는 우리의 욕심이다. 삶이 우리를 속였다고 탓하는 것은, 벽에 부딪혔다고 벽을 탓하는 어린아이와도 같다. 우리 자신이 깨어 있지 못하여 넘어진 것뿐이다.

바이런 케이티의 네 가지 질문

나의 오감을 채우고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심은, '나' 라는 개체가 그저 얼기설기 인연따라 형성된 거푸집 같은 것임을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개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온갖 작전을 꾀하는 에고의 생각들은 모두가 다 편견이요 고정관념이요 선입견이다.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변하지 않는 실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정된 무엇으로 자기를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을 깨어 부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케이티는 자기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마다 네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제안한다.

1. **그것이 사실인가?**
2.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3. **그런 생각을 믿으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
4.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바이런 케이티가 제안하는 것은 '생각의 가지치기' 이고, '생각의 외과수술' 이다. 어떤 생각이 우리를 쓸데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지 그 생각에 물음표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게 된다.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아니라 '생각에 덧입혀지는 집착' 이고,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집착을 집착으로 바라보게 하는 '집착과의 거리두기' 일 것이다. "그 생각이 과연 사실인가?"라는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GPS(범지구 위치결정 시스템)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나 자신의 생각과 '거리두기' 를 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 세상과 '거리두기' 를 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실상에 눈을 뜨는 첫걸음을 떼게 된다.

> **개체는 인연따라 형성된 거푸집**
> **에고의 생각은 편견이요 선입견**
> **자신 목소리 선 깊은 울림 존재**

'내 생각이 과연 사실인지'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스스로 지어내는 '이야기' 일 뿐이라는 자각에 몸서리치게 된다. "우리 모두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내기 일쑤이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꾸며낸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의 대상은 진정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가 자기 식으로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자기 식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맛보고 느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나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왜 우리는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할까? 왜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게 이런 것을 해주어야 한다고 의무감을 지우는 것일까? 배우자에게 의무감의 족쇄를 채우지 않는다면, 배우자로 하여금 훨훨 자유를 숨쉬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케이티는 "마음에 맞는 짝을 구하든 말든, 파트너의 상태가 어떻든, 그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허기증의 반영이다. 자신이 자신을 채울 수 있을 뿐, 어느 누구도 '나' 를 대신하여 채워 줄 수 없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끊임없이 부모, 혹은 자식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저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안으로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그 실현 정도에 따라 나의 행복이 좌우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각자 자기 인생을 살도록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

케이티는 '엄마 새가 어떻게 새끼 새들을 둥지에서 끌어내는지 아느냐?' 고 묻는다. 엄마 새는 새끼들에게 "사랑한다, 얘들아. 훨훨 날아가거라."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엄마 아빠들은 "사랑한다, 얘들아. 안전한 둥지 안에 오래 오래 있으렴."하고 잡아두기 일쑤라는 것이다. 무엇이 진실한 사랑인지는 자명하지 않는가? 케이티는 말한다. "아이에게 그 아이 자신의 삶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 아이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안다고 여기는 순간,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케이티는,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 좋아하는 풀을 뜯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일과 돈, 성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고 외치는 동기부여 책들이 많고 그렇게 믿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많지만, 진정한 자유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버리려고 애쓴다고 해서 버려지는 법은 거의 없다. 무엇을 욕심내고 있는지, 그 '무엇' 과 '욕심' 의 실상을 알아서 그것들의 '텅 빈'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저절로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케이티는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에 대해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한다. 집이나 차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나 차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멋진 차야.' '주행 성능이 최고야.' '이렇게 낡은 차를 타고 다니다니, 창피해.'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달리 볼걸?'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 문제일 뿐, 차의 소유 여부나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들에 매여 사는 것은 스스로를 형편없이 축소 왜곡시키는 짓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고 자기를 충동질하고 부추겨서 끊임없이 위치 이동을 꾀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이 헛된 가치관에서 나온 것임을 질문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

가짜를 가짜로, 헛된 것을 헛된 것으로 알아차리고 난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 배우자나 자식이 내가 바라는 만큼 해주지 않아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의 기대와 욕구 때문에 실망한 것임을 깨닫고 난 후, 그래서 내 생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게 되면 그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

가짜의 내가 사라지고 없는 그 자리는 결코 텅 빈 공허의 지대가 아니다. 가짜의 옷을 벗은 그 자리에는 실상이 비로소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케이티는 말한다.

"우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심지어 인간도 아닙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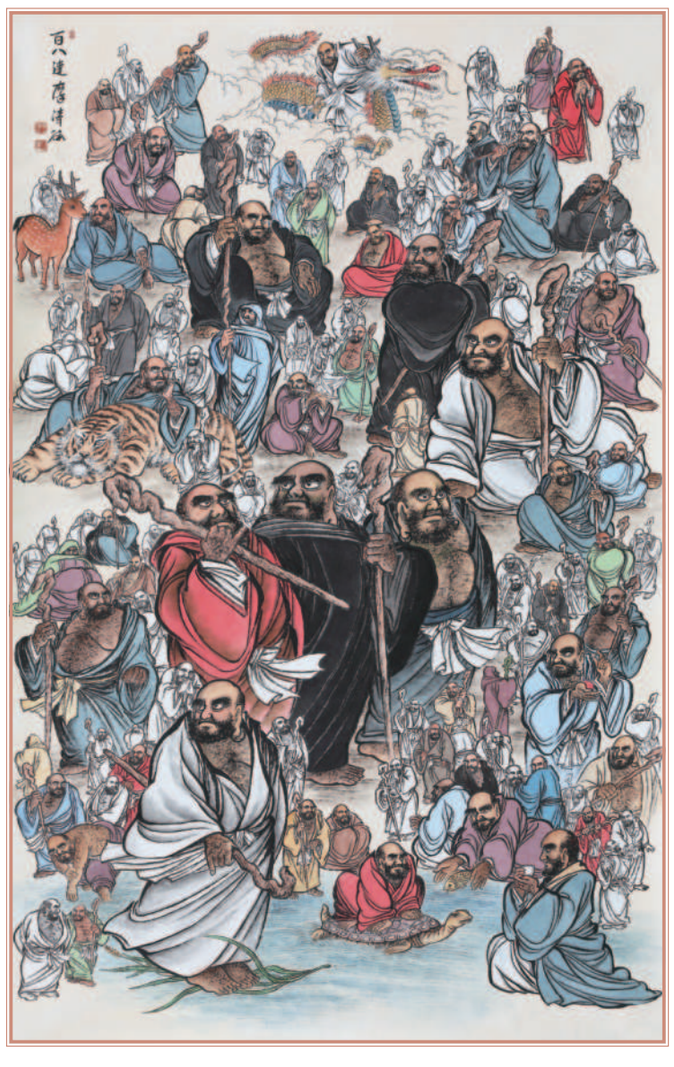
"'지어낸 이야기' 라는 여과장치를 버리면, 당신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듣기 시작하고, 저마다 다 놀라울 정도로 멋진 방법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면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깊은 울림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 울림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결코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108가지 모습의
"달마" 대사께서
108가지의
번뇌를 물리쳐 줍니다.

번뇌는 원래 10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달마가 108가지의 모습으로 108가지의
번뇌를 물리쳐 줍니다.

달마는 부처님으로 부터 28대 조사가 되는 분으로 인도의 불교를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되는 분이다. 양나라의 무제와 결별하고 갈대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에 은거하며 9년 동안의 면벽좌선으로 크게 깨우침을 얻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고 중국선종을 크게 부흥시키신 분이시다.

주문 :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달마의 모습은 원래 왕자로 태어나서 귀하고 잘생긴 모습이였으나 어느날 한마을을 지나다가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고 마을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근원을 찾아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죽어 썩어가고 있는데 달마가 자기 육신을 벗어 놓고 뱀 속으로 들어가 뱀의 몸을 움직여 깊은 바다속에 버리고 돌아와 보니 그새 험상궂게 생긴 신선이 지나다가 달마의 몸을 발견하고 자기몸을 벗어 놓고 달마의 몸을 가지고 가버린 것이다. 하는 수 없이 그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달마의 모습인 것이다.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총무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으로 한점한점마다 수호신이되어 집안을 지켜 줄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의 평화와 가족의 건강 등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하게 할것입니다.



•그림규격 : 75x140Cm •족자규격 : 85x175Cm
•가격 : 300,000원
•그림규격 : 44x75Cm •족자규격 : 54x120Cm
•가격 : 100,000원
• 2점 동시 구입시 390,000원



▣ 수강생 모집 – 장소 : 인사동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을 배우고 싶은 분은 마하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도, 풍속화, 산수화, 동자승 등을 지도 합니다.



대행 스님

모르든 알든 그냥 무조건 믿어보세요, 자기를 이끌어가는 자기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우리 마음은 얼마나 큰가. 허허, 헤아릴 수가 없이 크죠. 마음이라는 그건 말로 헤아릴 수 없이 크죠. 그러나 말로 헤아릴 수 없이 작기도 하답니다. 그러니 일체 허공의 생명들의 마음이나 산하대지의 생명들의 마음이나 마음을 한데 합쳐서 좁쌀 알갱이에다가 전부 넣어도 손색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꺼내서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다 풀어 놔도, 좁쌀 알갱이에서 다 꺼내서 풀어 놔도 손색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광대하고 무변한 도립니다. 이런데 생활에서 좀 굴려서 쓰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그 마음 하나를 딱딱 굴릴 줄 몰라서 그냥 벌어지는 일 다 벌어지게 하고 죽을 맛이 나 가지곤 죽겠느니 살겠느니 한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 앞에 봉투를 갖다 놓고 "스님!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말씀할 적마다 아이, 참내! 앞에 봉투를 안 갖다 놔도 될 수 있는데 봉투를 갖다 놓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여건이 있죠. 하나는 보시금이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쓰는 거 아끼지 않고 다만 얼마라도 갖다 놓는 거, 자기는 정성의 마음으로서 갖다 놓는 거. 그건 하늘이 다 아는 얘기니깐 내가 주제넘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갖다 놓고 안 갖다 놓는 걸. 거기 갖다 놨을 때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는 나를 갖다 준 것도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은 내게 가져다 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게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부처에 갖다 놓은 겁니다. 모습이 둘이 아니요, 와서 나를 만날 때는 자기 모습과 내 모습이, 자기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불이 켜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이 아닌 한마음에 갖다 놓은 거지, 부처님한테 갖다 놓은 거지, 우리 모습 육신 잘 살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부처님, 스승에 의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잘 구석구석에 써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 주니까, 써 주니까 그 돈을 갖다 놓은 사람들은 그 인연으로 인해서, 그 정성으로 인해서, 그 실천으로 인해서 모두 부모의 조상도 갇혀 있던 게 풀려나게 됩니다. 천차만별의 갈래갈래 모습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그 자체가 그냥 업이죠. 그 속에 들어서 헤어나질 못하고 가지가지 모습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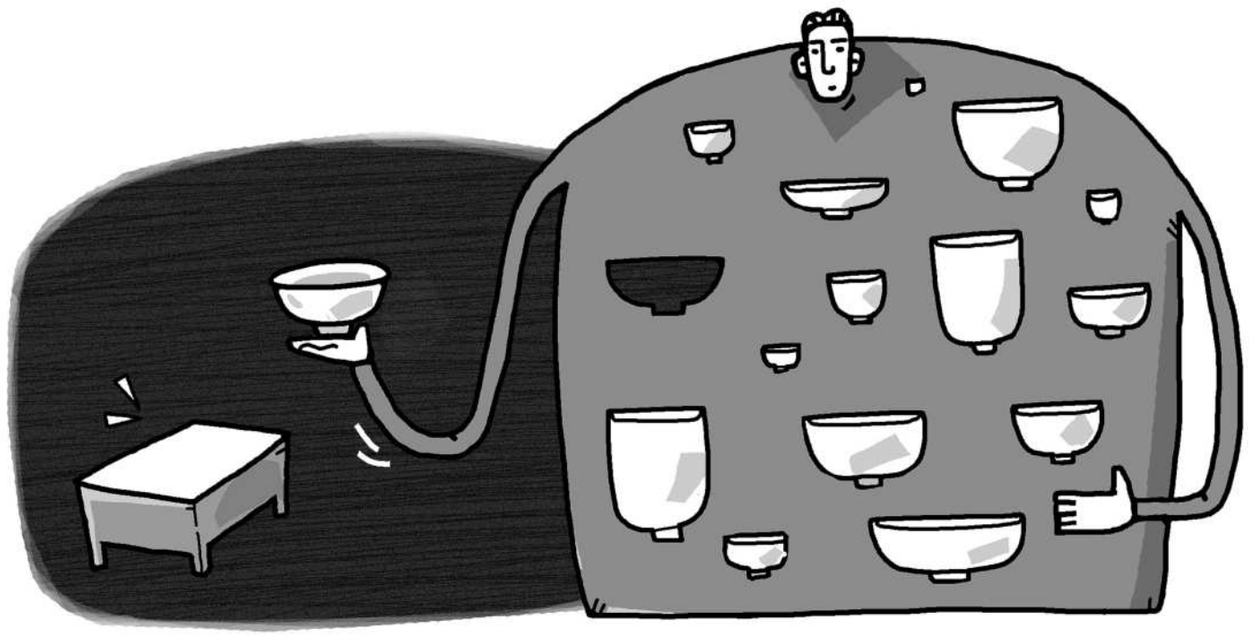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만 극진히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다 은근히 풀려나간다고 그랬는데….

집안에 어떠한 큰일이 있으면, 유전성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건 대대로 내려오면서 유전이거든요. 그렇다면 무거우면 두 손으로 다 들듯이, 한 식구가 다 이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관하고 이럭한다면 한울이, 제불(諸佛)이 껄껄 웃으면서 더불어 같이 한자리 할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자식들도 돈으로만 해결해서 먹이기 잘하고 입히기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거 관하는 것만 일러 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뭐든지 거기에서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깐요. 그러니 보배를 찾아줌과 같죠.

돈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한 번만 잘못되면 그냥 왕창 다 없어져 거지가 돼 버리고 마는 것이 돈이거든요. 그러나 이 보배라는 것은 울궈먹어도 울궈먹어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고 넣어도 넣어도 불어나지 않고 그냥 영원하게 세세생생에 쭉 그 종자가 내려가는 데도 손색이 없다 이런 말이죠.

어휴, 하여튼 보살이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먹는 사람은 먹고 싶은 거를 다 집어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걱정을 안 해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걱정도 아니지만 마음을 좀 툭툭 벗어나 봐라. 좀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어디 좀 그런 그림이라도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산책이라도 좀 해 봐라. 허허. 또 산책을 해 보다 보면 좀 볼거리도 있을 거다. 또 어느 물에도 좀…, 그 괜히 뛰어들어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기걸랑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술잔을 하나 만들었더래요. 그런데 술잔 안에다 자기 영혼을 집어넣었거든요. 허허허.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말이에요, 술을 먹을 만치만 부어서 먹어야지 더 먹는다 하면 술이 부으면 없어져요. 허허. 그러한 잔도 있었더랍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인 영원한 그 마음 자체를, 줄지도 않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마음대로 늘여서 쓰려면 늘여서 쓰고 줄여서 쓰려면 줄여서 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펼쳐서 쓰려면 펼쳐서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허공에 그 생명들의 마음도 포함이 돼 주기 때문에 에너지가 저절로 항구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마음 쓰기에 따라 쓰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즉 말하자면 그걸 끌어 쓰려고 애써서 하나만 끌어서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우리는 만년묵이거든. 난리가 나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이 여기에 만년묵이로 돼 있거든. 여러분의 콤퓨타에 다 들어 있고 그걸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세세생생을 써도 줄지 않는 그런 묵이가 돼 있거든.

이렇게 조금조금 말 못 하는 일들을 그저 대수롭지 않은 데서 힌트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난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급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 그냥 살 양으로 뛰어나가려고 애쓰죠? 그와 같이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인공도 그렇게 부릴 수 있다! 허허, '급하면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급하면 마음으로 늘여서 쓰든 줄여서 쓰든 그냥 점프를 해서 쓰든 그냥 쓸 거다. 허허허, 이해가 갑니까?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이 닦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마음공부 하기가 참 힘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역경, 어려운 경계, 어려운 생활고 그 속에서 자기 마음을 밝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스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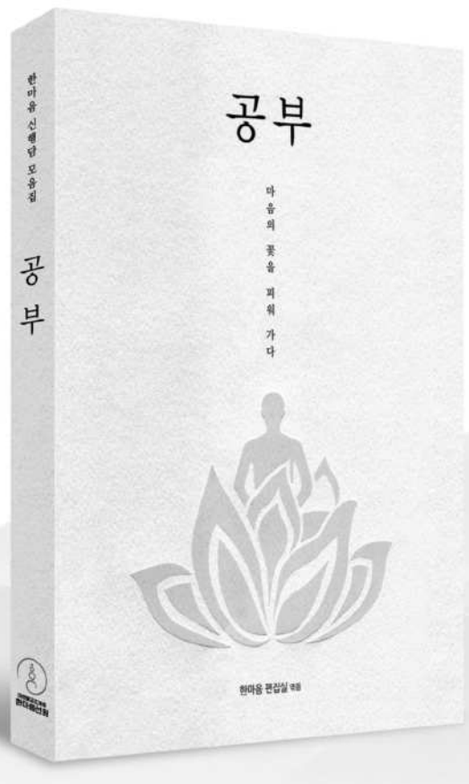
큰스님 공부하는 태도가 말입니다, 사람 사는 게 그 모두 천차만별로 가지가지를 헤아릴 수 없는 생활인데 어떻게 그렇게 귀찮게 갈가리 찢어서 살 수가 있겠소? 그러니깐 공부하는 것도 저 부처님을 보되, 나의 모습을 보되 모든 거를 자기 모습과 둘 아니게 그냥 둥글려서 주인공 하나로 보란 얘기죠. 그렇게 하면 편리할 거를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해서, 예전에 고사를 지내도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이렇게들 모두 공평치 못하게 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어려운 경계가 없으면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도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왜 어려웁게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이거야. 어렵지 않은 처지에서는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지. 그건 왜냐하면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게 아니거든.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하거든. 자기 분수에 맞게 말이야. 인간이 살아나가는 경계에서 분수에 맞게, 우리 한국 나라라는 것도 잊지 말고, 내 가정의 부모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지나온 것도 알아서 내가 분수에 맞게, 그리고 있는 자는 더 검소해야 된다, 익은 자는 더 고개를 수그려야 된다, 허리를 굽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재산이 있다 그래서 마구 사는 사람은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없으나, 있는 사람이 사는 거나 없는 사람이 사는 거나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하고

☞ 22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남의 탓을 하게 되면 그 탓한 것 만큼 진전이 빠르지 못합니다

☞ 21면에서 계속

그 반면에, 나는 내가 안 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좀 어려운 집이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절 짓는 데 보태는 것만 불사가 아니거든.

굶어서 애쓰고, 자식들이 아파서 애쓰고, 부모가 아파서 자식들이 애쓰고, 소년소녀 가장들, 또 자식이 없는 부모들, 노인네들을 볼 때에 지금 남들이 다 해 줘요. 해 주는데 해서 받는 사람은 테레비에 이름난 사람들이나 받지, 창피하고 양심이 있고 어렵고 가장들이 애쓰고 힘들고 노인네가 숨겨져 가지고 그냥 고생하는 사람이 허다히 많거든. 그런 부분을 좀 봐서 함이 없이 도와줘라, 있으면. 없으면 모르겠지만, 없으면 또 마음으로 도와줘라.

넣어도 넣어도 줄지 않는 마음, 그 뭣다 뭘 하느냐 이거야, 응? 마음 한 접시씩 담아서 그냥 벌려라 이거야. 벌려도 벌려도 줄지 않는다 이거야. 그 마음 아꼈다가 뭐 하느냐 이거야. 마음을 아끼느라고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을 가려 가지고 이쁜 사람만 주고 미운 사람을 안 준단 얘기야? 마음을 아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통달을 못 해!

질문자2(남) 스님, 감사합니다.

질문자3(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공부해 온 과정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앉으나 서나 길을 가거나 일을 하거나, 껌을 하나 씹더라도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항상 관하고, 관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항상 스스로 제 마음자리를 계속 지켜보면서 가는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의식적일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항상 스스로 지켜보고 가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평온한데, 그런데 또 제가 일을 할 때나 길을 걷거나 집에 앉았거나 항상 이것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큰스님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 도반들 생각을 한다든지 지원의 스님들 생각을 한다든지, 하여간 마음공부에 관해서만이 자동으로 항상 연결돼 돌아가는데 그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할 때는 일에 전념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안 되고 그냥 한다는 의식 없이 자동으로 그냥 연결되어 돌아가거든요.

큰스님 24시간을 일을 하는데요, 주인공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24시간이 지나서 주인공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게 24시간을 공간을 두고서 띄어졌나요? 그냥 무시(無時)거든, 무시. 그러니까 24시간 뒤에 생각난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24시간이 있지, 24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초월해서 그냥 그 시간에 생각났으면 그 시간에 난 거지 24시간이 왜 거기 붙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24시간이 붙기 이전에 또 관하는 게 생각이 났든 안 났든 그대로 뿌리와 싹이 같이 붙어 있는데 무슨 찾고 안 찾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냥 그대로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 세상에 났으니까 있는 거다. 그러니 그대로 무조건 믿어라. 자기 이외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종자이며 뿌리다, 불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대로 내가 생각이 났든 안 났든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있으니까 믿는 거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뿌리로 인해서 싹이 산다. 가장구와 잎새가 푸르르게 되는 것도 바로 내 뿌리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감사하구나. 봄이 오면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고 하니 참 감사하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갈 거고, 과거에도 그렇게 이끌어 왔을 테고, 참 고맙구나. 이게 그냥 자연적이지 어떻게 없는 거를 끌어다가 찾으려고 하고 없는 거를 끌어다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하는 데도 그 일에 몰두를 하는 것도 바로 주인공을 믿고 찾는 거예요, 그게. 일에 몰두를 했다 해서 주인공을 생각지 않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그렇게 몰두하게 만들었으니까 주인공이 한 거지, 주인공의 시자일 뿐이지, 움죽거리게 했을 뿐이지, 뭐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이 다 하고, 움죽거리는 것이 거기서 움죽거리게 하니까 움죽거리는 거지, 만약에 그 영원한 자기의 근본이 빠진다면 자기는 송장이 되는데 뭐 움죽거릴 게 있어요, 네? 안 그래요? 자기 지금 눈뜨고 이렇게 눈 고갯짓하는 것도 자기 영원한 근본이 살아 있으니깐 그게 있는 거지, 그게 빠지면 송장이 돼서 그냥 눈 감고 있을걸요, 아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눈 하나 뜨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물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바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모두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이 몸을 이렇게 내놓기 위해서, 형성시키기 위해서 지수화풍으로 된 정자 난자를 빌려서, 또 지수화풍에서 낳게 하고 지수화풍을 또 형성케 해서 이렇게 삶의 보람을 가지려고 자기를 형성시켰는데, 주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생산을 했는데 주인이라는 자체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주인이 하고자 하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 껍데기가 자기라고 외치면서 그냥 돌아치니깐 이 속의 주인공, 참자기는 어이가 없을 겁니다, 아마. 어이가 없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번 움죽거리고 살아 볼 양으로 형성시켰는데 핀트가 다르게 자꾸 가니까, 어이가 없을 거예요.

질문자4(남) 큰스님, 견성을 한다는 게 혹시 이런 건 아닌지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에는 "해는 해마다 좋은 해요, 달은 달마다 좋은 달이요, 날은 날마다 좋은 날이니,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법 또한 그러하리다." 이렇게 나와 있기에, 이 나의 실상이라는 게 오직 이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아니, 그렇든 저렇든, 그런 좋은 소리를 하든 안 하든, 집에 가서 배고프다고 "얘! 밥 가져오너라." 이런 소리를 하든 어떻게 됐든 거기서 나오는 소리거든, 그게. 그러니깐 자기를, 한번 가서 색경을 보고 말을 해 보라고요, 누가 하나. 그 모습은 누구며 그 모습 속에 말하는 자는 누군가. 그냥 모르든 알든 그냥 무조건 믿어 버리라니깐, 자기를!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걸 믿어 버리라니깐.

질문자5(여)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많은 보살님 중에 제 자리에 어떤 보살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보살님이 어떤 보살님이냐 하면, 제가 95년도 8월에 부산 한마음선원을 처음 갔었는데 그 법당에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하느냐고 물으니까 잘 가르쳐 준 보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많은 자리 중에 하필이면 그 보살이…, 제가 일어서는데 '내가 거기 가서 앉겠다' 했는데, 그 인연은 무슨 인연이며, 지금의 인연인지 전생의 인연인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처음에 가르쳐 준 인연은 참 기쁘기 한량없고 고맙기 한량없고 감사하기 한량없으니, 허허,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를 테스트해 보는 것도 되죠. 댁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기서 그냥 무마할 거를 저 사람 마음을 동하게 해서 이쪽에 와서 뺨을 옥동같이 부치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사람이, 그쪽 사람이 때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좋지만 그쪽 사람이 때렸다고 생각할 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라는 게 참 묘하죠. 그러니깐 남의 탓을 하지 말라. 모두가 스승이다. 남의 탓을 하게 되면 꼭 자기가 그만큼, 탓한 것만큼 진전이 빠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모두가 스승이지,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따로 있는 사람만 스승이 아니라, 스승은 스승대로 있다 하더라도 죽 그냥 전부야. 길을 가다가 봐도 스승이요, 오다 봐도 스승이요, 스승 아닌 게 없어.

질문자6(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스님, 이렇게 앉게 해 주신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이 어디서 오는 건지 가는 건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꿈을 꾸는데 소를 봤습니다. 소를 보는데 초가집 밑에서 큰 황소가 기지개를 딱 펴더니 그 소가 그것도 고삐가 뚝뚝 끊어지면서 그냥 달아나가는데, 트랙터가 그 소를 막으려고 했더니 소가 뿔을 들이대면서 그 트랙터 속으로 쏙 들어가는데 몸을 홀랑 벗으면서 그냥 달아나가는 걸 갖다가 '이거는 내가 잡아야 된다.' 하고 쫓아가면서 양 고삐를 잡았는데, 잡는 동시에 한참 산으로 끌려가다가 그 소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면서 등을 떡 대더니 엎드려 주면서 거길 타라 그러면서,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을 독경하면서 그 산등을 올라갔더니 허허벌판이, 그냥 벌판이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스님 용하십니다. 거기까지 길 없는 길을 걸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또 여여하게 있는 줄 아셔야 할 테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에서 없으면서도 이렇게 여여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는 것이 함이 없이 우리가 초월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자취를 앞으로는 떼어 놓지 않았으니깐 없고 또 자꾸 떼어 놓으면 발자국이 없어지니깐 없고, 그 발자국 떼어 놓는 것도 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체가 그대로 여여하게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그 마음을 던져 봐라. 마음을 즉 '탁 튀워라' 하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 옹졸해서 그 육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육이라는 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니까, 꿈이 생시고 생시가 꿈이니 생시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그 소가 댁이에요, 댁. 소로 화해서 보이는 거죠. 자기 소가 벗어나는 걸 자기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벗어나는 거를, 그렇게 벗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고삐를 탁 치고 이제는 매여 있던 이 육신, 통 안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음이 벗어나서 자유롭게 뛰다가 그것도 또다시 잡아야 하니까 화했습니다. 사람이 돼서 노인네로 익었습니다. 노인네로 보이는 건 익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익어 가니까 지금 익어 가는 도중에 또 여여하게 잡아서 타고, 그 사람이 타는 거는 '너의 몸과 내 이 늙은 아비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을 역대로 오면서 형성시켰으니까 당신의 조상이죠, 얼른 쉽게 말해서. 당신의 조상인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쫓아가서 그 소고삐를 쥐려고 했는데 탁 끊어진 것은 댁이 태어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를 탄 거는 둘이 아니라는 뜻이요, 그 소가 화해서 변한 거는 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요. 그래 둘이 아닌 도리를 또 알아야 이제 여여한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더 하십시오. 하여튼 장하십니다. 착해서…. 다 되셨습니까?

대중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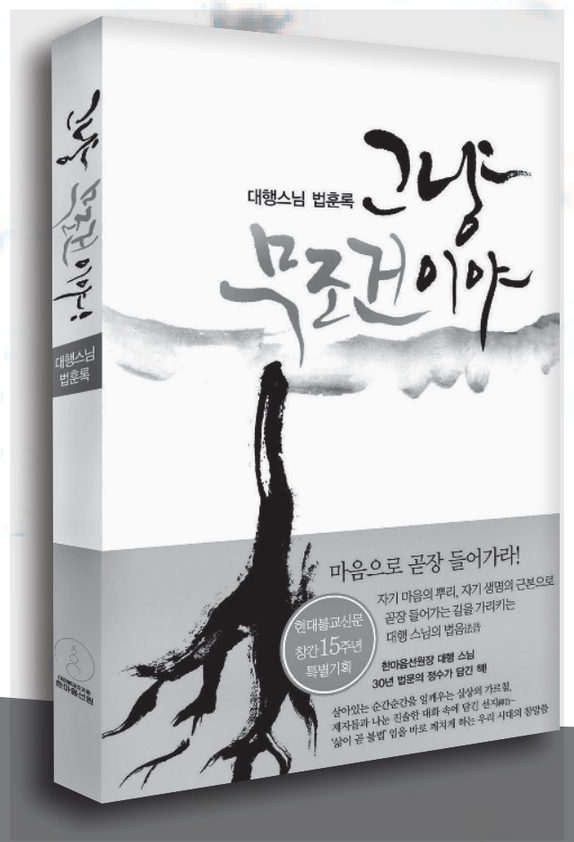
큰스님 그러니깐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할 것은 내가 추워서 걱정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말고, 허허, 법당이 있든 없든, 마당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생각하시고 그저, 내 마음은 자유다, 내 마음은 모두…. 마음이 자유죠? 그냥 벼락이 쳐 온대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점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뛸 줄 알아야 이것이 요량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실천을 해 보면 요량이 생기고, 뜻도 아주 막연한 뜻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광대한 뜻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공부하시려고 애쓰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에도 저기 지금 나간 분도 비록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려우나, 마음이 곱고 착하고 할 양으로 애쓰니까 그렇게 벗어나는 것을 말입니다.

※위 법문은 1997년 1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넣어도 넣어도 줄지 않는 마음, 그 뭣다 뭐 하느냐.
마음 한 접시씩 담아서 그냥 벌려라 이거야.
가려서 이쁜 사람만 주고 미운 사람 안 준다면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통달을 못 해!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mahamall.co.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 현불 논단 |

부처로 사는 한해 되길

법장 스님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새해 맞아 해인사 학인 스님들
팔만대장경 인경 울력에 '총력'

올핸 '대승기신론소기회본' 인경
국민들의 대승적삶 성취 기원해

평범한 우리의 일심이 부처 마음
부처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때
일상 평안해지고 행복 다가올 것

신축년 새해가 밝아오며 해인사에서는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새롭게 팔만대장경을 인경하는 울력을 하고 있다. 해인사는 고려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법보종찰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총림이다. 그런 해인사의 교육기관인 해인사승가대학(舊 해인강원)에는 오랜 전통으로 '한문불전강독' 의 수업에 사용하는 경전이나 논서를 학인 스님들이 직접 인경해 책을 만들어 교학을 익힌다. 시중에 나온 보기 편한 현대식 책이나 해설서도 얼마든지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자신의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하여 책을 만들고 그 가르침을 익혀 가슴에 담아 평생의 수행으로 삼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원효 스님께서 대승기신론을 주석하신 〈대승기신론소기회본(大乘起信論疏記會本)〉을 인경하고 있다. 이 주석서는 '대승의 신심을 일으키게 한다' 는 대승기신론에 대해 원효 스님이 본인의 수행과 교학의 철학을 담아 주석한 것이다.

원효 스님은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자이며, 수행을 실천으로 회향하신 성자이다. 그런 원효 스님이 대승의 신심을 어떻게 일으키고, 그것을 수행으로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직설이 담겨져 있기에, 인경에 참여하는 학인스님들의 마음가짐과 손길 하나하나에 간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리고 이러한 스님들의 간절함은 단순히 인경을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대승기신론〉의 가르침과 원효 스님의 수행실천이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지쳐버린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져 보다 대승적 삶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서원이기도 한 것이다.

지난해 발생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우리의 곁에서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도 처음에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다른 나라만의 질병으로 생각하고 무심히 했던 것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바로 우리 눈앞의 고통스런 현실로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너와 나, 어느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그저 함께 살아갈 방법을 강구해야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즉,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평등한 존재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의지처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어리석은 중생의 눈에만 중생과 부처의 구별이 있을 뿐이고, 깨달은 부처의 눈에는 부처라고 할 것도 중생이라 할 것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대승' 이라고 하는 것도 〈법화경〉에서 일승으로 귀결되어, 대소승 모두가 흰 소의 수레(백우거)를 타고 함께 열반으로 나아가게 된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에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모든 일을 함께 겪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공업중생(共業衆生)' 이라고 하는 것이다.

올해 신축년은 흰 소의 해라고 하여 더욱 의미가 특별하다. 〈대승기신론〉의 가르침과 같이 모두가 한 명 한 명의 부처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할 때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일상에서 우리는 이전과 같이 나와 남을 구별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흰 소의 수레에 올라타 대승적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일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대승기신론〉을 한 장 한 장 인경하는 스님들의 손길과 마음 속에는 그러한 우리의 대승적 삶의 성취를 간절히 바라는 서원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서원은 1400년의 시간을 초월한 원효 스님의 서원이기도 한 것이다. 평범한 우리의 일심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그러한 부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이 평안해지고 행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삐릿 의식'을 아시나요
〈pirit〉

스리랑카에는 경전을 독송하는 피릿 의식이 있습니다. 이사할 때나 생일날 등, 축복받는 일이 있을 때 또한 두려움이나 쉽게 풀리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의식을 행하지요. 그중에서 마하피릿(mahāpirit) 의식은 유명하고도 특별한 의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찰, 집, 가게, 회사 등 어떤 곳에서든지 한 번쯤 하게 되는 의식입니다. 올 1월 1일 아산 마하위하라사원에서도 새해를 맞이하는 삐릿의식을 준비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행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삐릿 의식은 한국불교로 보면 일종의 장엄염불입니다. 저녁 9시경에 시작해 다음날 아침 6시에 끝나는데, 독송과 정진, 설법을 듣는 모습으로 밤샘법회를 합니다. 보통 삐릿 의식을 위하여 '빠릿따 만닷빠(Paritta Maṇḍappha, 法樓)' 라는 임시 건물을 세워서 의식에 이용하는데 건축자재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뭇잎, 종이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비 낭비의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스님들은 종파 차이 없이 함께 법회를 진행하며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흰옷을 입습니다. 이는 한국의 제사나 성도재와 같은 의식 때 종단 상관없이 함께하는 것과 유사하지요.

이 의식에 독송되는 빠릿따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늘 마음에 새기고 외우며 삶의 도움이 되는 문장을 경에서 엄선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모아 만든 독송용 빠알리어 책도 있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 '패엽경' 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현재는 종이로 만든 책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책이 빠알리어로 빠리와하나(Parivahana), 싱할라어로 피루와하나(piruvahana)이며 '암송' 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석서에 따르면 1장에 빠알리어 글자가 8000개가 들어 있습니다. 마하삐릿 의식 때는 총 3만2000개 글자를 독송하는 셈입니다. 이 자뚜바나와라는 기원전 3세기에 남방불교의 최초의 사찰이자 종파인 대사파에서 스님들의 교육 전용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5세기쯤에 삐릿 의식으로 거행됐고, 후기에 몇 개의 진언이 추가됐습니다.

삐릿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스님들과 재가자들은 '삐릿 후야(pirit huya)' 라는 실(絲)을 잡고 의식에 참여했다가, 의식이 끝난 후 짧게 잘라서 오른팔에 감고 다니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몸을 보호하고 하는 일이 잘풀리며 결국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의식은 한국의 법회에서 오색실을 나누는 것과 비슷합니다.

의식에 사용하는 실은 하얀색인데, 하얀 실은 빨리 때가 타고 짧은 시간 안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색을 통해 무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온 후 삐릿 의식이 한국의 '밤재(철야법회)' 와도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 한국의 사찰에서 성도재일에 철야기도를 하지요. 한국의 불교에서 제를 지내는 의식이 하나의 문화로 유행한 것처럼 스리랑카와 같은 남방국가에서는 삐릿 독송을 일상 생활화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갖고 경전 독송을 경청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올해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한국 불자님들이 마하위하라 사원을 방문해 삐릿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길 발원해 봅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社 說

용미리 채석단지 지정 불가하다

㈜삼표산업이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보물 제93호) 인근 채석단지 지정 신청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7년만에 재추진되는 삼표산업의 채석단지는 지난번보다 대폭 면적을 늘려 파주시가 아닌 산림청에 지정을 신청했다. 이유는 30만㎡ 이상의 채석단지 지정 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이다.

삼표산업이 파주시를 통해 공람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회사 측이 추가로 지정하려는 채석장 예상 구획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과의 이격 거리는 260m로 영향 예상 이격 거리 500m보다도 가깝다.

발파 등을 통해 산을 깎아 돌을 캐는 채석장이 용미리 마애이불석불입상 인근에 들어설 경우 해당 문화재가 받는 피해는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삼표산업은 지난 2013년에도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인근에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했지만, 문화재청과 파주시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2014년 문화재청이 실시한 문화재특별점검에서 'E등급' 을 받았으며,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문화재 안정성을 고려해 삼표산업의 채석단지를 부결했다.

현재 조계종과 지역불교계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인근 채석단지 지정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수천 년에 걸쳐 형성돼 온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환경이 전부 파괴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삼표산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주민설명회는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삼표산업은 불교계와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 전에 현재의 채석단지 재추진을 백지화할 것을 바란다. 그것이 이 시대의 기업이 해야 할 상생의 정신이다.

국토부, 해인사역 건립 재조사해야

국토부가 추진 중인 남부내륙고속철도에 '해인사역' 을 배제하고 합천읍에 역사를 건립키로 하면서, 해인사와 지역주민들이 전면 재조사 및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해인사역 건립을 요구하는 이유는 해인사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님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해인사와 지역사암, 주민들로 구성된 해인사역사주민추진위원회는 국토부가 해인사역을 배제한 채 추진 중인 노선(초안)은 국토균형발전과 경제성, 국민편의 등 철도건설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합천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상당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해인사와 가야산국립공원 방문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외부인구 유입 및 효용성 측면에서도 야로면 일대에 해인사역이 설치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초안에서 계획된 합천읍 위치의 역사는 거주인구 및 유동인구수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이 지점에서 국토부는 경전선의 함안역 사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함안역은 마산~진주 노선의 중간에 설치된 역사다. 혁신도시를 감안해 기존계획에서 추가로 건립됐지만 결과적으로 수요저조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다.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 가장 합리적이고 위험부담이 적은 지역에 설치해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토부가 철도건설의 기본취지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다. 해인사와 지역주민의 재조사 · 재검토 요구를 수용해 가장 합리적인 곳에 해인사역을 건립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

지난 2020년 12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제기한 '차 체험관 철거소송'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은 선암사의 법적 등기소유권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권원이 없는 불법 무단 점유자인 태고종 선암사 주지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소유의 토지상에 순천시가 건립한 '차 체험관'을 철거하라는 내용으로 지난 2011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소 제기에 대해 2014년 4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피고 순천시가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 6월 광주지방법원 항소부 또한 피고 순천시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피고 순천시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태고종 선암사는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가 제기된 2015년 6월 이후 대단히 이례적으로 약 5년 6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하다가 지난 2020년 12월 24일 선고를 하였습니다.

선암사는 국가법에 의해 대한불교조계종에 귀속된 전래의 사찰입니다.

우리나라 전래사찰은 특정 시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조직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공적 자산이기에 오로지 재단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시기의 사람들이 임의로 그 자산의 성격이나 지위를 변동시킬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전래의 사찰은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에도 국가제도로 직접 통할하거나 국가에서 위임한 단체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며, 일제강점기는 물론 현재에도 나라의 공적 자산으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전래의 사찰은 사찰령이 폐지되고 불교재산관리법으로 대체한 이래 오로지 국가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 심사를 거쳐 등록한 단체에 귀속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며, 선암사는 이러한 국가법(불교재산관리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에 합법적으로 귀속된 것입니다. 국법에 의해 대한불교조계종에 귀속된 선암사만이 진실한 실체이며, 동일한 자산으로 하는 다른 법적 실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적법한 권한행사는 부정하고, 오히려 1970년도에 창종한 태고종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선암사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권한 없이 선암사를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태고종 승려들에 의한 착시적 현상에 집착하여 사찰령 및 불교재산관리법의 규정과 의미, 내용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표피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순천시의 '차 체험관 건립공사'는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순천시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경내지에 건립한 차 체험관은 그 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건조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또는 폐지의 경우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산 및 부동산의 대여 ·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의 경우에는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경내지에 '차 체험관'을 건립하면서 등기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통사찰보존법 상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또한 받지 않음으로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유일한 종단입니다.

일제강점기시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찰주지 자격인 비구계 수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 불교화를 본격화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도 대부분의 전래 사찰들이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신 비구승들을 중심으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불교 전통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화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대한불교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오롯이 계승한 유일무이한 종단임을 정부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1969년 2월 문공부, 재산관리인 해제와 조계종 임명 주지에게 선암사 사무인계. 1969년 10월, 통합종헌 유효 대법원 판결, 1972년 8월 문공부, 태고종 선암사는 부존재하고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 등)

대한불교조계종은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래사찰 선암사의 온전한 보존과 계승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태고종이 불법적으로 점유 및 거주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운영과 관리를 극렬하게 저항해왔던 상황이 지속되어 왔기에, 재산권자로서 사찰운영과 관리는 불가피하게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1970년 문공부가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승주군수(현 순천시장)을 임명한 이후 재산관리인을 해임한 2011년까지 41년 동안 지속적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재산관리인 해임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한 이유 또한 대한불교조계종의 권한 행사가 제한적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권자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운영과 관리를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던 것은 선암사 입주로 인한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한불교조계종의 깊은 고심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한국불교가 전래된 지 1,700여년입니다. 1,700여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불교가 현재에 전승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불교는 민족 고유의 문화자원인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러 왔습니다. 한국불교가 이처럼 많은 희생과 인내를 감내하며 오늘에 이르게 된 이유는 불조 이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역대 조사스님들의 가르침과 그 면면에 흐르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러한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이 훼손되지 않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유일한 계승자인 대한불교조계종의 합법적인 지위와 권원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국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정받아왔던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정체성을 올곧이 이어 한국불교의 정통성이 상실되지 않고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불기2565(2021)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